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9-005

페루의 주요 산업

광업 · 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권기수 | 박강욱

KIEP-kotra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9-05

페루의 주요 산업

인 쇄 2009년 12월 25일
발 행 2009년 12월 30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9
팩 스 02) 3460-1144
http://www.kiep.go.kr ⓒ 2009 KIEP
정 가 10,000원
ISBN 978-89-322-0074-3 93320

머 리 말

통상 · 세계지역연구 분야의 국내 최고 싱크탱크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와 오랫동안 현장 중심의 해외정보 생산에 주력해온 KOTRA가 연구 노하우를 모아 「KOTRA-KIEP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이미 2006년부터 업계의 높아지는 정보 수요에 맞추어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 알제리, 이집트, 인도, 태국, 필리핀, UAE, 카자흐스탄, 헝가리, 칠레, 나이지리아의 산업 분석 자료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미얀마를 비롯해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와 페루의 산업 분석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유망국가 산업연구 시리즈」는 성장속도가 빠른 신흥시장의 산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대상산업 선정과 진출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별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되 현지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

페루의 주요 산업

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IT, 건설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비롯한 신성장산업에 이르기까지 KOTRA와 KIEP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 조사하였으며, KIEP가 전체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유망국가별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흔치 않은 현실에서 「KOTRA-KIEP 유망국가 산업연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탐색 및 산업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KOTRA-KIEP의 공동연구인 「유망국가 산업연구」가 국내 최고의 산업분석 자료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은 해외 산업동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가 나오기까지 정보 작성에 수고하신 KOTRA 해외 한국비즈니스센터(KBC)와 통상정보본부 담당자, 그리고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연구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2월

KOTRA 사장 **조환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 욱**

국문요약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에 힘입어 2000~08년에 연평균 약 6%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페루는,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및 자금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산업발전 수준은 매우 낮으며 1차산품 단순가공에 편중된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특히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정책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낙관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협력 산업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페루와의 광물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광해대책 분야나 폐광 활용 분야 등 현재 페루 정부가 자원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강화,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방안 모색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규모는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IT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한·페루 IT산업협위원회 설립, 정보접근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하는 한편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ODA의 일환으로 IT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등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최근 페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페루를 중남미 IT 시장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페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수산 부문에서 협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ODA 등을 활용해 페루의 수산인력 육성 사업을 지원하거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지 진출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FTA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해 페루를 수산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 등 제3국 시장을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밖에 양식산업이나 냉장유통(cold chain) 등 최근 페루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거나 페루 내에서 개발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서 협력사업도 매우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미주개발은행(IDB) 차관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례

머리말 ii

국문요약 iv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구성 및 방법 4

II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개관 9
   가. 경제 특징 9
   나.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14

2. 산업구조의 특징 28
   가. 개황 28
   나. 주요 산업 현황 35

3. 주요 산업정책 48
   가. 최근 산업정책 48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53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59
   라. 산업발전 과제 65

III 광업 · 에너지산업

1. 산업개황 73
가. 광업 73
나. 에너지산업 77

2. 주요 육성정책 82
가. 광업 82
나. 에너지산업 90

3. 산업 현황 및 구조 99
가. 광업 99
나. 에너지산업 114

4. 진출 환경 123
가. 광업 123
나. 에너지산업 140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145
가. 광업 145
나. 에너지산업 153

6. 향후 성장잠재력 160

IV IT산업

1. 산업개황 167
2. 주요 육성정책 172
3. 시장 현황 및 구조 178
   가. 인터넷 시장 178
   나. 소프트웨어 시장 185
   다. 하드웨어 시장 188
   라. 통신시장 191
   마. 수출입 201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206
   가. 하드웨어 기업 206
   나. 소프트웨어 기업 208
   다. IT 서비스 기업 209
5. 향후 성장잠재력 211

V 수산업

1. 산업개황 217
2. 주요 육성정책 219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219
   나. 주요 정책 223
3. 생산 현황 및 구조 230
   가. 어획 및 생산 230
   나. 가공 240

다. 수출 242
라. 국내 소비와 수입 252
마. 투자 255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256

5. 향후 성장잠재력 258

VI 한국·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263

2. 한·페루 산업협력 현황 270
가. 경제협력 현황 270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283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 288

3. 한·페루 산업협력 방안 296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296
나. 산업협력 방안 298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 303

참고문헌 325

부록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327
부록 2 관련전시회 333

표 차례

표 II-1 중남미 주요국의 1차산품 수출 비중 (2003~06년 평균) 11
표 II-2 페루의 경제성장률 추이 15
표 II-3 충격투자(Shock Inversión) 정책의 주요 목표 22
표 II-4 중남미 자원부국의 주요 경제위기 대응책 23
표 II-5 페루의 경기부양정책의 주요 내용 24
표 II-6 산업별 GDP 구성 추이 29
표 II-7 산업 분야별 GDP 성장률 30
표 II-8 페루의 품목별 수입 구조 32
표 II-9 페루의 지역별 수출입 추이(2008년 기준) 33
표 II-10 페루의 10대 수출입 상대국(2008년 기준) 34
표 II-11 페루 농축산물 생산 추이 37
표 II-12 페루의 삼림면적의 세계 순위 38
표 II-13 제조업 생산 추이 41
표 II-14 2021년 달성 구체 목표 51
표 II-15 페루의 산업기술 우선순위 육성 부문 52
표 II-16 페루의 관세율 현황(2009년 5월) 53
표 II-17 페루의 주요 무역협정 체결 현황 56
표 II-18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2008년 누적액 기준) 63
표 II-19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 (2008년까지 누적액 기준) 64
표 II-20 페루 산업기술정책의 주요 문제점 66
표 III-1 페루의 광물 생산 순위(2008년) 75
표 III-2 페루의 광물개발 및 탐사 면적 76

표 III-3 페루의 주요 광업관련 법 현황 86
표 III-4 자발적 기부금제도의 개요 89
표 III-5 최근 광업관련 조치의 주요 내용 91
표 III-6 페루의 석유관련 주요 법령 93
표 III-7 페루 에너지 통계 추이 97
표 III-8 페루의 광물 생산 현황 100
표 III-9 페루 상위 10대 동 광산의 생산량(2008) 101
표 III-10 페루 상위 10대 아연 광산의 생산량(2008) 102
표 III-11 페루 상위 10대 금 광산의 생산량(2008) 103
표 III-12 주요 광물 수출 현황 107
표 III-13 주요 광물 수출기업 현황 (2007년, 5억 달러 이상) 108
표 III-14 페루 금속광물(HS 26) 수출 추이 108
표 III-15 광물(HS 26)수입(2006~2008년) 109
표 III-16 금속광물 수입 대상국 110
표 III-17 철 및 무쇠 용해물(HS 72) 수입 대상국 111
표 III-18 규모별 민간광업회사 고용 근로자 수 (2006년) 111
표 III-19 직급별 광산·채석장 채굴 종사자 현황 (2006년) 112
표 III-20 광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113
표 III-21 페루의 원유 수출 추이 118
표 III-22 페루의 천연가스 수출 추이 119
표 III-23 페루의 연료(HS 27) 수입 현황 119
표 III-24 페루의 주요 연료 수입국 현황 120

표 III-25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전력산업 프로젝트 121
표 III-26 광업관련 주요 사회·환경 분쟁의 내용 129
표 III-27 세계 25대 메이저 광물업체들의 중남미 광물탐사 현황 146
표 III-28 세계 25대 메이저 광물업체들의 중남미 광물 생산 현황 147
표 III-29 페루 진출 광물기업의 주요 현황 148
표 III-30 페루 상류부문의 주요 진출기업 153
표 III-31 페루 하류부문의 주요 진출기업 154
표 III-32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155
표 III-33 SK의 페루 에너지산업 참여 현황 156
표 III-34 SK 이외 기업들의 Camisea 프로젝트 참여 (88, 56광구) 157
표 III-35 SK외 기업들의 TgP 가스수송관 프로젝트 참여 현황 157
표 III-36 2009~2013년 Calidda사의 가스 공급 투자 158
표 III-37 ICA 지방 가스 공급 입찰 현황 159
표 IV-1 페루의 IT 및 통신(ICT) 지표 168
표 IV-2 중남미 10대 인터넷 사용 국가(2008년) 170
표 IV-3 중남미 10대 인터넷 보급률 국가(2008년) 171
표 IV-4 중남미 국가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171
표 IV-5 페루 인터넷 보급률 현황 180
표 IV-6 페루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182
표 IV-7 기술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현황 183

표 Ⅳ-8 중남미 각국의 기술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현황(2008년) 183
표 Ⅳ-9 페루 IT산업 지표(2006~13년) 189
표 Ⅳ-10 페루의 유선전화 서비스 회선 수 및 보급률 현황(1997~2008년) 194
표 Ⅳ-11 중남미 국별 유선전화 서비스 회선 수 및 보급률 현황(2008년) 194
표 Ⅳ-12 페루 무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1997~2009년) 196
표 Ⅳ-13 기술별 무선전화 시장점유율 추이(2004~08년) 198
표 Ⅳ-14 운영업체 및 기술별 무선전화 가입자 수 현황 (2008년 12월 현재) 198
표 Ⅳ-15 중남미 국별 무선전화 가입자 수 및 중남미 역내 비중 200
표 Ⅳ-16 개인용 컴퓨터 연도별 판매액 202
표 Ⅳ-17 컴퓨터(HS 8471) 수입대상국 203
표 Ⅳ-18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의 수입상대국 204
표 Ⅳ-19 플래시 메모리 수입상대국 204
표 Ⅴ-1 어족자원 보호 주요 조치 227
표 Ⅴ-2 산업용 어선 수 231
표 Ⅴ-3 품목별 수산물가공 공장 수와 생산능력 (1998~2007년) 232
표 Ⅴ-4 용도별 어획량 추이(1999~2008년) 233
표 Ⅴ-5 직접식용(CHD)을 위한 주요 수산자원의 어획량 234

표 Ⅴ-6 생계형 어선의 현황 235
표 Ⅴ-7 페루 양식 생산량 추이 238
표 Ⅴ-8 2006년 규모별 페루 수산업 민간회사의 근로자 수 242
표 Ⅴ-9 페루 수산물 수출 현황(수출금액 기준) 243
표 Ⅴ-10 페루 수산물 수출 현황(수출량 기준) 244
표 Ⅴ-11 용도별 수산물 수출량 추이 245
표 Ⅴ-12 양식 수산물의 수출 246
표 Ⅴ-13 페루 수산물의 수출대상국 수 추이 246
표 Ⅴ-14 갑각류 또는 생선의 어분(HS 2301.20)의 수출대상국 248
표 Ⅴ-15 어유 및 지방(HS 1504.20) 수출 248
표 Ⅴ-16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세부 품목별 수출 249
표 Ⅴ-17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수출 및 수출대상국 250
표 Ⅴ-18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류 및 기타 무척추류(HS 1605)의 수출대상국 251
표 Ⅴ-19 조리한 생선 및 통조림(HS Code 1604) 국가별·연도별 수출 251
표 Ⅴ-20 페루 국내 생선 소비량(2004년) 252
표 Ⅴ-21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연도별 수입 현황 253
표 Ⅴ-22 생선·갑각류·연체류의 국가별 수입 현황 254

표 Ⅴ-23 조리한 생선 및 통조림(HS 1604)의 국가별 수입 현황 254
표 Ⅴ-24 어업 지속성 가능 지수 순위 259
표 Ⅴ-25 유망 양식 어종 260
표 Ⅵ-1 중남미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10) 순위 264
표 Ⅵ-2 중남미 10대 수출입 대상국(2008년) 271
표 Ⅵ-3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입 추이 현황 272
표 Ⅵ-4 대페루 10대 수출입 품목(2008년) 273
표 Ⅵ-5 중남미 국별 직접투자 현황(2009년 6월 누적) 274
표 Ⅵ-6 연도별 대페루 직접투자 추이 276
표 Ⅵ-7 업종별 대페루 직접투자 현황 (2009년 9월 누계 기준) 277
표 Ⅵ-8 대중남미 국별 무상원조 지원 현황 278
표 Ⅵ-9 한·페루 FTA 경제적 효과 282
표 Ⅵ-10 중남미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 (2009년 9월 현재) 283
표 Ⅵ-11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EDCF 지원 현황 (2009년 말, 승인액) 300
표 Ⅵ-12 중남미 국별 계약 참여 방식 307
표 Ⅵ-13 패키지형 진출 유망국가와 분야 308
표 Ⅵ-14 정보접근센터와 IT국제협력센터 비교 311
표 Ⅵ-15 생산기지로서의 전망 321

그림 차례

그림 II-1 페루의 국토면적 위상 12
그림 II-2 페루의 인구 위상(2008년) 12
그림 II-3 페루의 GDP(2008년) 13
그림 II-4 페루의 1인당 GDP(2008년) 13
그림 II-5 페루의 재정수지 추이 16
그림 II-6 민간부문의 투자 추이 19
그림 II-7 페루의 수출 추이 20
그림 II-8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 규모(2008~10년) 24
그림 II-9 페루의 공공투자 추이 및 전망 25
그림 II-10 페루 경제성장 전망 26
그림 II-11 페루의 품목별 수출 구조 31
그림 II-12 페루의 삼림 수출 추이 39
그림 II-13 주요 삼림 수출대상국 비중(2008년) 39
그림 II-14 중남미 상장기업 수 비교(2008년) 44
그림 II-15 중남미 국별 주가 변동 비교 45
그림 II-16 페루의 관광객 유입 추이 46
그림 II-17 페루의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가득 추이 47
그림 II-18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2006~2021 50
그림 II-19 페루의 FDI 유입 추이(누적 기준) 62
그림 II-20 페루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68
그림 III-1 페루의 광물 매장량 세계 순위(2007년) 74
그림 III-2 페루의 광물 매장량(2007년) 74
그림 III-3 페루의 석유 매장 현황(2008년) 78
그림 III-4 페루의 석유 가채연수(2008년) 78
그림 III-5 페루의 석유 매장 연평균 증가율(1998~2008년) 79

그림 Ⅲ-6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및 순위(2008년) 80
그림 Ⅲ-7 페루의 천연가스 가채연수(2008년) 80
그림 Ⅲ-8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 연평균 증가율 (1998~2008년) 81
그림 Ⅲ-9 페루 정부의 에너지원 변화 계획 96
그림 Ⅲ-10 페루 광물 수출 세계 순위(2007년) 105
그림 Ⅲ-11 페루의 광물 수출 추이 106
그림 Ⅲ-12 페루 광업 투자 추이 113
그림 Ⅲ-13 페루의 석유 소비 현황(2007년) 114
그림 Ⅲ-14 페루의 석유 소비 증가 현황(1997~2007년) 115
그림 Ⅲ-15 페루의 석유 생산 현황(2007년) 116
그림 Ⅲ-16 페루의 석유 생산 증가 현황(1997~2007년) 116
그림 Ⅲ-17 페루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현황 117
그림 Ⅲ-18 석유산업 투자규모 122
그림 Ⅲ-19 페루의 광물개발 단기 리스크 비교 (2009년 3분기 현재) 124
그림 Ⅲ-20 페루의 광물개발 중기 리스크 비교(2009년 3분기 현재) 124
그림 Ⅲ-21 광산개발 진출 환경 비교 125
그림 Ⅲ-22 기존 규정의 관리, 해석 및 실행의 불확실성 127
그림 Ⅲ-23 환경규정 128
그림 Ⅲ-24 광업관련 분쟁의 원인(2008년) 128
그림 Ⅲ-25 원주민의 토지반환요구 등에 따른 불확실성 130
그림 Ⅲ-26 삼림보호지역 및 공원지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 132

그림 Ⅲ-27 규정의 중복성 및 비일관성 133
그림 Ⅲ-28 세제 134
그림 Ⅲ-29 인프라 135
그림 Ⅲ-30 정치적 안정 136
그림 Ⅲ-31 치안 안전 137
그림 Ⅲ-32 노동규정・고용협약 138
그림 Ⅲ-33 노동력(숙련 노동력) 이용의 수월성 139
그림 Ⅲ-34 지질 데이터의 우수성 및 신뢰성 140
그림 Ⅲ-35 페루 석유개발 단기 리스크 비교 (2009년 3분기 현재) 141
그림 Ⅲ-36 페루 석유개발 중기 리스크 비교 (2009년 3분기 현재) 141
그림 Ⅲ-37 전 세계 국가들의 석유개발부문 진출 환경 비교 143
그림 Ⅲ-38 페루 석유개발의 요소별 진출 환경 144
그림 Ⅲ-39 전 세계 주요 광물국의 잠재력 순위 (4년 평균 기준) 161
그림 Ⅲ-40 세계 10대 비철금속 탐사 대상국(2008년) 162
그림 Ⅳ-1 페루 정보화 수준 순위 169
그림 Ⅳ-2 중남미 국별 무선전화 보급률 현황(2008) 199
그림 Ⅳ-3 페루 IT시장 발전 전망 (2008~2013년, 연평균 증가율) 212
그림 Ⅳ-4 페루 분야별 IT시장 크기 전망 213
그림 Ⅴ-1 페루 수산물 수출 추이 242
그림 Ⅴ-2 품목별 페루 수산물 수출 비중(2008년) 244

그림 Ⅴ-3 페루 수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2008년) 247
그림 Ⅵ-1 항목별 페루의 기업환경 순위 266
그림 Ⅵ-2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및 페루 현지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267
그림 Ⅵ-3 중남미 및 페루 진출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물류상의 문제점 268
그림 Ⅵ-4 페루 시장 투자진출 동기 289
그림 Ⅵ-5 투자진출대상국으로서 페루에 대한 평가 290
그림 Ⅵ-6 우리 기업들이 페루 진출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291
그림 Ⅵ-7 페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292
그림 Ⅵ-8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293
그림 Ⅵ-9 페루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294
그림 Ⅵ-10 향후 사업계획 295

글 상자

글상자 1	카미세아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예상 효과	95
글상자 2	아마존 지역의 토착 원주민들의 광산개발 참여 요구 현황	130
글상자 3	FITEL의 브로드밴드 프로젝트	173
글상자 4	공중 PC방(Cabinsa Publicas)	174
글상자 5	정보화사회개발계획의 5대 목표 및 주요 정책	176
글상자 6	Grupo Deltron사 소개	208
글상자 7	수산부문 주요 투자 기회	260
글상자 8	한·페루 FTA 협상 일지	279
글상자 9	한국석유공사와 중남미 NOC와의 협력 사례	285
글상자 10	일본·멕시코 FTA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302
글상자 11	일본과 페루의 광해대책 분야 협력 현황	305
글상자 12	한국의 페루 IPTV시장 진출 사례	314
글상자 13	페루의 수산부문 교육 실태	319

I

서 론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페루는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추진에 힘입어 2000~08년 기간 연평균 약 6%대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역동적인 성장 센터로 부상했다.

특히 페루는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넓은 국토를 기반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각종 생물 및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선진 각국의 자원협력 우선 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페루는 현재 중남미 국가 중 세계 금속광물 메이저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 같이 세계경제에서 페루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도 그간 국내에서는 페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페루 산업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페루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중남미 유망 진출 대상국으로서 주목을 받고 한국·페루 FTA 협상이 본격 개시되면서 국내에서 페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페루의 전반적인 개황과 잠재력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페루의 유망산업을 선정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정부 및 기업의 협력 및 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현지 사정에 밝은 KOTRA와 공동연구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인 진출방안을 발굴·제시하였다.

2. 연구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나뉜다. 서론에 이은 Ⅱ장에서는 페루 경제의 주요 특징, 최근 경제 현황과 전망, 주요 경제정책, 산업구조의 변화와 주요 산업육성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최근 페루의 대외개방정책과 국가과학기

1) KOTRA를 중심으로 자원산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연구 시점이 오래되어 현재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08년에는 대통령의 페루 방문에 맞추어 수출입은행에서 페루의 경제현황과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심도 깊은 연구보다는 페루 산업을 소개하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술혁신계획(PNCTI)을 중심으로 한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제Ⅲ장에서 Ⅴ장까지는 본 연구의 핵심 부문인 산업별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망산업 분야로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 3개 분야를 선정했다. 3개 산업 분야는 KOTRA와 협의하에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정되었다.

먼저 제Ⅲ장의 광업・에너지산업은 페루의 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로 페루 정부가 중점을 두고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페루 정부는 양적인 자원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제Ⅳ장의 IT산업은 중남미 국가 중 규모는 아직까지 작으나 성장 속도는 매우 두드러진 산업이다. 페루 정부는 정보화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부 유망 IT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제Ⅴ장의 수산업은 페루의 전통적인 수출 효자산업이다. 현재 페루 정부는 어족의 지나친 남획에 따른 수산 생태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조업 금지기간을 정해 어장을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

다. 특히 페루 정부는 유망 육성분야로 담수 및 해수 양식 산업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1차적으로 현지 문헌을 중심으로 산업현황과 특성 분석에 주력했다. 페루 현지의 생생한 산업 관련 동향이나 정보는 공동 연구진인 KOTRA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진출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기업들과 설문조사 등을 병행 실시해 이를 연구결과에 반영했다.

II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 경제 개관

2 / 산업구조의 특징

3 / 주요 산업정책

1

경제개관

가. 경제 특징

먼저 페루 경제는 지역별, 인종별로 소득격차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 페루는 지역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안 지역과 소득수준이 낮은 내륙 고원지대로 이분화된 심각한 지역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종적으로도 전 국민의 12%에 불과한 유럽계 백인이 대부분의 경제권을 쥐고 있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인디오(전체의 50%), 메스티조(37%)가 소외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둘째, 페루 경제의 특징은 1차산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페루 경제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전형적인 1차산품 의존형 경제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광물과 수산물은 페루의 대표적인 외화가득원이다. 2008년 기준으로 총 수출대비 광물의 비중은 60%, 수산물의 비중은 5.7%에 달한다. 여기에 농산물과 석유 및 부산물 등을 더할 경우 1차산품의 수출 비중은 총 수출의 76%를 점한다. 이같은 1차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세계경제의 경기변동에 부침이 심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노출시킨다. 다른 중남미 자원부국과 비교해볼때, 1차산품에 대한 페루 경제의 의존도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3~2006년 평균 기준으로 중남미 주요 자원부국의 1차산품 수출의존도(총수출 대비)를 살펴보면 베네수엘라가 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페루 69%, 아르헨티나 59%, 칠레 58%, 콜롬비아 53%, 브라질 42%, 멕시코 15%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페루는 국토면적, 인구 등 물리적 규모 면에서는 중남미 상위 그룹에 속하는 데 반해, 경제규모나 국민소득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페루는 남미 대륙에서는 네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19번째로 넓은 국토면적을 갖고 있는 대규모 국가이다. 인구도 2008년 현재 2,800만 명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 멕

표 II-1 중남미 주요국의 1차산품 수출 비중(2003~06년 평균)

구 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1차산품 수출에서 각 산품의 비중 (%)	석유	21	14	3	47	88	9	96
	동	4	1	75	0	3	25	0
	대두	37	22	0	0	0	0	0
	금	1	1	2	7	1	29	0
	석탄	0	0	0	22	0	0	1
	철광	0	16	1	0	0	2	0
	수산물	2	0	11	1	1	15	0
	커피	0	5	0	13	1	3	0
	아연	0	0	0	0	1	10	0
	설탕	0	8	0	3	0	0	0
	옥수수	0	0	0	0	0	0	0
	기타	28	32	7	8	5	7	3
총수출대비 1차산품 수출 비중(%)		59	42	58	53	15	69	86
GDP 대비 1차산품 수출 비중(%)		13	6	20	9	4	14	31

자료: IMF.

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그러나 GDP, 1인당 GDP 등 경제규모 측면에서는 중남미 국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2008년 현재 GDP 규모는 1,270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일곱 번째이며, 1인당 GDP는 4,481달러로 중남미 평균을 밑돈다.

그림 II-1 페루의 국토면적 위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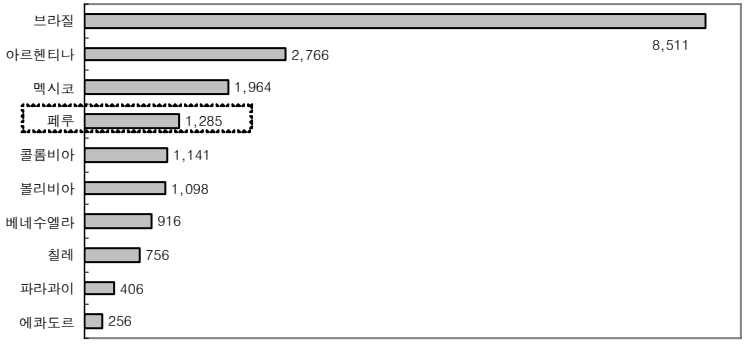


그림 II-2 페루의 인구 위상(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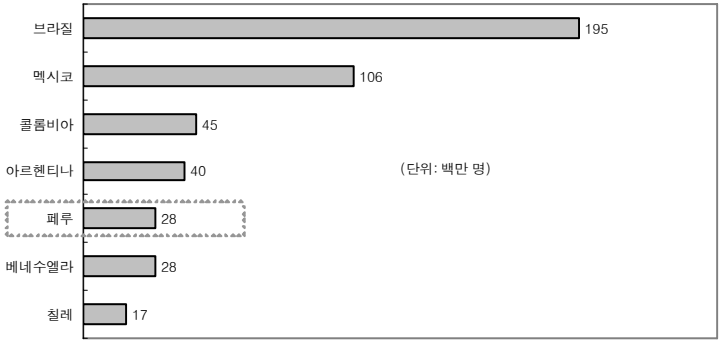


그림 II-3 페루의 GDP(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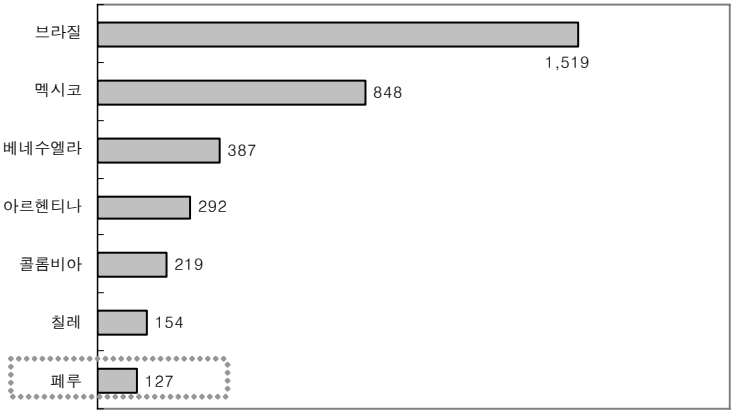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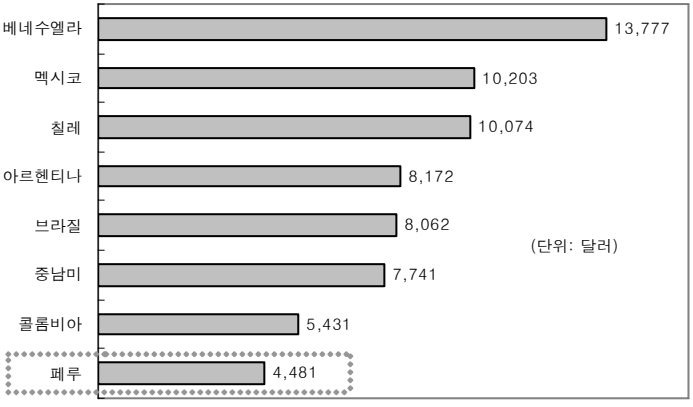


그림 II-4 페루의 1인당 GDP(2008년)

(단위: %)



나. 최근 경제현황과 전망

1) 최근 거시경제 현황

2000년대 들어 페루 경제는 중남미 경제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페루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중남미 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3.2%에 머물렀다.[2]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페루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9년간(2000~2008년) 페루 경제는 연평균 5.6%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남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 3.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다. 또한 최근 이같은 성장세는 1970년대 이후 최장(最長) 및 최고(最高)의 성장세로 2008년 페루 경제는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9.8%)를 기록했다.

최근 페루 경제의 높은 성장세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페루 정부의 일관된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들 수

2) 사실 페루 경제는 1990년대 중반(1994~97년) 연평균 8%에 가까운 성장세를 시현, 중남미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남미 전역을 강타한 신흥시장 금융위기 여파와 후지모리 대통령의 탄핵 등 연이은 정치적 혼란은 그간 쌓아 놓았던 페루 경제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 결과 1998~2001년 기간 페루 경제는 연평균 0.9%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표 Ⅱ-2 페루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
1990	−1.8	−4.3	3.7	3.9	5.2	−5.1	6.5	−1.7
1991	10.6	1.0	8.0	2.4	4.2	2.1	9.7	3.5
1992	9.6	−0.5	12.3	4.4	3.5	−0.4	6.1	3.3
1993	7.2	4.9	7.0	5.7	2.5	4.8	0.3	4.1
1994	5.8	5.9	5.7	5.1	4.5	12.8	−2.3	5.0
1995	−2.8	4.2	10.6	5.2	−6.2	8.6	4.0	1.1
1996	5.5	2.2	7.4	2.1	5.2	2.5	−0.2	3.4
1997	8.1	3.4	6.7	3.4	6.8	6.9	6.3	5.1
1998	3.8	0.0	3.2	0.6	4.9	−0.7	0.5	2.1
1999	−3.4	0.3	−0.8	−4.2	3.9	0.9	−6.1	0.4
1990 ~99	4.3	1.7	6.4	2.9	3.4	3.2	2.5	2.6
2000	−0.8	4.3	4.6	2.9	6.6	3.0	3.7	3.9
2001	−4.4	1.3	3.4	2.2	−0.2	0.2	3.4	0.5
2002	−10.9	2.7	2.1	2.5	0.8	5.0	−8.7	0.1
2003	8.8	1.1	3.8	4.6	1.4	4.0	−8.0	1.8
2004	9.0	5.7	5.9	4.7	4.0	5.0	18.4	5.6
2005	9.2	3.2	5.6	5.7	3.2	6.8	10.3	4.5
2006	8.5	4.0	4.8	6.9	5.1	7.7	10.3	5.5
2007	8.7	5.7	4.7	7.5	3.3	8.9	8.5	5.4
2008	6.8	5.1	2.9	2.5	1.4	9.8	4.9	3.9
2000 ~08	3.9	3.7	4.2	4.4	2.9	5.6	4.7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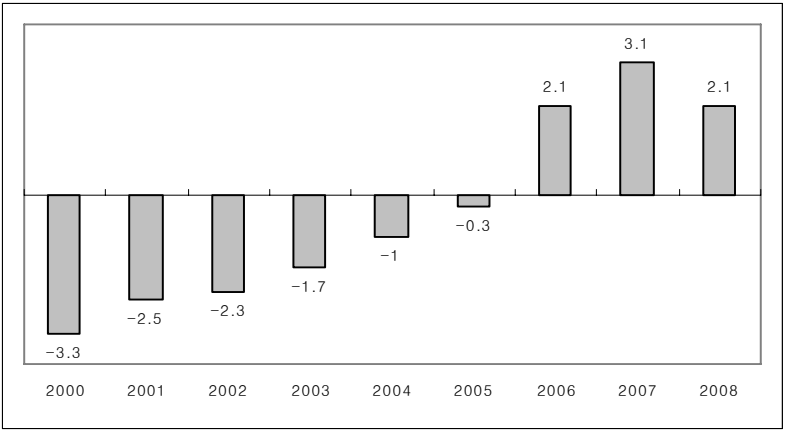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있다. 톨레도(Alejandro Toledo) 대통령(2001~06년)에 이어 2006년 7월 출범한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대통령도 시장개방,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화, 물가안정을 양대 축으로 하는 일관된 거시경제정책 추진은 페루 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재정지출의 상한선을 정한 재정책임·투명법(LRTF)의 엄격한 시행과 경제호황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에 힘입어 재정

그림 II-5 페루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수지는 2006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오고 있다. 재정수지 개선에 힘입어 정부부채(GDP 대비)도 2003년 47%에서 2008년에는 24%로 크게 감소하였다. 페루는 또한 2002년 도입한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통한 통화정책 성공으로 OECD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0~08년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는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내수 중심의 경제[3]인 페루에서 민간소비는 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기능했다.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국민소득(GNI) 증가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은 고용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규모 건설인프라 공사 및 광산업 활황에 따른 고용 창출은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는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광산부문의 경우 2007년에만 직간접 고용창출은 40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고용확대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3년 9.7%에서 2007년에는 6.9%까지 하락했다.[4] 민간소비 확대는 2006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자동차 판매 증가에 힘입은 바 컸다.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는 2006년 7.2%, 2007년 8.3%, 2008년 8.7% 증가

3)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은 63.7%, 정부소비의 비중은 8.9%, 총고정투자 비중은 25.9%,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27.4%, 26.8%를 차지하고 있다.

4)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에는 8.1%로 증가했다.

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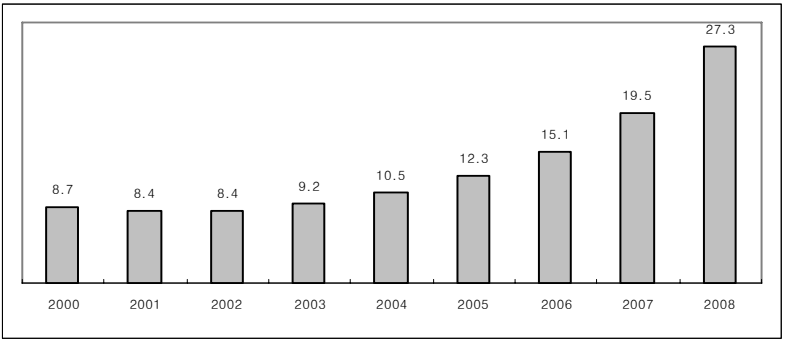
소비 증대, FDI 유입 등에 힘입은 큰 폭의 투자 증가세도 높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내수 확대에 따라 2007년 공업생산은 GDP 성장률을 웃도는 10%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2008년에도 10%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0년대 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투자(Fixed Gross Investment)도 200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3년간(2006~08년)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26%에 달했다. 대규모 광산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FDI 유입 확대도 투자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5] FDI 유입규모는 2005년 25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54억 달러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2008년 FDI 유입규모는 40억 달러를 웃돌았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총 투자규모는 2005년 123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73억 달러에 달했다.

민간부문의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투자도 투자 확대를 견인했다. 가르시아 정부는 2006년 집권 이후 단기간의 집중투자를 통한 경제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충격투자 프로그램(Shock Inversión)을 실시하였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식수공급 및

5) 주요 프로젝트는 브라질과 페루를 잇는 남미횡단(Inter-Oceanic) 고속도로 건설, 카미세아(Camisea) 천연가스전 개발, 세로베르데(Cerro Verde) 신규 광산 개발 등이다.

그림 II-6 민간부문의 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페루 민간투자청(Proin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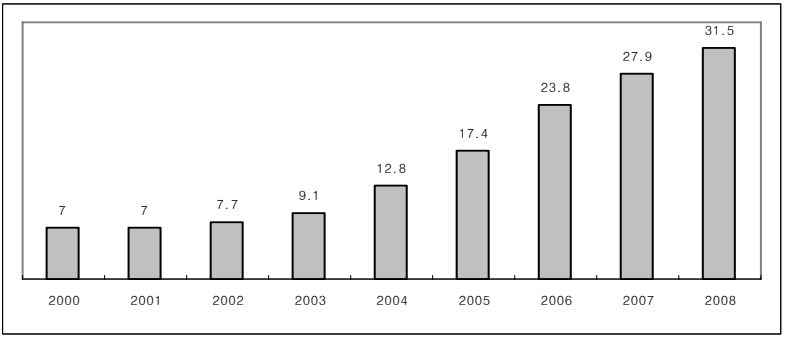
수(水)처리, 교육, 보건 및 의료, 도로 및 운송, 치안, 농업, 에너지 등이다.

최근 페루의 높은 수출 신장세는 총 수출의 70%를 상회하는 광물, 어분 등 1차산품의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수출증가에 기인했다. 중국경제 성장 및 세계경제 호황에 따른 원자재 수요 붐에 힘입어 페루의 교역조건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2000=100을 기준으로 페루의 교역조건지수는 2007년에 161.8로 증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페루의 수출은 2003~2008년 기간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수출규모도 2003년 91억 달러에서 2008년 31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Ⅱ-7 페루의 수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빠른 수출증가세 힘입어 2003년 이후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역흑자 규모는 2003년 8억 5,000만 달러에서 2006년 89억 달러, 2007년 83억 달러에 달했다. 무역흑자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도 큰 폭의 흑자세를 시현하였다. 경상수지는 2004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 2006년에는 28억 달러(GDP 대비 3.1%), 2007년에는 12억 달러(1.1%) 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대외수지 개선에 힘입어 2008년 4월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Fitch사는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국가 중 3번째로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 조정(BBB-)했다. Fitch사는 페루의 탄탄한 거시경제 기반과 고성장세 지속, 2007년 타결된 미·페루

FTA를 바탕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환경을 높이 평가했다.

2) 주요 경제정책

가) 주요 거시경제정책

페루 정부는 그간 경제불안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2003년 5월 재정책임·투명법(LRTF)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LRTF의 주요 내용은 비금융 공공부문(NFPS) 재정적자는 GDP의 1%를 넘지 않으며, 연간 실질 재정지출 증가율이 3%를 상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페루 정부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중기 거시경제계획(Marco Macroeconomico Multianual)을 수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페루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2년부터 물가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페루 중앙은행은 물가목표제에 따라 연간 물가목표를 2.5%로 정하고 상하 1%선에서 억제해오고 있다.

2006년 7월 출범한 알란 가르시아(Alan Garcia)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임 톨레도(Alejandro Toledo)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 기조를 커다란 수정 없이 계승했다. 대표적으로 가르시아 대

통령은 취임 초기 국내 산업진흥 및 시장개방 심화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자본재, 기계류, 산업용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약 3,000개 품목의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표 II-3 충격투자(Shock Inversion) 정책의 주요 목표

- 경제성장률 6~7%대 유지
- 부채의 효율적 관리 및 추가 외채 억제
- 2011년까지 총수출 중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비중을 25%에서 40%까지 높임
- 향후 5년 이내 광산 분야에 100억 달러,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에 70억 달러, 전기 분야에 23.5억 달러 투자 유치
- 현 정부 집권기간 중 공공부문 투자액을 GDP의 2.8%에서 4.5%까지 증액
- 공공부채를 2007년 7월까지 GDP의 32%, 2011년 7월까지 26%로 낮춤
- 연간 물가상승률을 2.5% 이하로 억제하며 집권기간 중 평균 1%대 유지
- 페루 재건정책의 하나로 일자리 35만 개 창출
- 행정절차 간소화

가르시아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골간은 충격투자 프로그램으로 대표된다. 충격투자 프로그램은 가르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취약 분야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 투자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나)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대응책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페루를 비롯한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은 각종 경기부양책을 실

시,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다. 주요 대응책은 법인세 감면, 개인소득세 인하, 수출입 관세 인하, 사회보장세 감면 등 조세정책과 인프라 투자, 주택건설, 중소기업·농업 지원, 전략분야 지원 등 정부지출로 대별된다.

중남미 지역에서 국별로 2008~2010년 기간 경기부양 규모는 페루가 GDP 대비 3.4%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기부양 규모는 페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표 II-4 중남미 자원부국의 주요 경제위기 대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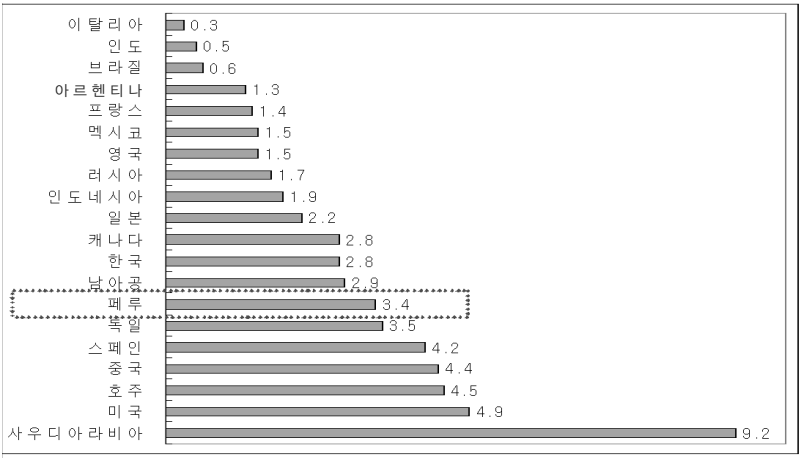
구 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조세정책	법인세 감면				T	X	X	T	X	
	개인소득세	X		X	T	X		T		
	대외교역세	X		T			X	X		
	상품서비스세			T						
	사회보장세	X						T		
	기타			X	X	X	T		T	
정부지출	인프라 투자	X	X	X	X	X	X	X	X	
	주택		X		T	X		X	X	
	중소기업·농업 지원			X	X	X		X	X	X
	전략 분야 지원		X	X	X				X	
	가계 직접 지원	T			T					
	기타	T		X		X		X		

주: X는 지속적 조치를 T는 한시적 조치를 의미함.
자료: ECLAC.

구체적으로 페루의 경기부양책은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경기부양 규모 중 인프라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

그림 II-8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 규모(2008~10년)

(단위: %, GDP 대비)



자료: 각국 중앙은행, Ministerios de Economia y Finanzas.

표 II-5 페루의 경기부양정책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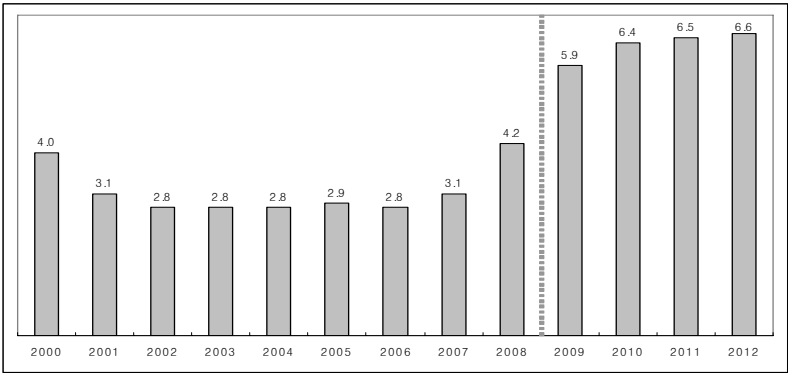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GDP 대비 비중
경제활동 지원	662	15.1	0.5
인프라 사업	2,864	65.2	2.2
사회보호	653	14.9	0.5
기타	216	4.9	0.2
총계	4,394	100.0	3.4

자료: BCRP, Proyeccion: MEF.

에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지원이 15.1% 비중으로 두 번째 큰 위치를 차지했으며 사회프로그램도 1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II-9 페루의 공공투자 추이 및 전망

(단위: %, GDP 대비)



자료: BCRP, Proyeccion: MEF.

막대한 경기부양정책에 따라 GDP 대비 공공투자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투자(GDP 대비)는 2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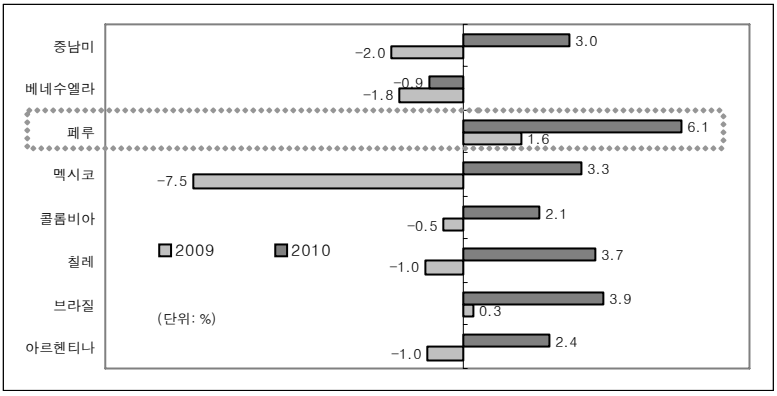
3) 경제성장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탄탄한 기초경제여

건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 중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페루 경제는 국가신용등급 투자적격 진입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미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대미 수출 증대 효과 광물에너지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투자 확대 등의 호재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페루 경제는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신중한 재정 운용과 통화정책에 힘입은 거시경제 안정은 계속해서 페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예전보다 둔화되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광물 수출확대, 이와 관련된 광산 및 건설 경기활성화도 중장기 페루의 경제성장을 안정적

그림 II-10 페루 경제성장 전망



자료: Global Insight.

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2009년 2월 발효된 미국과의 FTA는 페루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산업구조의 특징

가. 개황

페루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고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균형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서비스업[6]의 비중은 62.6%에 달하는 데 반해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15.5%에 불과하다. 1차산업(농목축업, 수산업, 광업 포함)의 비중은 13.9%에 달한다.

6) 여기서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관세 및 조세 등을 포함한다.

표 II-6 산업별 GDP 구성 추이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목축	8.9	8.9	9.0	8.9	8.4	8.2	8.3	7.9	7.7
농업	5.8	5.7	5.7	5.6	5.2	5.1	5.1	4.8	4.7
목축	2.6	2.6	2.5	2.5	2.5	2.5	2.5	2.4	2.3
수산업	0.6	0.5	0.5	0.4	0.6	0.5	0.5	0.5	0.5
광업	5.5	6.0	6.4	6.5	6.5	6.6	6.2	5.8	5.7
금속・비금속광물	4.6	5.1	5.4	5.6	5.6	5.6	5.2	4.9	4.8
석유	0.5	0.5	0.5	0.4	0.4	0.5	0.5	0.5	0.5
제조업	14.9	14.9	15.0	15.0	15.3	15.4	15.4	15.6	15.5
1차산품 가공	3.4	3.4	3.4	3.3	3.4	3.3	3.2	3.0	2.9
비1차산품 가공	11.4	11.6	11.7	11.6	11.9	12.1	12.1	12.6	12.5
전력수자원	2.1	2.1	2.1	2.1	2.1	2.1	2.1	2.1	2.0
건설	5.0	4.7	4.8	4.8	4.8	4.9	5.2	5.6	5.9
도소매업	14.3	14.4	14.1	13.9	14.1	14.0	14.5	14.6	15.0
기타서비스	39.2	38.9	38.5	38.7	38.5	38.4	38.1	38.3	38.0
관세 및 조세	9.7	9.6	9.5	9.6	9.7	9.9	9.7	9.5	9.6
GD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2000년대 들어 산업분야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건설업(평균 6.7%), 도소매업(6.4%), 제조업(6.4%), 광업(6.1%) 등이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농목축(4.4%)과 수산업(4.9%)은 GDP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표 Ⅱ-7 산업 분야별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1995~99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0~08 평균
농목축	6.2	6.6	0.6	6.0	3.1	−1.4	5.4	8.4	3.3	7.2	4.4
농업	7.4	6.0	−2.1	6.5	1.4	−1.8	4.2	8.4	2.0	7.4	3.6
목축	5.4	−7.9	0.8	3.8	3.0	3.0	6.9	8.2	5.3	7.0	3.3
수산업	−1.1	10.4	−11.1	6.1	−10.3	30.7	3.2	2.4	6.9	6.2	4.9
광업	7.0	2.4	9.9	12.0	5.5	5.3	8.4	1.4	2.7	7.6	6.1
금속·비금속광물	9.0	3.3	10.9	13.0	6.3	5.1	7.3	1.1	1.7	7.3	6.2
석유	−4.5	−6.5	−2.0	0.7	−4.3	7.1	23.4	5.7	6.5	10.3	4.5
제조업	1.6	5.8	0.7	5.7	3.6	7.4	7.5	7.5	10.8	8.7	6.4
1차산품 가공	1.6	9.1	−1.7	4.8	3.2	8.0	3.9	4.1	0.7	7.6	4.4
非1차산품 가공	1.8	4.9	1.4	5.9	3.7	7.2	8.5	8.5	13.0	8.9	6.9
전력수자원	3.1	3.2	1.6	5.5	3.7	4.5	5.6	6.9	8.5	7.7	5.2
건설	5.6	−6.5	−6.5	7.7	4.5	4.7	8.4	14.8	16.6	16.5	6.7
도소매업	4.0	3.9	0.9	3.3	2.4	6.2	6.2	11.7	9.7	13.0	6.4
기타서비스	3.8	2.0	−0.5	4.0	4.7	4.4	6.4	7.0	9.6	8.9	5.2
관세 및 조세	3.6	3.0	−0.5	4.0	5.2	6.4	8.5	6.3	6.4	11.1	5.6
GDP	3.6	3.0	0.2	5.0	4.0	5.0	6.8	7.7	8.9	9.8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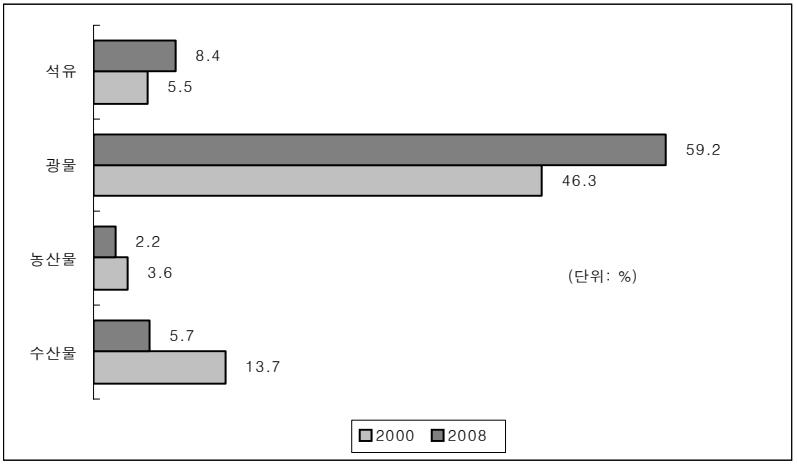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페루 산업구조의 특성은 무역구조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상품별로 페루의 수출은 1차산품에 집중돼 있다. 그 중

에서도 광물에 대한 편중도가 가장 높다. 총 수출에서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6.3%에서 2008년에는 59.2%로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석유의 수출 비중 증가세(5.5%→8.4%)가 두드러졌다. 그에 반해 농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였다.

그림 II-11 페루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페루의 품목별 수입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편중되어 있다. 이들 2개 제품의 비중이 2008년 현재 83%에 달했다. 그에 반해, 소비재의 비중은 15.9%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재의

비중은 51%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간재 중에서도 공업용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9년간(2000~2008년) 소비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자본재와 중간재의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표 II-8 페루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		200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소비재	1 494	20.3	4 527	15.9
비내구성	888	12.1	2 335	8.2
내구성	606	8.2	2 192	7.7
2. 중간재	3 611	49.1	14 553	51.2
연료, 윤환율	1 083	14.7	5 215	18.3
농업용 원부자재	212	2.9	881	3.1
공업용 원부자재	2 315	31.5	8 457	29.7
3. 자본재	2 114	28.7	9 239	32.5
건설자재	213	2.9	1 305	4.6
농업용	30	0.4	91	0.3
공업용 원부자재	1 430	19.4	5 770	20.3
수송기계	441	6.0	2 073	7.3
4. 기타	139	1.9	120	0.4
5. 총 수입	7 358	100.0	28 439	100.0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지역별로 페루의 수출입은 미주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미주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51%, 수입의존도는 63%에 달했다. 미주지역 중에서 수출은 NAFTA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수입은 NAFTA, CAN, MERCOSUR 등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아시아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21%로 수출과 수입이 균형 있게 나타냈다. 그에 반해 EU를 포함한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는 각각 27%, 13%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II-9 페루의 지역별 수출입 추이(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주(America)	14,278	45.6	15,719	56.7
NAFTA	8,043	25.7	6,696	24.1
CAN	1,564	5.0	3,173	11.4
MERCOSUR	1,064	3.4	3,903	14.1
아프리카	171	0.5	929	3.4
아시아	7,537	24.1	7,249	26.1
유럽	9,029	28.9	3,722	13.4
EU	5,530	17.7	3,380	12.2
오세아니아	97	0.3	106	0.4
총계	31,288	100.0	27,726	100.0

자료: 페루 관세청(SUNAT).

페루의 최대 수출입 상대국은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수출비중은 18.5%에 달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11.9%)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세 번째 위치(10.9%)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으로서 미국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위상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다.

표 II-10 페루의 10대 수출입 상대국(200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5,795	18.5	1	미국	5,204	18.8
2	중국	3,735	11.9	2	중국	3,715	13.4
3	스위스	3,410	10.9	3	브라질	2,272	8.2
4	캐나다	1,950	6.2	4	에콰도르	1,735	6.3
5	일본	1,860	5.9	5	아르헨티나	1,381	5.0
6	칠레	1,841	5.9	6	콜롬비아	1,210	4.4
7	베네수엘라	1,079	3.5	7	일본	1,140	4.1
8	독일	1,028	3.3	8	칠레	1,123	4.0
9	스페인	1,024	3.3	9	멕시코	1,107	4.0
10	이탈리아	927	3.0	10	독일	807	2.9
–	소계	22,649	72.4	–	소계	19,693	71.0
15	한국	552	1.8	12	한국	713	2.6

자료: 페루 관세청(SUNAT).

2008년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총수입대비 비중은 18.8%에 달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은 13.4%에 달해 두 번째 위치를 점했다. 수출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입에서도 중국의 위상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주요 산업 현황[7)]

1) 농업

2008년 기준으로 농업(목축업 및 수산업 포함)은 GDP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는 기후가 다양해 곡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체 국토 면적의 1%인 130만 헥타르만이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페루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농토 보유 상한선 확대 및 농토 매매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안데스산맥의 동부지역과 고지대 밀림지역은 농산물과 고품질의 차 및 커피 생산에 적합한 곳이다. 코코아도 생산되지만

7) 여기서 주요 산업은 뒤의 장에서 다루어질 광업・에너지산업, IT산업, 수산업 등은 제외시켰다.

수송인프라가 열악하고 빈번한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코카(마약) 재배로 돌아섰다. 이 지역에서 코카 재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에서 수요 급증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 결과 페루는 현재 콜롬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코카를 생산하고 있다. 역대 페루 정부는 수출용 아스파라가스 및 고급 커피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코카 재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페루의 농산물 수출은 양호한 기후와 미국으로부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세는 특히 미국이 2002년부터 페루에 제공해오고 있는 일종의 무역특혜법인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에 힘입은 바 컸다. 대미(對美) 농산물 수출품 중에서도 아스파라가스 및 아보카도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농산물 수출 확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내륙의 고지대와 항구를 연결하는 인프라 개발이다.

2) 임업

페루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삼림면적을 갖고 있다. 페루의

삼림면적은 6,520만 헥타르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표 II-11 페루 농축산물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2002	2004	2006	2008
쌀	2,124	1,848	2,360	2,783
옥수수	1,290	1,201	249	1,229
밀	186	171	191	206
바나나	1,570	1,663	1,767	1,791
양파	458	515	576	639
단옥수수	392	376	361	375
아스파라가스	181	188	242	313
면화	127	188	213	168
커피	169	225	256	264
사탕수수	8,419	6,946	7,251	9,355
콩	63	59	83	86
감자	3,299	3,006	3,224	3,589
유카	887	975	1,103	1,156
가금류	1,092	1,063	1,255	1,067
돼지	149	131	144	154
쇠고기	278	287	300	320
달걀	200	175	182	267
밀크	1,194	1,269	1,330	1,704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2004년부터 삼림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삼림 수출규모는 2억 2,300만 달러로 2000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멕시코(전체 수출의 33%), 미국(32%), 중국(19%) 등이다.

표 II-12 페루의 삼림면적의 세계 순위

순위	국가	면적(백만 헥타르)
1	러시아	851.4
2	브라질	543.9
3	캐나다	244.6
4	미국	226.0
5	중국	163.5
6	호주	154.5
7	콩고	135.2
8	인도네시아	105.0
9	앙골라	69.8
10	페루	65.2
11	인도	64.1
12	수단	61.6
13	멕시코	55.2
14	볼리비아	53.1
15	콜롬비아	49.6

자료: Operational Exporting Plan, Maximize(2004).

그림 II-12 페루의 삼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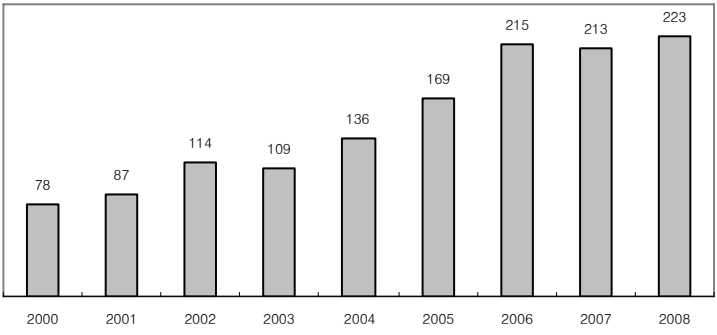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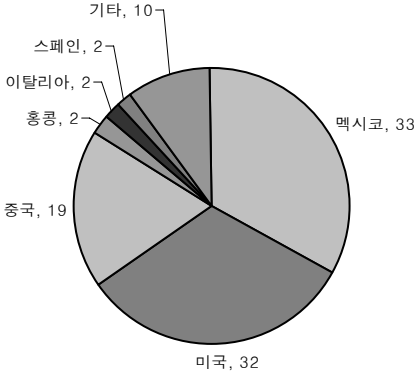


그림 II-13 주요 삼림 수출대상국 비중(2008년)

(단위: %)



자료: ADEX Datatrade.

3) 제조업

1990년대 무역자유화 이후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 밀려 페루의 제조업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2000~08년 기간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15% 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20%는 식품, 어분 및 광산물 가공 등 1차산품 가공산업이다. 나머지 80%는 섬유, 보석 등 비(非)1차산품 가공산업이다. 2005~2008년 기간 비(非)1차산품 가공산업이 1차산품 가공산업의 성장률을 앞질렀다. 제조업 생산은 2004년부터 강한 성장세로 돌아서 연평균 7%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오고 있다.

어분 생산은 페루의 중요한 제조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남획을 막기 위해 페루 정부는 정기적인 어로금지 조치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다. 어분산업은 엘니뇨현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2003년 장기간의 어로금지 조치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던 어분 생산은 2004년부터 점차 증가해오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로부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어분 가격이 급등했다.

페루에서 식음료 산업은 Alicorp사와 Gloria사가 양분하고 있다. Alicorp사는 국수와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면화 및 섬유 생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Gloria사는 낙농제품에 특화되어 있

으며 과자류, 비스킷 및 의약품 생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음료산업의 선두주자는 Inca Kola로 1999년 이후 미국의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에 인수되었다. 맥주산업은 다국적 업체인 벨기에의 InBev와 남아공의 SABMiller가 양분하고 있다.

페루의 섬유·의류산업은 섬유원료에서부터 최종제품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페루는 풍부한 섬유원료를 보유,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주요 섬유재료는 페루 북부의 해안계곡에서 재배되는 탕기스(tanguis)

표 II-13 제조업 생산 추이

(단위: 1994=100)

구분		2002	2004	2006	2008
1차 산품 가공	설탕	170.8	137.9	148.2	175.3
	육가공	146.6	160.4	179.9	192.1
	어분 및 어유	70.4	77.7	53.0	60.4
	캔 및 냉동수산	115.0	166.3	237.6	355.4
	비철금속	132.1	174.0	173.7	169.7
	석유정제	103.9	111.7	127.1	139.6
기타 제조업	식음료, 담배	130.6	136.5	159.1	198.5
	섬유 및 가죽	101.9	126.1	125.0	125.3
	제지	171.4	206.4	254.4	361.2
	화학·고무·플라스틱	132.7	144.1	175.9	210.5
	비금속광물	148.0	173.5	220.9	309.1
	철강	143.8	179.0	239.4	279.8
	금속제품, 기계·장비	99.0	104.5	135.4	189.9

자료: 페루 중앙은행(BCRP).

와 피마 (pima) 면화, 페루 남부 산악지대에서 자라는 야마, 알파카, 비쿠냐의 양모(wool) 등을 들 수 있다. 피마 면화로 만든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탕기스 면화로 만든 스포츠웨어 제품도 인기가 높다. 주요 수출대상국(2008년 기준)은 미국(총수출의 40%), 베네수엘라(32%), 콜롬비아(3%), 칠레(3%), 이탈리아(2%) 순이다.

4) 서비스업

가) 은행산업

페루 은행 시스템은 12개의 상업은행과 3개의 국영은행, 여러 개의 지방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다. 국영은행은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 BCRP), 국영저축은행(Banco de la Nacion), 국영개발은행(Corporacion financiera de Desarrollo, Cofide)으로 구성된다. 상업은행과 5개의 파이낸스기업, 7개의 리스회사, 5개의 민간연기금사 등은 은행・보험・연기금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은행산업은 1990년대 중반 경제회복과 은행산업 규제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은행산업 규제완화 이후 외국계 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스페인과 미국계 은행, 중남미 국

가들과 페루계 합작은행들이 은행산업에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은행부문의 안정과 공고화에 크게 기여했다. 보다 최근에는 활발한 인수·합병 및 청산으로 은행 수는 1998년 말 26개에서 2006년 말에는 12개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페루 전역으로 은행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은행지점 수는 2005년 말 875개에서 2006년 말에는 935개로 증가했다. 2006년 10월에는 영국계 HSBC은행이 HSBC Bank Peru SA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2006년 말 현재 3개의 민간 대형은행이 전체 상업여신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페루계 은행인 Banco de Credito del Peru(BCP)가 전체 여신의 31%, 스페인계 은행인 BBVA Banco Continental가 27%, 캐나다계 은행인 Scotiabank가 16%를 각각 차지한다.

1998년 발생한 신흥시장 금융위기로 페루 은행산업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1999년 중반 무수익여신(NPL)은 전체 은행여신의 11%에 달했다. 이후 은행산업은 보수적인 여신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들어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2007년 12월 말 현재 NPL은 전체 은행여신의 2.9%로 하락했다.

나) 증권업

리마주식거래소(BVL)는 페루 유일의 주식거래시장이다. 1999

~2001년 기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크게 하락했던 리마종합주가지수(IGBVL)는 광산기업 및 통신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리마주식거래소의 시가총액은 694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시가총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 379억 달러에 그쳤다. 2008년 현재 페루의 상장기업 수는 244개로 콜롬비아(89개), 칠레(238개)를 앞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GDP 대비 주가총액은 브라질 및 칠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림 II-14 중남미 상장기업 수 비교(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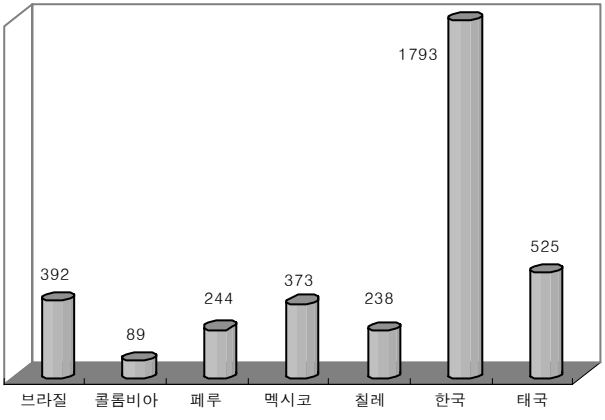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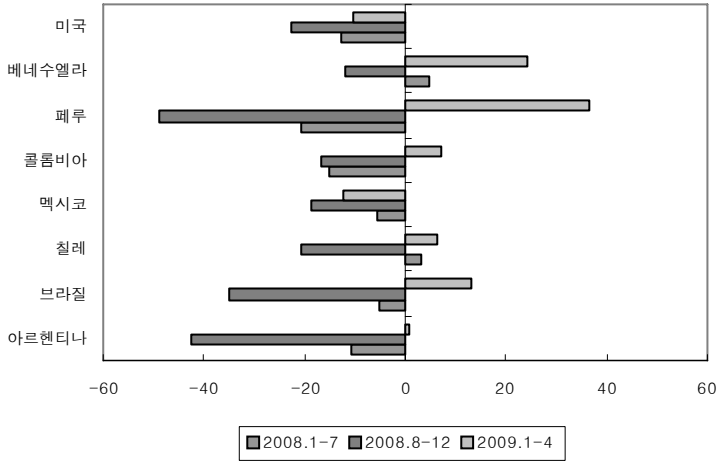


그림 II-15 중남미 국별 주가 변동 비교

(단위: %)



자료: Ministry of External Trade and Tourism.

다) 관광산업

관광산업은 페루 경제의 대표적인 산업 중의 하나로 현재 GDP 대비 비중은 7.7%이며 고용인원은 전체 고용인구의 약 8%인 62만 5,000명에 달한다. 2001년 9.11 사태 이후 주춤했던 관광산업은 2002년 이후 페루의 국제 이미지 개선 등에 힘입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2008년 페루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2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195만 명에 이르렀다. 관광산업은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외화가득산업으로 그 규모는 2008년

에 24억 달러에 달했다.

페루는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호텔 등 인프라 부족이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호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에 있었는데, 1996~2003년 기간에만 3억 4,500만 달러가 투자되어 25개의 4성급 및 5성급 호텔이 설립되었다.

페루 정부는 국가전략육성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선정하고 관광청(PromPeru) 등을 설립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오고 있다. 200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출국세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II-16 페루의 관광객 유입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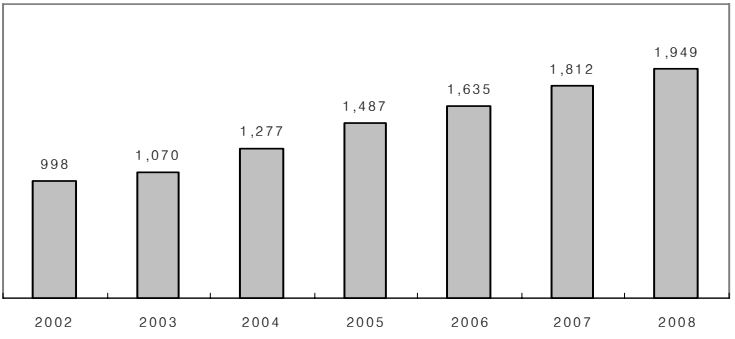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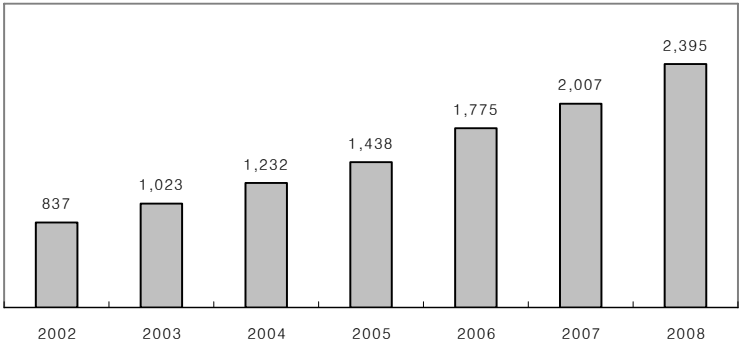


그림 II-17 페루의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가득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inistry of External Trade and Tourism.

3

주요 산업정책

가. 최근 산업정책

페루에는 개별 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있으나 전체 산업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이며 포괄적인 산업정책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포괄적인 산업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PNCTI)을 중심으로 페루의 산업정책을 설명하도록 한다.

페루에서 본격적인 산업기술의 발전은 198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YTEC: Consejo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ia)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1990년대까지 페루에서 산업기술

의 발전은 전반적인 관심 및 예산부족 등으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구조조정 정책과 후지모리 독재정권의 출현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생산 및 활동 여건이 크게 약화되었다. 외국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국내기업들의 존립기반마저 크게 약화되었다. 적극적인 민영화정책에 따라 국영기업을 매입해 페루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페루 자체의 R&D 능력 개선에는 관심이 없었다.

21세기 들어 극심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페루는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페루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6년 1월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PNCTI 2006~2021)을 발표했다. 페루 정부는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PNCTI)과 국가경쟁력계획(Plan Nacional de Competitividad), 지방정부계획(Planes de los Gobiernos Regionales), 사회개발 및 환경보존계획 등과 같은 전략적 계획과의 연계를 의무화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PNCTI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PNCTI의 장기(2021년) 비전은 지식기반경제 건설을 위한 강력하고 공고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PNCTI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의 기여 등으로 대별된다.

그림 II-18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2006~2021

2021 비전	지식기반경제 건설을 위한 강력하고 공고한 국가과학기술혁신 체계 구축
⇩	
목표	경쟁력 강화, 천연자원의 합리적 사용,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
⇩	
전략 및 실천 방향 2021 비전	1) 혁신기술개발 및 이전, 2) 우선순위 분야 과학기술 연구 강화, 3) 과학기술혁신 인적능력 개선, 4) 과학기술혁신 제도 강화
⇩	
주요 프로그램	과학기술혁신 국가프로그램, 과학기술혁신 지역프로그램, 과학기술혁신 특별프로그램

자료: 이상현・권기수(2008).

PNCTI에서 페루 정부는 2021년까지 달성할 8개의 중장기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기술경쟁력 순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혁신기업의 수를 적어도 연평균 10%씩 증대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재화 및 서비스 수출에서 중고(中高)기술제품의 비중을 2015년에 10%, 2021년에 15%로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는 R&D 투자(GDP 대비)를 적어도 2015년에는 0.5%, 2021년에는 0.7%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섯째

는 기업과 연구센터 간 전략적 제휴 건수를 2015년 3배, 2021년 4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석사학위급 이상 연구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과학기술논문 생산 건수를 2015년 3.8건(10만 명당), 2021년 5.2건으로 늘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국내 발명자 수를 2015년 1.0명(10만 명당), 2021년 1.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표 II-14 2021년 달성 구체 목표

목표	2021년 달성 목표
기술지수	– 세계경제포럼(WEF)의 기술경쟁력 순위 상향 조정
혁신기업 수	– 연평균 10% 증가
총 수출대비 중고기술제품 비중	– 2015년 10%, 2021년 15% ※ 2001년 2.9%
R&D 투자비중(GDP 대비)	– 2015년 0.5%, 2021년 0.7% ※ 2005년 0.1%
연구소와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수	– 2015년 3배, 2021년 5배 확대
대학원 졸업 후 과학기술분야 전담 고용 인력 수	– 2015년 3배, 2021년 5배 확대
연간 과학기술논문 생산 수 (10만 명당)	– 2015년 3.8건, 2021년 5.2건 – 논문 수: 2015년 1,200건, 2021년 1,800건 ※ 최근 5년간 300건
국내 발명지 수 (10만 명당)	– 2015년 1.0명, 2021년 1.5명 ※ 1978~2002년 0.7~0.1명

자료: 이상현・권기수(2008).

페루 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력 △비교우위 △유리한 제도적 여건 △전략적 중요성 등 4가지 선정기준에 근거해 크게 생산부문, 사회·환경부문, 지식부문 등 3개 분야를 우선순위 육성분야로 선정했다. 3개 우선순위 분야는 다시 세부부문으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도 생산부문의 경우 농목축 및 농가공업, 수산 및 양식업, 광물 및 금속, 에너지(천연가스 기술 및 바이오연료), 통신부문이 우선순위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표 II-15 페루의 산업기술 우선순위 육성 부문

부문	세부 부문
생산부문	– 농목축 및 농가공산업 – 수산업 및 양식업 – 광물 및 금속 – 에너지(천연가스 기술, 바이오연료) – 통신
사회 및 환경부문	– 보건 – 교육 – 환경 – 주택 및 위생
지식부문	– 생명과학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 소재과학기술 – ICT – 환경과학기술 – 기초과학 및 사회과학

자료: 이상현·권기수(2008).

나. 산업정책과 대외개방

1) 대외개방정책 기조

오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의 실패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페루는 1990년대부터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페루 정부의 과감한 무역자유화 정책은 무엇보다도 관세인하에서 목격된다. 1990년 66%에 달했던 수입관세는 1990년 12월 26%로 급감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인하, 2009년 5월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5.0%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16 페루의 관세율 현황(2009년 5월)

관세율 (종가세 및 추가관세)	해당품목	
	품목 수	비중(%)
0%	3,952	53.7
9%	2,616	35.5
17%	792	10.8
총계	7,360	100.0
단순평균		5.0
표준편차		7.7

자료: MINCENTUR/OGEE.

페루는 쌍무간, 지역간 경제통합은 물론 다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 페루는 1951년 GATT의 체약국이 되었으며 이후 UR 협상에도 적극 참여, WTO 출범의 원년 회원국이 되었다. 페루는 또한 UR 협정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페루는 2001년 4월 1일부터 100% 수입물품에 대해 WTO 세관평가협정(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을 적용해오고 있다.

페루는 FTA와 관련, 시장진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계시장을 1) 선진국 전략시장, 2) 고성장 개발도상국, 3) 광역시장, 4) 기자재 공급 광역시장 등 네 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페루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시장은 선진국 전략시장으로 여기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EU,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EFTA 등이 포함된다.

2) 대중남미 FTA 정책

페루는 1960년대부터 인접국들과 경제통합체를 결성했다. 페루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로 구성된 소지역형태의 경제통합체인 안데스공동체(CAN)의 일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1969년 창설된 안데스공동체(당시 안데스그룹)는 1980년대까지

회원국의 관심 저조로 발전이 지체되었으나 1990년대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다. 현재 불완전한 관세동맹 단계인 안데스공동체는 1996년 유럽공동체의 모델을 따라 종전의 경제적 차원의 통합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합도 아울러 추진해오고 있다. 안데스공동체의 창설 멤버인 페루는 관세인하 일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1992년 일시적으로 경제통합체에서 탈퇴했으나 1997년 7월 복귀했다. 페루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원유 및 연료의 관세를 철폐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산품의 관세를 철폐, CAN 회원국들과 포괄적 형태의 FTA를 체결했다.

페루는 인접 국가인 칠레와 1998년 상품에만 국한된 FTA를 체결한데 이어 2006년 8월에는 이를 심화시켜 포괄적 FTA를 체결했다. 페루는 또한 안데스공동체(CAN)의 일원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남미공동시장(MERCOSUR)[8]과 FTA 협상을 추진, 안데스공동체 회원국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2005년 11월 MERCOSUR와 FTA를 체결했다.[9]

8)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관세동맹 수준의 경제통합체.
9) 양자간 FTA는 2005년 12월 발효되었다.

표 Ⅱ-17 페루의 주요 무역협정 체결 현황

연도	주요 협정 내용
1969	– 안데스공동체(CAN) 설립
1990	– 일방적 무역자유화 실시 – EU와 일반특혜관세협정(GSP) 체결
1992	– 일시적으로 안데스공동체 탈퇴
1993	– 미국의 안데스무역특혜법(ATPA) 제정
1994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 개시
1995	– WTO 가입
1997	– 안데스공동체(CAN) 복귀
1998	– APEC 가입 – FTAA 공식 협상 개시 – 칠레와 경제보완협정(ACE No 38) 체결
2002	– 미국의 안데스무역특혜법(ATPDEA) 확대·개정
2004	– 미국과 FTA 협상 추진
2005	– FTAA 협상 중단 – MERCOSUR와 FTA 체결(11.19) – 태국과 FTA 체결(11.19)
2006	– 미국과 FTA 체결(4.12) – 칠레와 FTA 체결(8.22)
2007	– 싱가포르와 FTA 협상 종료
2008	– 싱가포르와 FTA 체결(5.29) – 캐나다와 FTA 체결(5.29)
2009	– 중국과 FTA 체결(4.28)
협상 중	– EFTA – CAN–EU Association Agreement – 한국

3) 대미(對美) FTA 정책

페루는 미국과 FTA 체결 이전부터 특혜무역제도의 수혜를 받아왔다. 미국 정부는 1991년[10]부터 주요 마약생산국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지역 국가들의 마약퇴치 노력을 지원키 위해 무역특혜제도의 일종인 안데스무역특혜법(ATPA)을 제정하여 운영해왔다. 미국은 2002년 8월 종전의 안데스무역특혜법(Andean Trade Preference Act, 이하 ATPA)을 안데스무역촉진・마약퇴치법(Andean Trade Preferences and Drug Eradication Act, 이하 ATPDEA)으로 연장・확대하였다. ATPDEA는 ATPA 수혜국들이 요구해온 무역특혜법의 시한연장 및 이전, ATPA에서 배제되었던 섬유・의류를 포함한 신규품목에 대한 특혜부여 등 대부분의 요구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초 수혜국들이 주장해온 베네수엘라의 신규 수혜국 포함은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외교관계 악화로 실현되지 못했다. ATPDEA의 제정으로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 수혜국산 수출품의 90% 이상이 대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페루는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주도해온 미주자유무

10) ATPA는 1991년 12월 4일 발효되기는 했으나 페루는 회원국 중 가장 늦은 1993년 8월부터 수혜 대상이 되었다.

역지대(FTAA) 협상에도 안데스공동체(CAN)의 일원으로서 적극 참여해왔다. 미주 3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FTAA 협상은 2004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다가 2005년 협상국 간 협상쟁점을 둘러싼 대립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FTAA 협상에서 페루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농업시장 개방을 적극 주장해왔으나, 미국으로부터 각종 무역특혜를 받고 있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다.

FTAA 협상 결렬로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각개 약진 형식으로 FTA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중미·카리브 지역과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무역특혜법의 혜택을 받아온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이 미국의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페루는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더불어 2004년 5월 18일부터 미국과 FTA 협상을 개시했다. 페루는 미국과 13번의 협상을 거쳐 2005년 12월 7일 협상을 완료하고 2006년 4월 12일 미·페루 무역증진협정(U.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PTPA)이라는 이름 아래 FTA를 체결하였다. 2007년 6월 25일 미국과 페루는 노동, 환경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4) 대아시아 FTA 정책

페루는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일찍이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 마침내 1998년 APEC에 가입했다. 페루의 APEC 가입은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이다.

페루는 아시아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2002년부터 태국과 FTA 협상을 개시, 2006년 11월 FTA를 체결했다. 태국과의 FTA 협상은 2003년 10월 경제연합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towards an Economic Association)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 2005년 11월 상품교역자유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의정서를 체결하고, 2006년 11월 추가 의정서를 체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페루는 또한 싱가포르와 2007년 FTA 협상을 완료하고 2008년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과는 2009년 4월 FTA를 체결했다.

다.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현황

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국내저축 수준이 낮아 만성적인 투자재원 부족에 시달려온 페

루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FDI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에 높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목적으로 페루 정부는 1990년대 초 사회불안의 요인이었던 좌익 게릴라 세력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 경제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추진,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페루 정부의 노력의 결과,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외국인 투자환경이 양호한 국가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다. 페루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기본적으로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며 자유경쟁체제 확보와 더불어 모든 경제 분야에 대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페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배당금, 투자자본, 특허료, 이윤 등에 대해 사전인가 없이 자유로운 송금을 허용했으며, 조세안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특히 페루 정부는 전통적으로 대(對)페루 외국인투자 기피의 최대 주범이었던 투자제도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페루 정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투자보장기구인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ICSID(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등에 가입했다. 또한 약 20개국 이상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향후 15년간 수용위험으로부터 외국인투자를 보호받게 했다. 페루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세제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조세안정협약을 체결,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세율 변경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다. 조세안정협약의 체결조건은 먼저 2년간 최소 200만 달러를 투자, 20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3년간 수출액이 200만 달러를 상회할 경우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이다.

또한 페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는 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정비했다. 먼저 민간투자진흥위원회(COPRI)를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계획 및 실행을 주관토록 했다. 또한 공공설비에 대한 민간투자진흥법(1991년 12월)을 도입, 도로, 교육, 수송 등 전통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온 공공설비나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허용했다. 양허기간은 전력부문이 최대 20~50년인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문은 60년이며 최소기간은 10~20년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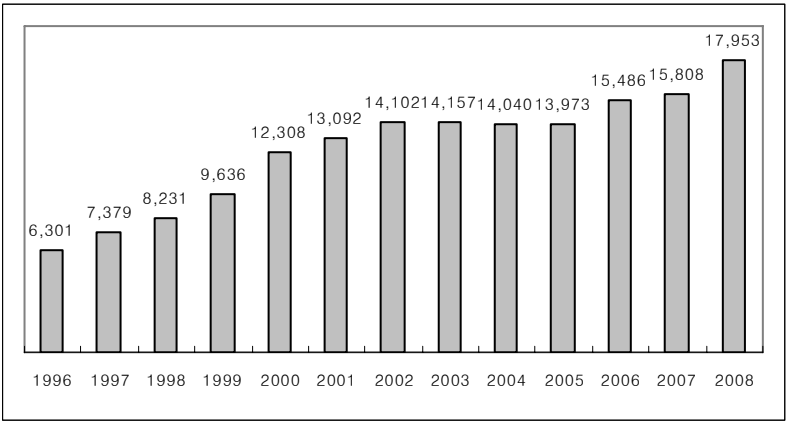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페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0년대 초반 페루 경제

의 안정적 성장과 외국인투자 개방에 힘입어 급증하기 시작, 연평균 10억 달러 대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초 FDI 유입은 페루의 정치적 혼란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내의 반감 확대로 추가적인 민영화 사업이 중단되면서 정체를 보였다. 페루 정부는 연평균 10억 달러의 투자유치를 위해 광산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외국인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II-19 페루의 FDI 유입 추이(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페루에 대한 FDI는 스페인과 영국이 양대 최대 투자국의 위치를 차지하는 등 EU 기업들의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18 국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2008년 누적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금액	비중
스페인	4,145	23.09
영국	3,478	19.37
미국	2,763	15.39
네덜란드	1,402	7.81
칠레	1,096	6.11
파나마	903	5.03
콜롬비아	731	4.07
멕시코	448	2.50
싱가포르	399	2.22
브라질	342	1.91
캐나다	323	1.80
스위스	275	1.53
프랑스	201	1.12
이탈리아	195	1.09
우루과이	180	1.00
일본	168	0.94
독일	162	0.90
기타	739	4.12
총계	17,953	100.00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2008년 누계 기준으로 스페인의 대(對)페루 FDI 비중(총 누적 FDI 대비)은 23%, 영국의 비중은 19%에 달했다. 그에 반해 EU와 대등한 무역상대국인 미국의 투자비중은 15%에 불과하다.

특히 대(對)페루 FDI에서 주목되는 점은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등 중남미 역내 국가들의 직접투자가 비교적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종별로는 국영통신사의 민영화 등에 힘입어 통신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21%, 2008년 누계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광업, 에너지, 금융업 순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페루의 광산·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개발 잠재력을 겨냥, 이들 부문에 대한 FDI가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광물·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에너지 10.7%, 광물 18.8%, 석유 1.4%)은 전체 FDI의 30.9%에 달한다.

표 II-19 업종별 외국인 직접투자(2008년까지 누적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업종	금액	비중
농업	44.4	0.25
소매업	720.4	4.01
통신	3,756.4	20.92
건설	161.4	0.90
에너지	2,363.9	13.17
금융	2,721.3	15.16
제조업	2,828.2	15.75
광물	3,520.5	19.61

표 II-19 계속

업종	금액	비중
수산	163.0	0.91
석유	355.9	1.98
서비스	442.0	2.46
양식업	1.2	0.01
수송	28.5.	1.59
관광	63.5	0.35
주택	525.8	2.93
총계	17,953.4	100.00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라. 산업발전 과제

전반적으로 페루의 산업발전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낮으며 산업구조도 1차산품 분야에 집중되는 등 취약하다. 여기서는 먼저 페루 산업발전의 과제를 산업기술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전통적으로 페루의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매우 미미하다. 2005년 현재 GDP 대비 R&D 비중은 0.1%로 1970년대에 비해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산업기술 관련 연구자의 수도 적고 그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국내외 특허나 과학논문 수의 부재

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과학기술계와 산업부문 간의 연계도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 게다가 이미 확보한 지식마저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이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기술 도입을 선호한다. 셋째, 기업들의 혁신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페루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수익의 0.06%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표 II-20 페루 산업기술정책의 주요 문제점

구분	문제점
기술혁신 및 기업경쟁력	– 생산부문에서 혁신활동 환경 열악(금융, 규제, 제도, 세제 측면) – 기업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 미미 – 도량형 및 품질인증 연구소에 대한 투자 부족 –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부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부족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제도 부족 – 과학기술분야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제생산시스템과의 연계 부족 –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분야에 대한 투자결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짐 – 기업간, 산학연 간 연계 부족 – 기초기술기업 설립에 대한 제도 부족
과학기술연구	– 국가 R&D 기관의 기술생산 및 이전 능력 부족 – 대학의 연구능력 부족 – 일반적으로 공공연구소 및 대학연구소의 연구 인프라·장비 불충분 – 과학기술연구자에 대한 승진, 노동조건 및 인센티브 제도 미흡 – 같은 대학 연구자 간 및 대학 연구자 간 혹은 연구센터 연구자 간 교류 미흡 – 지적재산권 및 농촌·원주민사회의 전통적 지식 보호 메카니즘의 사용 제한

표 II-20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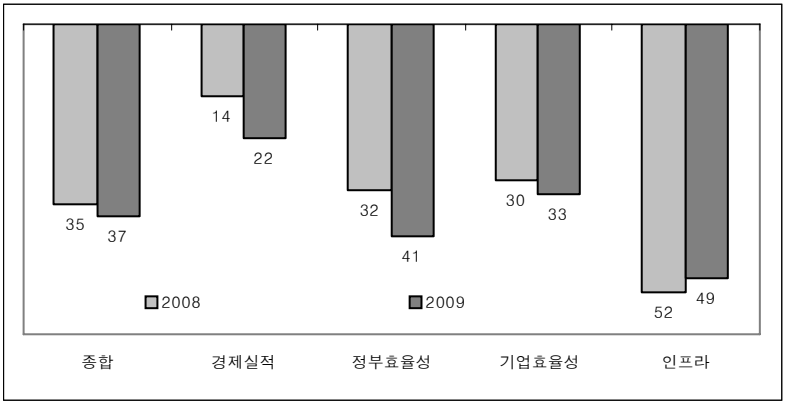
구분	문제점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능력	– 대학의 과학기술혁신 인력 육성의 질적인 측면 악화 – 과학기술혁신 관련 대학원 과정의 부족 – 생산부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인력 육성 – 대학과 기술전문학교에서 과학기술혁신 전공 인력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지원 메카니즘의 부족 – 연구원,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노동조건, 인센티브 부족 – 연구 인프라 및 장비 부족 – 연구 및 혁신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제도화	– 산학연 및 국제네트워크와의 연계 부족 – 과학기술혁신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국가발전전략과 연계 부족) – 과학기술혁신분야의 활동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적장치 부족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속성, 방향성 및 효율성 부족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리마 등 일부 지역 편중 – 과학기술혁신부문에 대한 민관의 투자 미미 및 자금조달 메카니즘의 부족 –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부족 –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발전의 사회에 대한 홍보 및 확산 미미

자료: 이상현・권기수(2008)

다음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통해 페루의 산업발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009년 기준으로 IMD가 평가하는 페루 국가경쟁력 순위는 전체 비교대상국 57개국 중 37위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실적이 22위를 기록,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페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효율성 순위도 33위를 기록, 정부 효율성이나 인프라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는 순위가 크게 낮아 페루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페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개혁과 인프라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림 II-20 페루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주: 2008년 총 55개국, 2009년 총 57개국.
자료: IMD(2009).

최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다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FDI 유입 확대로 전반적인 페루의 산업정책 추진 환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페루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 및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간

부재했던 중장기 산업기술육성정책(PNCTI)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산업발전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페루의 산업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단시일 내에 R&D 투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산업발전의 한계도 예상된다.

III

광업 · 에너지산업

1 / 산업개황

2 / 주요 육성정책

3 / 산업 현황 및 구조

4 / 진출 환경

5 /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6 / 향후 성장잠재력

1

산업개황

가. 광업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페루는 지질학적인 이점에 힘입어 무궁무진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 현재 비스무트와 텔루루 매장량은 세계 2위, 금・은・아연의 매장량은 세계 3위, 동・주석의 매장량은 세계 4위에 달한다.

광물 매장량에 걸맞게 생산량도 세계적이다. 2008년 기준으로 페루는 전 세계 은 생산 1위, 텔루루 생산 2위, 동・아연・텅스

그림 Ⅲ-1 페루의 광물 매장량 세계 순위(200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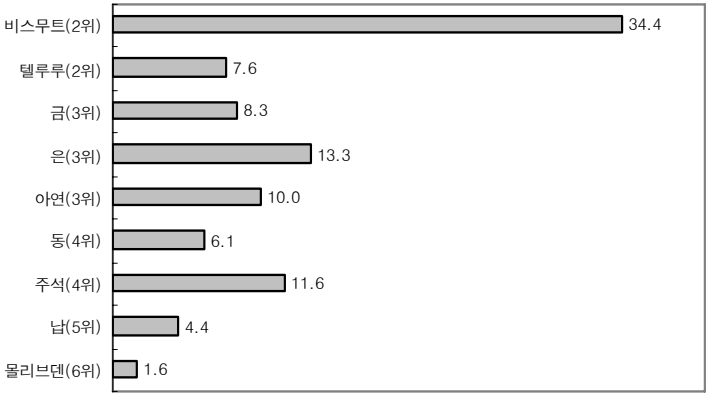


그림 Ⅲ-2 페루의 광물 매장량(2007년)

광종	매장량
동(천 톤)	30,000
금(톤)	3,500
아연(천 톤)	18,000
은(톤)	36,000
납(천 톤)	3,500
주석(톤)	710,000
몰리브덴(천 톤)	140
비스무트(톤)	11,000
텔루루(톤)	1,600

자료: USGS.

텐·비스무트 생산 3위, 납·몰리브덴 생산 4위, 금 생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II-1 페루의 광물 생산 순위(2008년)

광종	중남미	전 세계
동	2	3
금	1	5
아연	1	3
은	1	1
납	1	4
텅스텐	1	3
몰리브덴	2	4
비스무트	2	3
텔루르	1	2

자료: Ministry of Energy and Mining of Peru.

페루는 풍부한 지하자원, 고급 정보의 열람 용이,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비교적 잘 정비된 법 제도, 국내 시장에서 광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 구입 용이, 광물 원자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 광물개발 투자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페루의 광물·금속지질연구원(INGEMMET: Instituto Geologico Minero y Metalurgico)은 전국의 광물 분포를 엑스선 사진처럼 알

아볼 수 있는 상세한 지질학 지도를 제작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립광물양허·지적대장청(INACC: Instituto Nacional de Concesiones y Catastros Mineros)은 광업 관련 청원 등록을 위해 각종 편이(便易)를 제공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지질학 정보, 간편한 수속, 탐사에 관한 관심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양허된 광업활동 면적 중 90%가 개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페루의 광물개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양허된 광업활동 면적은 전국토의 13.8%인 1,700만 헥타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개발 중인 면적은 전체 양허 면적의 0.04%에 불과하다.[1)]

표 III-2 페루의 광물개발 및 탐사 면적

구분	면적(천 헥타르)	비중(%)
페루 전체 면적	128,000	100.00
자연 보호 면적	32,870	25.68
광업 활동 양허 면적	17,674.210	13.80
광물 개발 중인 면적	715.385	0.56
광물 탐사 중인 면적	857.678	0.67

자료: INGEMMET.

1) 현재 양허된 광업활동 면적 1,700만 헥타르, 총 40,094건의 광물개발권 중 1,295만 헥타르(30,981건)의 권리가 이양되었다. 그 밖에 414만 헥타르에 관련된 9,113건의 양허 신청이 수속 중에 있다.

최근 국제 광물가격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광산개발 활동이 활기를 띠며, 페루 경제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08년 현재 페루 총 GDP에서 차지하는 광업의 비중은 약 6%, 수출에서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달하고 있다.

나. 에너지산업

1) 석유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대표적인 산유국은 아니다. 2008년 기준으로 석유 매장규모는 중남미 산유국 중 7번째에 불과하다. British Petroleum사가 집계하는 전 세계 48개 석유매장국 중에서는 38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채년수는 25.5년으로 중남미 국가 중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높다. 현재의 생산량에 기초할 때 향후 25년 정도 채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매장규모는 크지 않으나 매장량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2008년 기간 페루의 연평균 석유매장 증가율은 1.8%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15번째로 높은 증가세다.

그림 Ⅲ-3 페루의 석유 매장 현황(2008년)

(단위: 십억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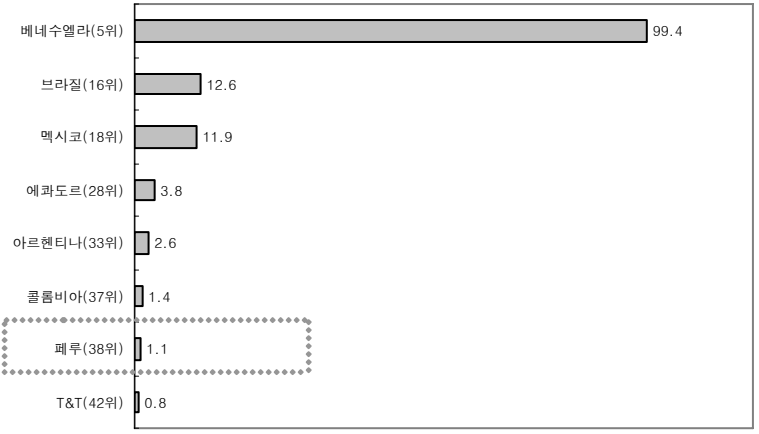


그림 Ⅲ-4 페루의 석유 가채연수(2008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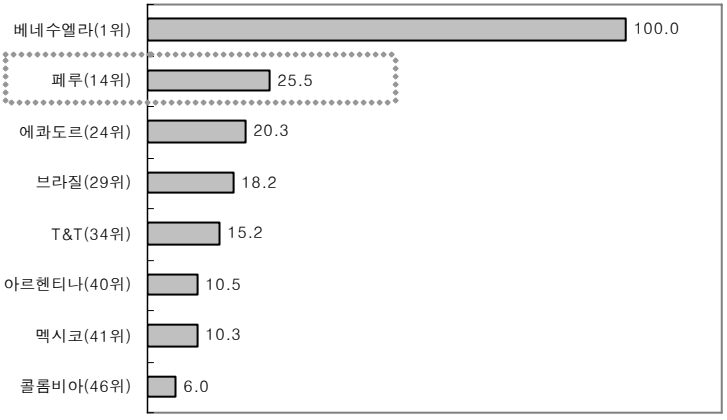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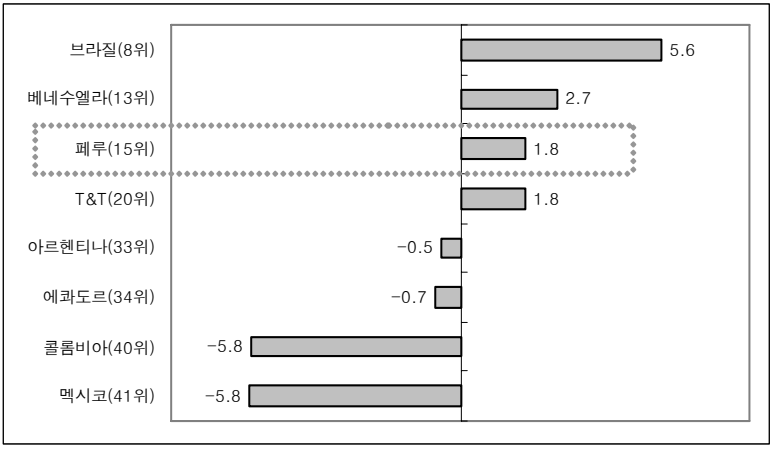


그림 Ⅲ-5 페루의 석유 매장 연평균 증가율(1998~2008년)

(단위: %)



자료: BP(2009.6).

2) 천연가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7번째로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3,600억 입방미터(m^3)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여섯 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41번째다. 2008년 현재 천연가스의 가채연수는 98.5년으로 전 세계에서는 11번째,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크다.

최근 10년 동안(1998~2008년) 대형 가스전 발견에 힘입어 매장량은 중남미 국가 중 볼리비아, 브라질 다음으로 높은 증가세

그림 Ⅲ-6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및 순위(2008년)

(단위: 1조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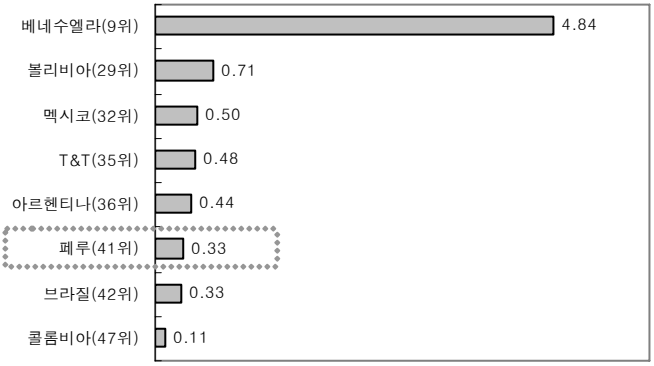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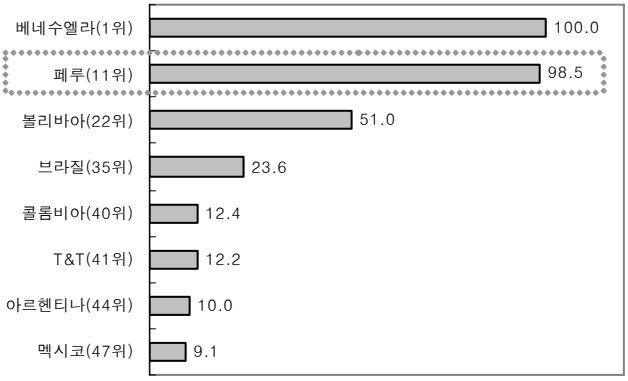


그림 Ⅲ-7 페루의 천연가스 가채연수(2008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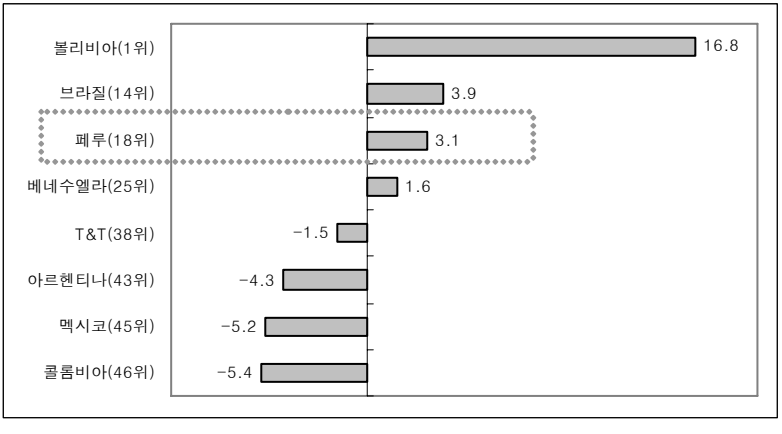


자료: BP(2009.6).

(연평균 3.1%)를 보였다. 2007년 10월 페루 에너지광업부 장관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카미세아(Camisea) 가스전은 8,500억 입방미터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페루 정부는 향후 30년간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50~60억 달러의 로열티와 조세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III-8 페루의 천연가스 매장 연평균 증가율(1998~2008년)

(단위: 년)



자료: BP(2009.6).

2

주요 육성정책

가. 광업

1) 광업정책 개요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광업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페루의 에너지 및 광업 관련 법률에는 법적 안정성, 경제활동의 자유, 투자 보장, 투자 장려와 같은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다. 페루 정부의 광업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근로자의 안전, 자연 보호, 인근 주민들 및 지역 문화 존중을 우선적으로 하는 풍토 조성
② 광물 변환 과정의 합리화
③ 광물 개발의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④ 투자 및 생산의 민간기업 주도
⑤ 정부의 역할: 양허자, 법 제정자, 장려자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페루 광업부문은 국가 독점이었다. 그러나 후지모리 정부(1990~2000)가 1991년부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축으로 한 일련의 구조개혁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하면서 광업부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었다.

페루 정부는 광업부문의 투자여건 개선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1991년 광업투자진흥법(Mining Investment Promotion Law: MIPL)을 제정한데 이어 1992년에는 일반광업법(General Mining Law)을 제정하여 광물 소유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현대적인 토지대장 관리를 시작했다. 또한 조세구조를 단순화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 간의 차별을 없앴으며, 환율 통제 정책도 철폐했다. 일반 광업법의 주요 내용은 ① 조세, 행정 안정성 보장, ② 해외 및 국내 판매에 상관없이 국제 시장가격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한 조세 감면, ③ 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인프라 구축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조세 감면, ④ 근로자 의료 경비 보장, ⑤ 이익, 배당금, 금융자산의 자유로운 송금과 외화 소지의 자유, ⑥ 상품의 자유로운 대내외교역, ⑦ 빠른 수속을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⑧ 다른 경제 분야와 비교하여 차별 없는 대우 등이다.

페루 정부는 또한 1993년 광업부문에 환경보호규정(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Mining Sector Regulation)을 도입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페루 정부의 광업 개혁으로 인해, 페루 광산 분야는 주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2~2004년 사이에 190억 달러의 민간투자가 광산 탐사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55억 달러가 신규 광산개발 및 기존 광산의 확장, 개선에 투자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페루의 광업정책은 개혁이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사전서약제 도입, 로열티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광산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2년 페루 정부는 소규모광산개발증진법(Formalization and Promotion of Small-Scale and Artisanal Mining Law)을 도입해 지속적인 소규모 광산개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2003년 12월 페루 정부는 Supreme Decree N° 042-2003-EM을 도입, 향후 광산개발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사전서약서(Sworn Declaration of Prior Commitment: SDPC)를 제출하도록 했다.

2004년 6월 페루 정부는 광산업에 대해 종가기준(ad-valorem)으로 1~3%의 로열티를 새롭게 도입했다. 새로운 로열티 규정에 따르면 6,000만 달러 미만의 매출 기업에는 1%, 6,000만 달러~1억 2,000만 달러 매출 기업에는 2%, 1억 2,0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기업에는 3%의 로열티가 부과된다.

한편 다국적 자원·에너지 기업들의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환경규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페루 정부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페루 정부는 2008년 광산개발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를 신설했다.

2) 최근 주요 광업규제 정책

가) 광해(鑛害)[2] 대책

최근 페루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조업 중인 광산 및 제련소

2) 여기서 광해란 광산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지반 침하, 오염수 유출 등 환경피해를 일컫는 말이다.

표 Ⅲ-3 페루의 주요 광업관련 법 현황

관련 법	주요 내용
광업 일반법 (1991)	– 광업부문에 대한 기본 법률로 여타 광업관련 법령 및 규정의 근거 – Public Mining Registry에 등록하여 복잡한 채굴권 습득 과정을 폐지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광산 발굴 및 개발에 참여케 함. – 모든 민간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도록 면허 절차를 간소화해 중남미 국가 중 개방적이며 유연성 있는 제도를 보유함.
광업부문 투자진흥 및 보장 규정 (1993.6.7)	– 광업 일반법 제9장 광업활동 투자진흥 및 보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광업투자 진흥법(법령 제708호)	–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여건 보장을 위한 투자보장 및 지원내용 규정
Supreme Decree N° 042-2003-EM	– 사전서약서(Prior Commitments) -Supreme Decree No. 042-2003-EM · 환경에 위배되지 않는 생산 활동 · 지역 기관, 정부 및 문화, 관습을 존중 · 지역 기관들과 지속적인 대화 및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광산개발 관련 정보제공 · 지역 근로자에게 적절한 기술 교육 기회 제공 · 광산개발 활동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해당지역에서 조달
로열티법 (2004)	–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수익금에 대한 1~3%의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규정 · 로열티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간에 배분,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쓰임. · 단, 2004년 이전 페루 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2015년에서 2025년 계약 만료 시까지 종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에 대한 환경적정화계획(PAA) 및 폐광(廢鑛)법을 도입했다. 페루 정부의 주요 광해대책은 다음과 같다.

(1) 휴폐(休廢) 광산에 대한 광해대책

페루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페루에서는 850개 지역이 광해문제에 직면해 있다. 광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는 체계적인 광해발생광산의 위험 규모 측정 및 광해대책 추진 광산의 우선순위 결정, 구체적 대책, 예산 등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다. 페루 정부는 2007년 7월 에너지광업부 내에 광업기술국을 새롭게 설립해 본격적인 광해대책 작업을 개시했다.

(2) 국가환경기금(FONAM)을 활용한 광해대책

국가환경기금(FONAM)은 약 530만 달러의 정부기금 및 300만 달러의 민간기금을 활용해 광해피해가 가장 심각한 카하마라카 지역에 대한 광해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이다.

(3) 구(舊) 국영광구(國營鑛區)에 대한 광해대책

페루 정부는 2006년 9월 국영공사 Activos Mineros을 설립해 Centromin 국영광구를 중심으로 환경복구 사업을 개시했다. 환경복구 사업 예산은 2010년까지 총 4,270만 달러에 달할 예정이다.

(4) 금의 불법채굴 규제 강화

페루 북부와 남부에서는 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불법채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안과 수은의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유아노동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위스 정부가 실시한 영세광업환경대책(GAMA)의 결과에 따르면 페루 Puno 지역에서만 불법적인 광업종사자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광해보안감시 강화(향후 환경부 이관 방향)

페루 정부는 2007년 1월 광해보안감독 기능을 종전 에너지광업부에서 에너지광업투자감독청(OSINERGMIN)으로 이관하고, Volcan 광산, Oroya 제련소 등에 대해 환경규제 위반을 이유로 벌금명령을 내렸다.

나) 최근 광업세제 논의 동향

페루에서는 국제금속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 로열티 징수 강화, 자발적 기부금(Aporte Voluntario) 및 잉여이익세(Sobreganacia) 도입 등 광물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익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가르시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 근거,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광산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금 출연을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

표 Ⅲ-4 자발적 기부금제도의 개요

목적	– 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영양 프로그램 – 초등교육 및 교육프로젝트 지원 – 건강개선 프로그램 – 지방공무원 연수
안건	– 기간: 5년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 지불기준은 금속가격의 하한 ・동 1.79달러/1b, 아연 0.778달러/1b, 금 537달러/1온스 등
운용	– 각 기업은 자발적으로 직접 운영 관리하는 신탁기금에 기부금 납부 – 연간 순이익의 3.75% 출연 – 로열티를 납부한 기업은 순이익의 1.25% 갹출 – 구체적인 용도는 광산회사, 지방자치체, 지역원주민 대표로 구성된 조정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신탁기금기관이 집행

자료: JOGMEC.

했다. 다행히 이 제도는 기업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2006년 12월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한편 2006년 6월 톨레도 정부 말기에 페루 의회에서는 안정화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들에게도 로열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광산에너지위원회가 위헌의 소지를 제기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결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좌파 성향의 UPP당이 잉여이익세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2006년 12월 광산에너지위원회는 법적 안정성 보장 및 투자 촉진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편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지역원주민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08년 4월 탐사 인허가에 환경 관련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에너지광업부 내의 조직 체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허가 심사가 크게 지연되며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광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무기한이었던 광구의 취득연수를 최대 20년으로 조정했다.

페루 정부가 이 같은 일련의 조치를 도입한 배경은 투기적 목적이 아닌 생산적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보존을 고려한 광산개발을 추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최근 광산개발지역에서 광산개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의 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페루 정부는 원활한 광업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페루 에너지광업부가 광산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합의와 환경법규의 준수이다.

나. 에너지산업

최근 페루의 에너지 관련 정책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표 III-5 최근 광업관련 조치의 주요 내용

조치	주요 내용
광구취득연수 제한	– 광구 취득 익년부터 기산해서 10년 만료시점까지 최저생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년부터 15년까지 광구 1ha당 350솔(약 120달러, 최저 생산액의 1/10)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최저생산 약속 불이행 증명이 가능할 경우 5년간 연장 가능(재연장 불가) – 종래 광업권을 취득해서 익년부터 기산해 20년째 시점에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도 최저생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업권 효력 상실 – 기존 취득 광업권에 대한 광구기간의 年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산정
탐광 허가에 관한 환경규정 개정	– 지질조사: 에너지광업부에 의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토지소유자의 허가 취득 의무화 <카테고리 1> – 환경영향신청서(DIA)를 에너지광업부에 제출할 경우 자동 승인. 단 우라늄 탐광과 광해발생지역의 탐사 등은 제외 <카테고리 2> – 에너지광업부에 환경영향조사개요보고서(EIAsd)를 제출, 지역원주민의 승인과 해당 주(州)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5일 이내에 신청서에 회답 통지. 회답이 없을 경우 신청자는 당국에 심사의 신속화를 촉구 – 신청자가 신청 기각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광업심의회에 재신청. 이 경우 광업심의회는 30일 이내에 심의, 결론 도출 – 당국은 신청자가 광업심의회에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중단

자료: JOGMEC.

첫째,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는 것이다. 둘째,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지역에 대한 전기보급을 촉진하는 것이다. 넷째,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사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것이다.

여기서 페루의 에너지 정책은 석유산업, 가스산업, 전력, 재생에너지 산업 등으로 대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석유산업 정책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콜롬비아와 더불어 자원산업에 대한 개방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3] 페루 정부는 외국석유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해오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2002년 1월 석유 및 광물탐사 촉진법을 제정하고, 2003년 10월에는 석유가스계약 로열티를 30%까지 삭감했다.

페루 국영석유회사(Perupetro)는 석유・가스 산업의 총괄적인

3) 석유산업 개방도(국내 석유생산 중 외국기업의 생산비중) 측면에서 볼 때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국가이다. 2007년 기준으로 페루 석유생산은 거의 100%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표 III-6 페루의 석유관련 주요 법령

관련 법령	주요 내용
탄화수소법 (Ley 26211)	– 1993년 제정 – 모든 계약은 Perupetro가 관장하고, 계약 서명은 에너지광업부와 재정경제부가 공동 서명한 후 대법원 승인 획득 · 자유로운 생산물 처분 가능 · 계약기간: 석유 30년, 가스 40년, 탐사기간 7년 · 제도적으로 세금의 안정성 보장(법인소득세 30%) · 분쟁 시 국제적 중재 가능 · 외화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 경쟁시장제도 도입 · 연료가격의 자율화
석유 및 가스 기본법 (Ley Organica de Hidrocarburos: 제26,221호)	– 목적: 석유가스 분야의 탐사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 – 주요 내용 · 자유경쟁: 자유경쟁 및 경제활동 개방을 통한 자원개발 탐사 장려 · 세제 안정성: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세제 및 외환의 안정성 보장 · 계약의 안정성: △에너지광업부가 승인한 양허계약/서비스계약 등에 따라 자원 탐사 개발 행위 수행 △승인 후 서명된 계약은 쌍방 계약당사자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헌법 62조에서 규정 => 법의 안정성 부여(계약 개전을 대통령령에 의한 승인 절차 필요)

자료: 외교통상부 중남미자원협력센터.

규정 제정, 탐사·개발 허가, 페루 내 석유탐사 및 생산기업들과 계약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중남미 다른 국영석유회사와 달리 페루 국영석유회사는 상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즉 직접 석유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인 Petroperu

가 정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페루에는 현재 5개의 주요 정유공장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공장은 RepsolYPF가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정유공장은 Petroperu가 운영하고 있다.

2) 가스산업 정책

페루는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위해 천연가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카미세아 유전에서 국내 소비를 상회하는 천연가스가 생산되면서 최근 페루 정부는 주 에너지원을 가스로 전환하는 에너지 가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및 산업체의 천연가스 소비확대 정책, 교통수단의 가스차량으로의 교체, LNG 생산시설 건설, 가스화학산업 유치 정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페루 정부는 천연가스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 12월 159대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차량이 2009년 3월에는 6만 2,000대로 증가했다. 리마에는 2008년 현재 3개의 CNG(compressed natural gas) 주유소가 있으며 10개의 주유소가 건설 중이다. CNG와 LPG의 사용 증가에 힘입어 2006년대비 2008년 가솔린 소비는 20% 감소했다. 한편 Petroperu사는 10억 달러 규모의 탈라라(Talara)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글상자 1 카미세아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예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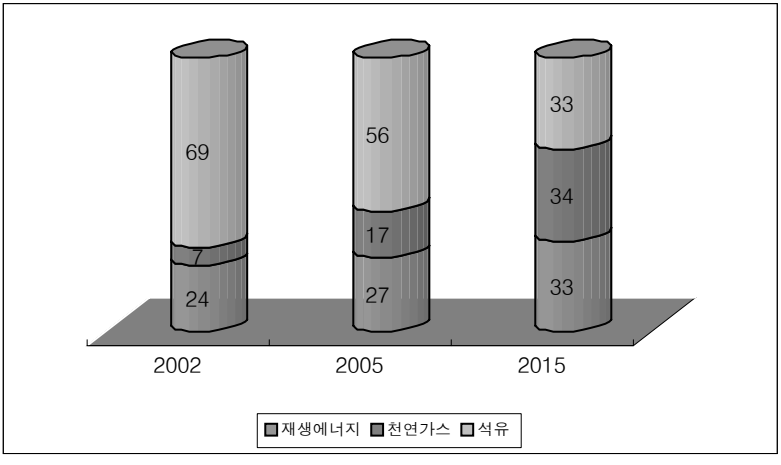
□ 카미세아 프로젝트란?
- 페루 역사상 최대 에너지 프로젝트
- 17억 달러 규모의 카미세아 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크게 상류부문 개발계약(계약기간 40년)과 하류부문 개발계약(계약기간 33년)으로 대별
- 수송과 판매를 담당하는 하류부문 프로젝트는 Techint, Pluspetrol(아르헨티나), Hunt Oil(미국), Grana y Montero(페루), Sonatrach(알제리), SK Corporation(한국)의 컨소시엄인 TGP가 주도
- 상류부문 프로젝트는 Pluspetrol(26%), Hunt Oil, SK Corporation, Tecpetrol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담당

□ 카미세아 프로젝트의 예상 효과
- 2004년부터 2033년까지 약 51억 달러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
- 국내 수요 초과분을 수출하여 무역수지 개선, 특히 석유부문의 무역수지 적자를 30%까지 감소
- 2004년부터 2033년까지 39억 달러 상당의 경제효과
-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

또한 페루 정부는 지난 20년간 수력발전에 편중되어온 전력생산 구조를 천연가스를 사용한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을 병행한 체제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5년 현재 전체 에너지원에서 17%인 천연가스 비중을 2015년에는 3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림 Ⅲ-9 페루 정부의 에너지원 변화 계획

(단위: %)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3) 전력산업 정책

1990년대 초 에너지산업의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전력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법으로는 DL 25844법 (전력양허법), DS 009-93-EM 법(전력양허법 세칙), DL No. 1002법(대체에너지를 사용한 발전 산업 투자촉진법) 등을 들 수 있다.

페루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발전, 송전, 배전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전: 수력자원이나 지열(20MW 이상)을 이용할 경우
- 송전: 시설물이 국가재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재산에 시설을 해야 할 경우
- 배전: 500KW 이상 전기 공공서비스의 성격일 경우

1993년 법률 제정 이후 전력 생산은 연평균 4.5% 증가했다. 그 결과, 1994년에 58.5%였던 전기보급률이 2007년에는 80%까지 증가하였다. 정부의 목표는 전기보급률을 2011년 88.5%, 2015년 93%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표 III-7 페루 에너지 통계 추이

구분	1995	2000	2006	2007	2008	전년대비 증가율
인구(천 명)	23,345	25,208	27,573	28,221	28,672	1.6
전기보급률(%)	64.5	73.5	78.7	79.5	–	–
1인당 전력 소비량(kW.h)	584	680	872	938	1,010	7.7
1인당 전력 생산량 (kW.h)	723	846	993	1,061	1,138	7.3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4) 재생에너지 정책

페루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하나인 수력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재생가능 자원을 이용한 발전(發電)은 깨끗한 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전기공급 사업에도 중요한 수단이다.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현재 풍력발전 관련 58건(총 9,415MW 상당)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에만 주력하고 있어서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산업 현황 및 구조

가. 광업

1) 생산 현황

페루는 세계 광물자원의 보고에 걸맞게 광물자원의 생산도 세계적인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은 생산은 세계 1위, 아연 생산은 세계 2위, 구리와 주석 생산은 세계 3위, 납과 몰리브덴 생산은 세계 4위, 금 생산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광물 생산은 1990년대 후지모리 정부 시기의 민영화정책, 외자촉진정책에 힘입어 커다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02년 이

후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페루 광물 생산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동, 아연, 금 생산은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몰리브덴을 제외한 아연(전년비 11% 증가), 구리(6.5%), 금(5.7%), 은(5.3%)의 생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Ⅲ-8 페루의 광물 생산 현황

구분	2007년 생산량	2008년				
		생산량	증감 (전년비, %)	전세계 비중(%)	중남미 순위	세계 순위
구리(천 톤)	1,190.3	1,267.9	6.5	8.2	2	3
금 (톤)	170.2	179.9	5.7	8.2	1	5
아연(천 톤)	1,444.4	1,602.6	11.0	13.3	1	2
은(톤)	3,501.5	3,685.9	5.3	19.0	1	1
납(천 톤)	329.2	345.1	4.8	8.9	1	4
주석(천 톤)	39.0	39.0	0.05	11.8	1	3
몰리브덴(천 톤)	16.8	16.7	−0.4	7.8	2	4
철(천 톤)	5,104	5,161			5	17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페루 銅 광산의 공급구조의 특징은 상위 5개 광산이 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외자기업이라는 점이다. 상위 5대 광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Antamina 광산의 생산 비중이

28%로 가장 크며, Cerro Verde(26%), Cuajone(16%), Toquepala (11%), Tintaya(9%) 광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III-9 페루 상위 10대 동 광산의 생산량(2008)

순위	광산명	조업기업	2008 (천 톤)	2007 (천 톤)	증감 (%)
1	Antamina	BHP Billiton: 33.75% Xstrata 33.75% Teck Cominco 22.5% 미쓰비시상사 10%	358.2	341.3	4.9
2	Cerro Verde	Freeport McMoran 53.6% Buenaventura 18.2% 스미토모금속광산 16.6% 스미토모상사 4.2%	324.2	274.0	18.3
3	Cuajone	Southern Copper	200.8	187.1	7.3
4	Toquepala	Southern Copper	145.0	172.6	−16.0
5	Tintaya	Xstrata	110.8	119.5	−7.3
6	Cobriza	Doe Run	20.7	18.8	10.2
7	Condestable	Condestable	20.7	15.6	32.5
8	Cerro Lindo	Milpo	9.7	2.7	262.8
9	Colquijirca	Brocal	9.0	3.4	165.4
10	Cerro Corona	Gold Field	7.7	0	–
		소 계	1,206.6	980.8	23.0
		기 타	61.2	209.5	−70.8
		총 계	1,267.9	1,190.3	6.5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페루 아연 광산의 공급구조는 페루 민족계 기업인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연 생산은 2008

표 III-10 페루 상위 10대 아연 광산의 생산량(2008)

순위	광산명	조업기업	2008 (천 톤)	2007 (천 톤)	증감 (%)
1	Antamina	BHP Billiton: 33.75% Xstrata 33.75% Teck Cominco 22.5% 미쓰비시상사 10%	382.8	322.4	18.8
2	Iscaycruz	Emp.Marlos Quenuales (Glencore)	175.2	175.6	−0.2
3	Cerro de Pasco	Volcan Cia.Minera	136.1	149.8	−9.2
4	Colquijirca	Soc.Mra.El Brocal	85.1	91.3	−6.7
5	Animon	Emp.Administradora Chungar	85.0	69.1	23.0
6	Cerro Lindo	Cia.Mra.Milpo	78.3	23.9	228.2
7	San Cristobal	Volcan Cia.Minera	77.9	70.1	11.1
8	Atacocha	Cia.Mar.Atacocha	61.7	59.4	3.9
9	El Porvenir	Cia.Mra.Milpo	54.5	66.2	−17.7
10	San Vicente	Cia.Mra.San Ignacio de Morococha	39.2	38.0	3.3
		소계	1,175.8	1,065.6	10.3
		기타	426.8	378.7	12.7
		총계	1,602.6	1,444.4	11.0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년에 Antamina 광산의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11% 증가하는 등 과거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상위 5대 광산의 생산을 살펴보면 Antamina 광산의 생산 비중이 24%로 가장 큰 가운데 Iscaycruz(11%), Cerro de Pasco(8%), Colquijirca(5%), Animon(5%) 광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페루 최대 Yanacocha 금광산은 품위 저하로 2005년을 정점으로 생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생산능력 확대에 힘입어 전년비 15.5% 증가, 전체 금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상위 5대 금 생산 광산을 살펴보면 Yanacocha 광산이 전체의 31%로 가장 비중이 크며 다음으로 Alto Chicama(20%), M.D.D(9%), Pierina(7%), Orcopamp(5%) 순이다.

표 III-11 페루 상위 10대 금 광산의 생산량(2008)

순위	광산명	조업기업	2008 (kg)	2007 (kg)	증감 (%)
1	Yanacocha	Newmont 51.35% Buenaventura 43.65% IFC 5%	56.2	48.6	15.5
2	Alto Chicama	Mra.Barrick Misquichilca	36.5	33.8	8.2
3	M.D.D	Madre de Dios	16.7	16.4	2.0
4	Pierina	Mra.Barrick Misquichilca	12.5	16.2	−23.0
5	Orcopampa	Cia.de Minas Buenaventura	8.3	8.3	−0.2

표 III-11 계속

순위	광산명	조업기업	2008 (kg)	2007 (kg)	증감 (%)
6	Santa Rosa-Comarsa	Cia.Mra.Aurif.Santa Rosa	5.2	5.5	-5.0
7	Acumulation Parcoy	Consorcio Mra.Horizonte.S.A	5.2	4.8	6.7
8	Acumulation Tucari	Aruntani S.A.C	4.6	1.4	227.5
9	Retamas	Mra.Aurif.Retamas	4.3	4.1	6.7
10	La Poderosa de Torjillo	Pedprosa	2.8	2.2	30.5
소계			152.3	141.2	7.9
기타			27.6	29.0	-5.0
총계			179.9	170.2	5.7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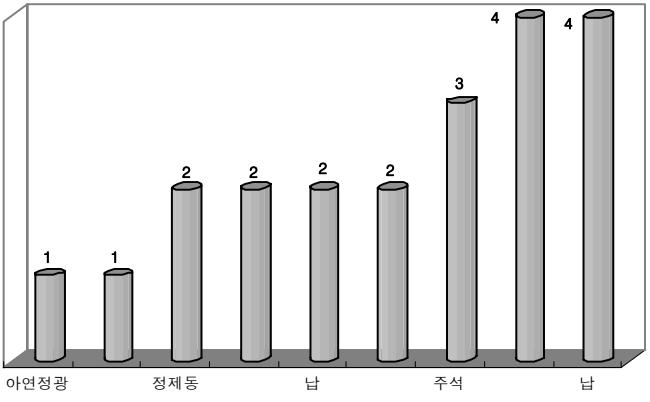
페루의 광산업는 대부분 다국적기업이 지배하고 있는데, 생산 규모 기준으로 대기업이 51%, 중기업이 43%, 소기업이 4%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군은 7개 기업으로 구성되며 중기업은 45개 기업으로 구성된다.

2) 수출 현황

풍부한 광물 매장량과 많은 광물 생산에 힘입어 페루는 세계 광물자원의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아연정광 및 몰리브덴 수출은 세계 1위, 정제동, 은, 납, 아연판 수출은 세계 2위, 주석 수출은 세계 3위, 금과 납 수출은 세계 4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10 페루 광물 수출 세계 순위(2007년)

(단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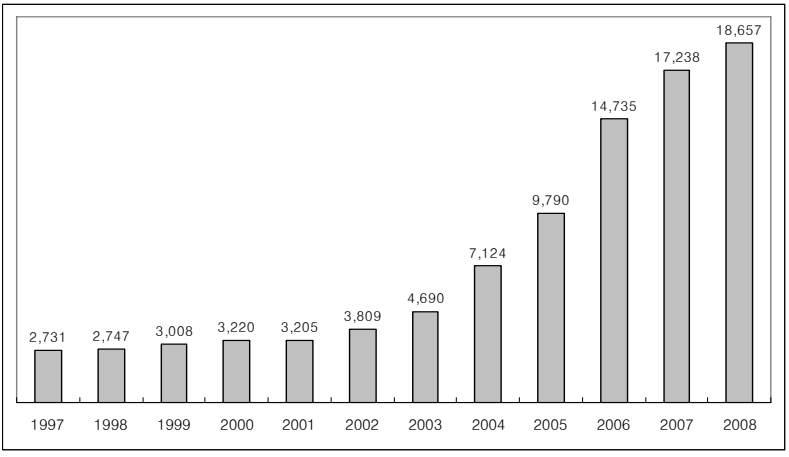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최근 6년간(2003~08년) 광물 수출은 비약적 증가세를 기록했다. 광물은 전통적으로 페루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으로 최근

6년간 평균적으로 총수출의 50%를 차지했다. 국제 광물가격의 앙등에 힘입어 지난 6년간 광물 수출은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 결과 광물 수출규모는 2003년 47억 달러에서 2008년에는 약 4배 증가한 18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림 Ⅲ-11 페루의 광물 수출 추이

(단위: 순위)



자료: Central Reserve Bank of Peru.

2008년 기준으로 수출액 별로는 주석(전년비 36.9% 증가), 철광석(34.8%), 금(34.4%)의 수출 증가세가 현저했다. 수출물량 기준으로는 납(26.0%), 아연(14.3%), 몰리브덴(13.6%)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표 III-12 주요 광물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광종	수출액			수출량(천 톤, 단 금과 은은 천 온스)		
	2007	2008	증감	2007	2008	증감
동	7,205	7,663	5.8	1,121	1,243	10.9
금	4,181	5,588	34.4	5,927	6,418	8.3
아연	2,539	1,467	−42.1	1,270	1,452	14.3
은	538	595	10.7	40.3	39.7	−1.5
납	1,033	1,136	9.9	417	525	26.0
철광석	286	385	34.8	7,170	6,840	−4.6
주석	507	695	36.9	35.3	39.8	12.8
몰리브덴	982	1,079	10.0	16.1	18.3	13.6
기타	51	48	−5.1			
광물 합계	17,328	18,656	7.7			
수출 합계	27,956	31,594	13.0			

자료: Central Reserve Bank of Peru.

2007년 현재 5억 달러 이상 수출하는 대형 광산물 수출기업은 7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도 Compania Minera Antamina S.A. 사와 Southern Peru Copper Corporation사가 대표적이다.

페루의 최대 광물 수출대상국(2008년 기준)은 중국(총 광물 수출의 30.4%)이며, 그 뒤를 일본(15.6%), 칠레(11.4%), 독일(5.9%), 스페인(5.5%), 한국(5.5%) 등이 잇고 있다.

표 III-13 주요 광물 수출기업 현황(2007년, 5억 달러 이상)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기업명	금액
1	Compania Minera Antamina S.A.	3,013
2	Southern Peru Copper Corporation	2,989
3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A.	1,629
4	Doe Run Peru	1,279
5	Minera Barrick Misquichilca SA	1,123
6	Minera Yanacocha	1,114
7	Consorcio Minero SA Cormin	610

자료: ADEX Datatrade.

표 III-14 페루 금속광물(HS 26)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5	2006	2007	2008	점유율		변화율 (08/07)
						2007	2008	
	계	3,835	6,287	8,946	8,580	100	100	−4.1
1	중국	1,013	1,489	2,305	2,609	25.8	30.4	13.2
2	일본	298	742	1,735	1,342	19.4	15.6	−22.7
3	칠레	771	733	848	980	9.5	11.4	15.6
4	독일	141	358	494	503	5.5	5.9	1.9
5	스페인	163	376	478	470	5.3	5.5	−1.6
6	한국	182	473	788	470	8.8	5.5	−40.4
7	인도	62	88	201	276	2.2	3.2	37.4
8	핀란드	115	221	178	244	2.0	2.8	37.2
9	캐나다	172	326	369	209	4.1	2.4	−43.4
10	미국	83	176	166	205	1.9	2.4	23.9
11	불가리아	89	140	210	181	2.4	2.1	−14.1
12	북한	–	21	14	179	0.2	2.1	1187.3

자료: World Trade Atlas.

3) 수입

페루는 풍부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량도 많아 광물 수입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주요 수입 광물은 철과 납 등으로 2008년 수입규모는 6,636만 달러에 불과했다.

표 III-15 광물(HS 26)수입(2006~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HS	품목	2006	2007	2008	증가율 (08/07)
2601	철 및 농축물	0.03	10.13	22.61	123.3
2607	납 및 농축물	2.37	0.68	17.49	2480.6
2609	주석 및 농축물	0.00	0.00	9.33	0.0
2616	귀금속 및 농축물	5.43	0.03	8.36	30925
2610	크롬 및 농축물	1.26	1.19	2.92	145.8
2620	재 및 찌꺼기(제철업 제외)	0.11	0.94	1.62	72.6
2606	알루미늄 및 농축물	0.44	0.90	1.47	62.8
2603	구리 및 농축물	0.54	2.08	1.47	−29.6
2614	티타늄 및 농축물	0.24	0.44	0.51	15.1
26	금속광물 합계	11.82	16.73	66.36	296.6

자료: World Trade Atlas.

주요 수입대상국은 인근국가인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등이다. 특히 2008년에 볼리비아로부터 수입은 1,261%나 증가했다.

표 Ⅲ-16 금속광물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	2006	2007	2008	증가율(08/07)
1	볼리비아	8.34	2.68	36.46	1261.9
2	칠레	0.02	6.42	19.81	208.7
3	브라질	0.00	4.05	3.13	−22.7
4	남아프리카공화국	1.41	1.31	3.00	128.6
5	중국	0.06	0.51	1.33	159.0
6	스페인	0.15	0.11	0.88	721.8
7	멕시코	0.00	0.05	0.52	932.0
8	아르헨티나	1.16	0.33	0.30	−8.6
	기타	0.68	1.28	0.94	−26.8
	합계	11.82	16.73	66.36	296.6

자료: World Trade Atlas.

페루는 광물 중에서 철강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08년 철강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2배 증가한 16억 달러에 달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 브라질, 미국, 라트비아, 일본, 한국 순이었다.

4) 고용

2006년 현재 광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14세 이상 정규직

표 III-17 철 및 무쇠 용해물(HS 72)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국	2006	2007	2008	증가율(08/07)
1	중국	87.3	152.4	383.7	151.8
2	브라질	139.5	200.1	279.8	39.9
3	미국	32.7	87.8	172.7	96.7
4	라트비아	0.0	0.0	156.2	0.0
5	일본	34.0	38.5	70.7	83.4
6	한국	20.4	32.8	62.2	89.7
7	베네수엘라	93.1	78.3	58.7	−25.1
8	터키	0.1	0.1	56.8	0.0
9	스페인	18.1	18.6	48.4	160.7
10	멕시코	3.3	13.6	46.9	244.3
	합계	581.3	831.8	1,594.5	91.7

자료: World Trade Atlas.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12만 9,000명이다. 이 중에서 100명 이상의 민간 광업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4만 4,101명에 달했다.

표 III-18 규모별 민간광업회사 고용 근로자 수(2006년)

(단위: 명)

회사 규모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499명	500명 이상	총합
근로자 수	694	1207	3,105	4,163	25,056	19,045	53,270

자료: 페루 노동부.

한편 민간 광업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간부급은 2,348명, 사무원급은 2만 248명, 단순 노동자는 3만 674명에 달하고 있다.

표 III-19 직급별 광산·채석장 채굴 종사자 현황(2006년)

간 부 급	사 무 원	노 동 자	합계
2,348	20,248	30,674	53,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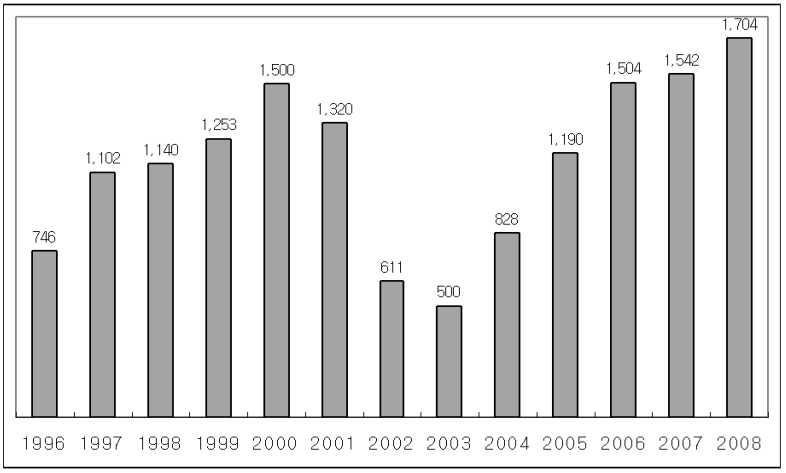
주: 2006년 6월 기준.
자료: 페루 노동부.

5) 투자

현재 페루에는 BHP Billiton(호주), Falconbridge(캐나다), Teck-Cominco (캐나다), Barrick Gold Corp(캐나다), Newmont Gold(미국), Phelps Dodge Corp.(미국), Grupo México(멕시코), Vale do Rio Doce(브라질), Rio Tinto(영국), Doe Run(미국), Shougang(중국)과 같은 국제적인 규모의 외국회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다. 2008년 광업 분야에 대한 총 투자액은 17억 400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7.57%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 광물 탐사와 확장에 관한 31개의 프로젝트에 2,5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림 III-12 페루 광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0년대 들어 크게 증가했다. 최근 4년간(2005~2008) 연평균 외국인투자는 3억 5,400만 달러에 달했다.

표 III-20 광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투자액	171	35	278	616	66	456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나. 에너지산업

1) 생산 및 소비

가) 석유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여덟 번째 석유생산국이다. 2007년 기준으로 페루의 석유생산량은 11만 4,000bpd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8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46번째이다. 페루의 석유생산량은 최근 10년간(1997~2007년) 5.1% 하락했다.

그림 Ⅲ-13 페루의 석유 소비 현황(2007년)

(단위: 1일, 천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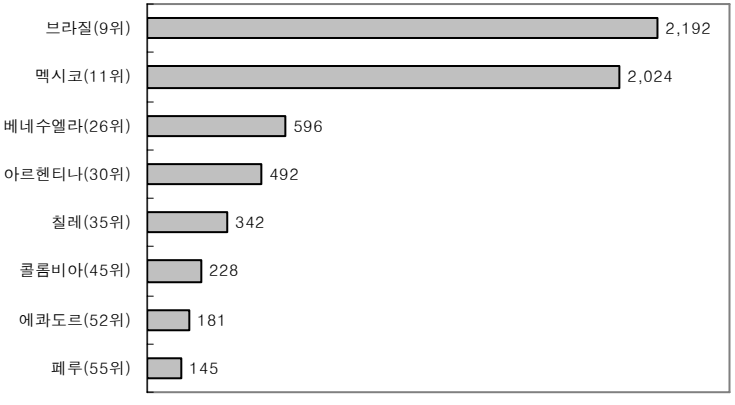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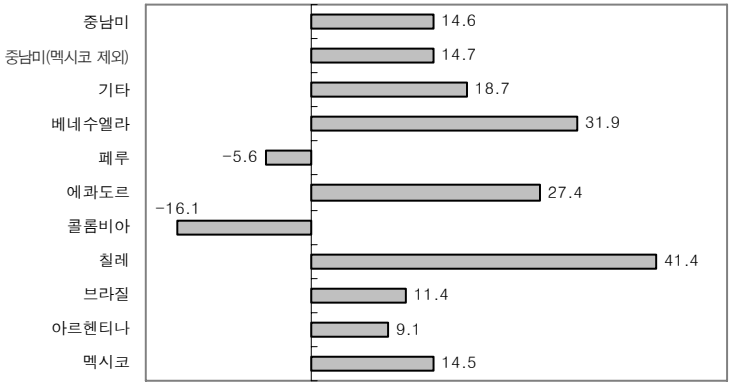


그림 Ⅲ-14 페루의 석유 소비 증가 현황(1997~2007년)

(단위: %)



자료: BP.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8번째 석유소비국이다. 2007년 기준으로 페루의 석유소비량은 14만 5,000bpd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8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55번째 소비국이다. 페루의 석유 소비는 1997~2007년 기간 5.6% 하락했다. 이 같은 석유 소비 하락의 주요 원인은 최근 카미세아 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천연가스가 석유 소비를 대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천연가스

카미세아 가스전의 본격적인 생산에 힘입어 2007년부터 천연가스 생산은 소비를 크게 웃돌고 있다. 카미세아 가스전의 초

그림 Ⅲ-15 페루의 석유 생산 현황(2007년)

(단위: 1일 천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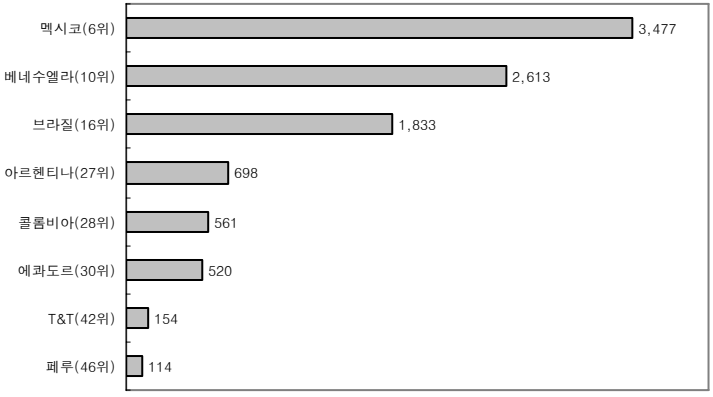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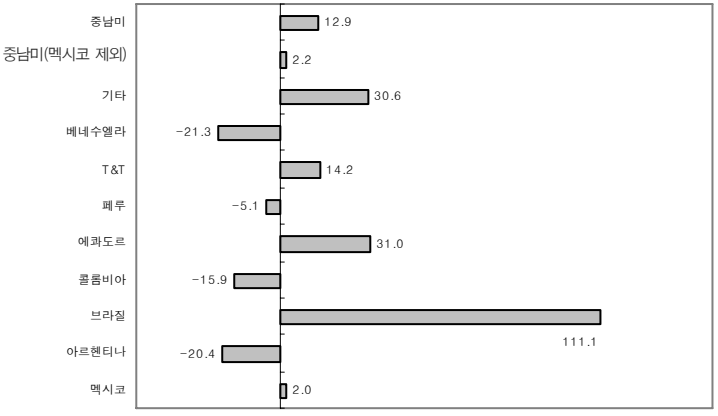


그림 Ⅲ-16 페루의 석유 생산 증가 현황(1997~200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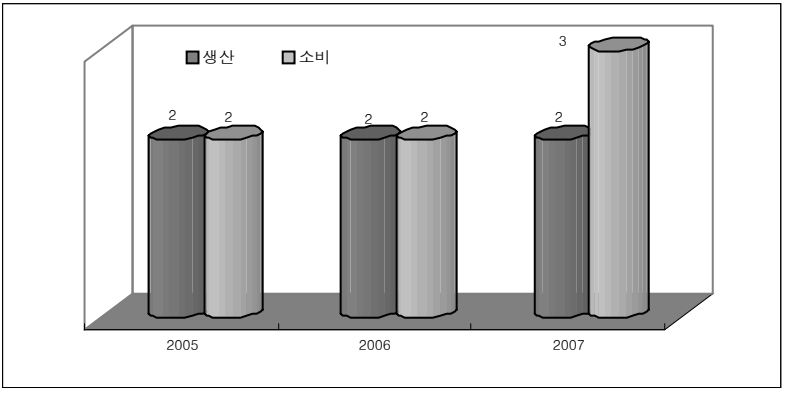


자료: BP.

기 생산규모는 연 45억 입방미터이나 국내 수요 및 수출 인프라 미비로 현재까지 당초 생산규모를 밑돌고 있다. 프랑스의 Suez사는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칠레의 Tocopilla를 연결하는 가스수송망을 건설, 잉여 가스를 칠레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림 Ⅲ-17 페루의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 현황

(단위: 십억 m^3)



자료: BMI(2008).

2) 수출

페루의 원유 수출은 아직까지 많지 않다. 금액 기준으로 2008년 원유 수출액은 5억 8,7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칠레, 중국 순이다.

표 Ⅲ-21 페루의 원유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488	587	587	100	100	100	0.1
1	미국	84	82	362	17.2	14.0	61.7	340.5
2	칠레	304	392	168	62.3	66.8	28.5	−57.3
3	중국	100	37	58	20.4	6.3	9.8	56.7
4	엘살바도르	−	18	−	0.0	3.1	0.0	−100
5	한국	−	33	−	0.0	5.7	0.0	−100

자료: World Trade Atlas.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이다. 매장량이 풍부한 데다 국내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아 수출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천연가스 수출은 칠레,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비 28%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주지역 국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천연가스 액화공장 건설이 마무리될 경우 페루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3) 수입

페루는 산유국이지만 자급자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

표 III-22 페루의 천연가스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1,279	1,757	2,253	100	100	100	28.2
1	미국	601	980	1,128	47.0	55.8	50.1	15.2
2	캐나다	101	80	254	7.9	4.6	11.3	217.3
3	파나마	309	353	236	24.2	20.1	10.5	-33.1
4	칠레	13	32	132	1.0	1.8	5.9	318.6
5	스페인	44	45	69	3.5	2.6	3.1	53.4
6	에콰도르	39	44	58	3.1	2.5	2.6	29.6
7	아르헨티나	15	22	42	1.2	1.3	1.9	90.6

자료: World Trade Atlas.

당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2008년 연료 수입액은 54억 8,9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원유가 전체 수입의 절반을 넘는 34억 달러를 차지했다.

표 III-23 페루의 연료(HS 27)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구 분	2006	2007	2008	증가율 (08/07)
2709	원유	2,193	2,741	3,405	24.3
2710	석유와 역청유	627	838	1,714	104.5
2704	코크스	66	72	121	69.3
2711	석유 가스 및 탄화수소가스	5	67	119	76.8
2701	석탄: 고체연료	49	76	101	33.3
27	총계	2,959	3,816	5,489	43.8

자료: World Trade Atlas.

주요 수입대상국은 에콰도르, 미국, 앙골라, 콜롬비아, 브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에는 파나마, 베네수엘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표 III-24 페루의 주요 연료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증가율(08/07)
	총계	2,959	3,816	5,489	43.8
1	에콰도르	944	1,339	1,516	13.2
2	미국	310	537	1,320	146.0
3	앙골라	59	515	820	59.1
4	콜롬비아	293	226	427	88.8
5	브라질	401	396	364	−8.0
6	파나마	21	82	289	253.9
7	베네수엘라	373	66	174	162.6
8	칠레	197	133	167	25.5
9	나이지리아	271	293	102	−65.1
17	중국	10	14	17	25.5
19	북한	0	0	12	0.0
36	한국	0	39	0	−99.6

자료: World Trade Atlas.

4) 투자 현황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지방 전기화 사업에 집중

되었으며, 대부분이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지방정부들이 전기보급을 위해 시행한 프로젝트들이다. 민간부문의 투자는 Santa Rosa 화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유리, 제지, 플라스틱, 원단 제조업의 송전용 변전소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표 III-25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전력산업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전력량	운용개시	투자규모 (천 달러)
CH Santa Cruz II	6.0 MW	2010.7월	10,300
CH Huasahuasi I	7.0 MW	2010.12월	12,550
CH Huasahuasi II	7.0 MW	2010.12월	12,970
CH El Sol 1	19.0 MW	2011.12월	38,395
CH El Sol 2	10.0 MW	2011.12월	21,330
CH Yurma 1	6.0 MW	2012.6월	11,915
CH Yurma 2	7.0 MW	2012.6월	13,000
총계	62 MW		120,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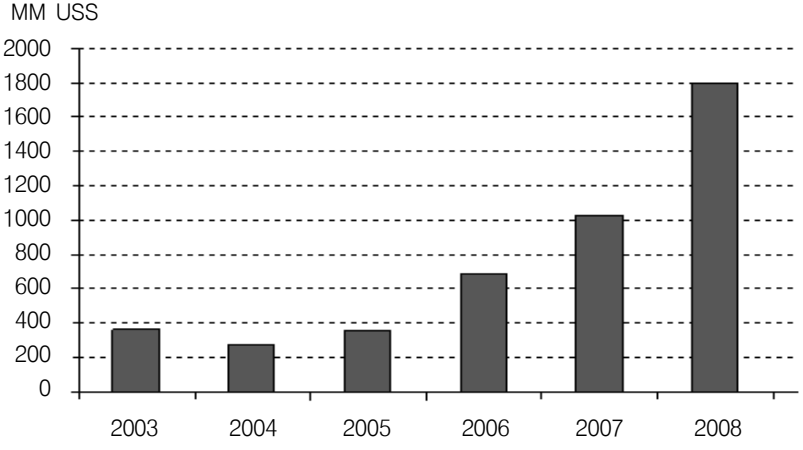
자료: Laub & Quijandria.

석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BPZ Energy의 가스, Piura와 Tumbes 지역의 원유 채굴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4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에 18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다.

한편 현재 페루 민간투자청(Proinvercion)은 안데스 산간지방인 Ayacucho, Junin, Ancash에 가스수송관을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연구 중이다.

그림 Ⅲ-18 석유산업 투자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

4

진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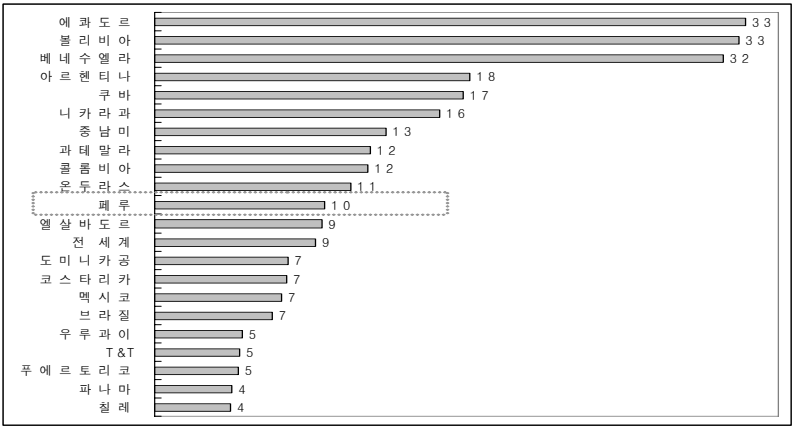
가. 광업

1) 전체 진출 환경

페루의 광물개발 진출 환경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양호하다. 2009년 Global Insight의 국별 광물개발 단기(1년 이내) 리스크 평가에 따르면 페루의 위험도는 중남미 평균보다 낮고 세계 평균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광물 보유국 중에서는 칠레, 브라질, 멕시코의 위험도가 페루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Ⅲ-19 페루의 광물개발 단기 리스크 비교(2009년 3분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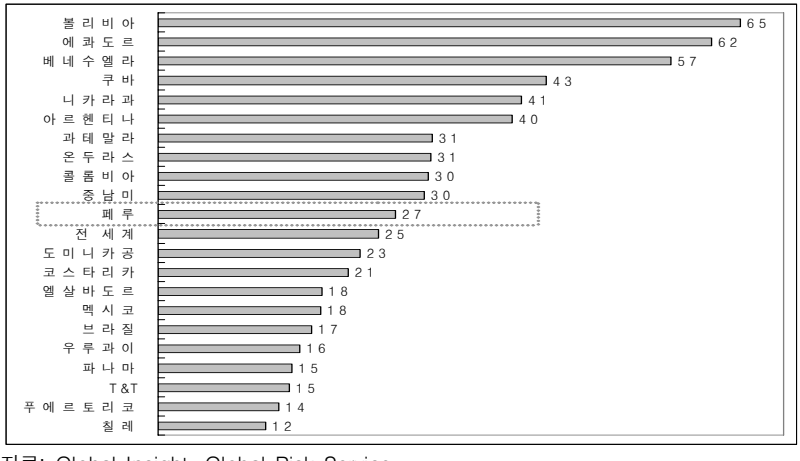
(단위: 0=낮음, 100=높음)



자료: Global Insight, Global Risk Service.

그림 Ⅲ-20 페루의 광물개발 중기 리스크 비교(2009년 3분기 현재)

(단위: 0=낮음, 100=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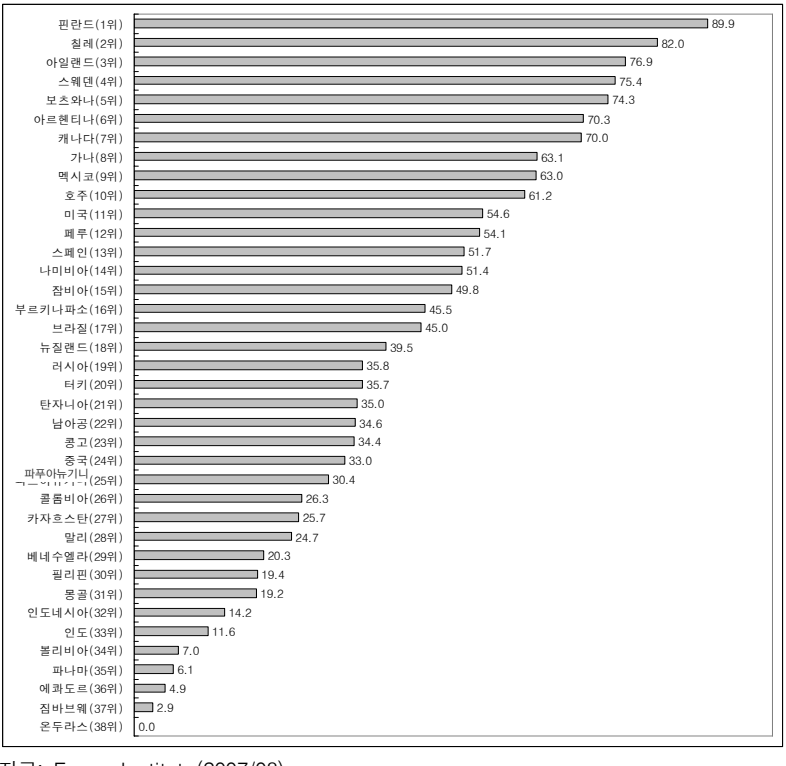


자료: Global Insight, Global Risk Service.

한편 5년 이내의 중기적인 페루의 광물개발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단기 리스크 평가와 유사하다. 페루의 중기 광물개발 리스크는 중남미 평균보다는 낮으나 전 세계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III-21 광산개발 진출 환경 비교

(단위: 0=매우 불량, 100=매우 양호)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한편 Fraser Institute가 전 세계 광물메이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칠레(전 세계 2위)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진출 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아르헨티나(6위), 멕시코(9위), 페루(12위), 브라질(17위) 순으로 진출 환경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2) 요소별 진출 환경 비교[4)]

가) 기존 규정의 관리, 해석 및 실행의 불확실성

기존 규정의 자의적 해석이나 관리 및 실행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진출이 어려운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강력한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페루를 위시한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은 규정의 실행이 비교적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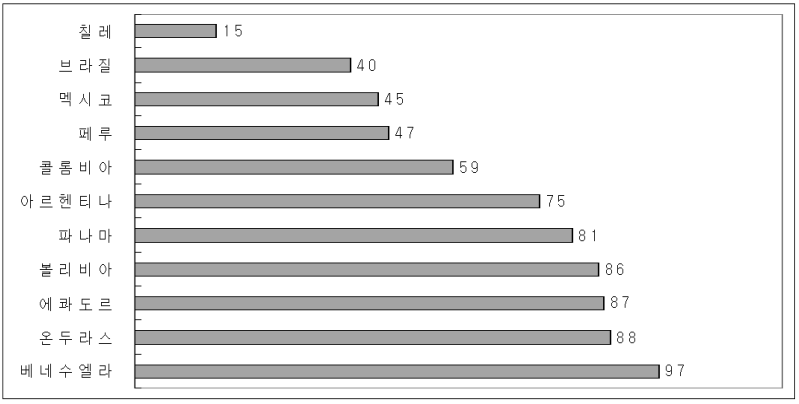
나) 환경 규정, 원주민의 토지반환요구 및 삼림보호지역·공원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는 광산개발과 환경관련 인식이 크게 높아져 환경문제가 광산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

4) Fraser Insitute(2007/08)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

그림 Ⅲ-22 기존 규정의 관리, 해석 및 실행의 불확실성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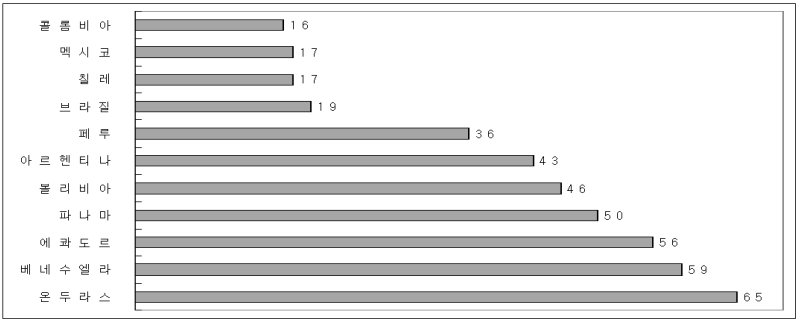
자료 : Fraser Institute(2007/08).

나마, 볼리비아 등에서 환경문제가 광산개발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에 반해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에서는 아직까지 환경규정이 광산개발에 크게 영향을 주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페루의 경우 아직까지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나 최근 정부가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환경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환경규정이 광산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페루에서는 환경관련 분쟁을 포함한 사회분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분쟁 확대의 주요 원인은 최근 물가급증, 빈부격차 확대,

그림 Ⅲ-23 환경규정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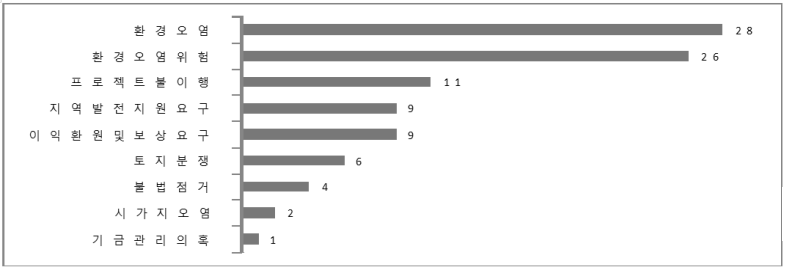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환경오염 확대 등이다. 2008년 197건의 분쟁 중 광업관련 분쟁은 전체 분쟁의 40%인 78건에 달했다. 광업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사회·환경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70%가 환경오염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림 Ⅲ-24 광업관련 분쟁의 원인(2008년)

(단위: %)



자료: JOGMEC.

표 III-26 광업관련 주요 사회·환경 분쟁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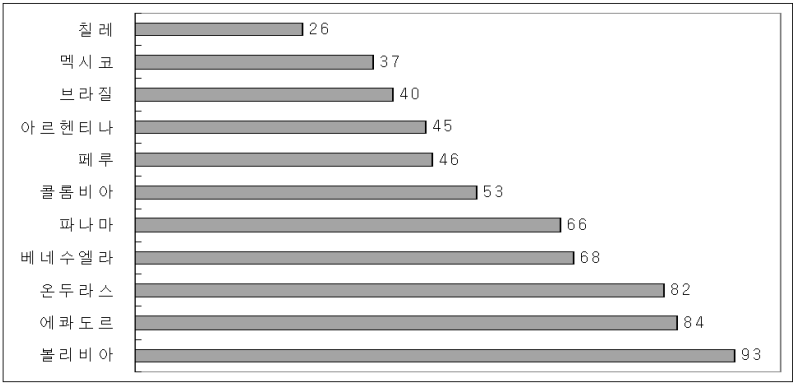
광산명	사회·환경 분쟁의 내용
Antamina (Ancash)	광산의 약속의 불이행과 환경오염을 지적하는 주민들의 항의
Las Bambas (Apurimac)	주변 원주민들의 신탁기금관리위원회의 재편 요구
La Zanja (Cajamarca)	주변 원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운동
Michiquillay (Cajamarca)	주변 주민들이 과거의 조업을 원인으로 광해대책 보상과 사회프로젝트 요구
Yanacoccha (Cajamarca)	Quishuar 원주민들이 광산조업에 따른 수질오염 항의
Tintaya (Cusco)	광산 주민들의 불법채굴자로부터 광산에 대한 채굴권 요구
Toromocho (Junin)	Morococha 주민의 마을 이전에 관한 조건 협의 요구
Cajone (Moquegua)	Illo 원주민들이 광산조업 및 환경오염에 대한 보상요구
Cerro de Pasco (Pasco)	광산의 노천확장에 대한 Chaupimarca 원주민의 반대
Rio Blanco (Piura)	Majaz 광산 활동의 위법성과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원주민들의 반광산운동
Toquepara (Tacna)	수자원 이용에 따른 Callazas 하천량 감소에 대한 지역 원주민들의 항의

자료: JOGMEC.

한편 원주민의 토지반환요구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광산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이다. 페루에서도 최근 들어 토지반환 등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의 분규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광산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Ⅲ-25 원주민의 토지반환요구 등에 따른 불확실성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글상자 2 아마존 지역의 토착 원주민들의 광산개발 참여 요구 현황

- 최근 페루의 Iquitos 등 아마존 지역의 토착 원주민(native aborigine) 수천여 명은 이 지역의 자원개발에 대한 참여권 제한 및 주거환경의 파괴를 이유로 수일째 반정부 무력시위를 전개함.
  - 시위대는 아마존 지역 접근 일부 도로망 봉쇄하여 교통 및 수송망이 일시 마비 또는 단절되는 사태가 발생

글상자 2 계속

-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Alberto Pizango '페루밀림발전을 위한 다민족 협회'(Aidesep: Asociación Interétnica de desarrollo de la Selva Peruana) 회장은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반정부 시위 및 파업의 무기한 전개 등 반정부 투쟁 개시를 선언(2009.5.13)
  - 페루 정부가 국가 소유인 지하자원 및 광산의 개발 시 해당 지역민들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토착원주민 및 부족민에 대한 ILO(국제노동기구) 169호 협약」(제15조)을 준수
  - 자원개발권을 취득한 기업의 지역사회와의 협상권을 배제시킨 일부 페루 법령(신산림법 29317호, 수자원령 1064호 등)은 악법이므로, 이 법령의 개폐를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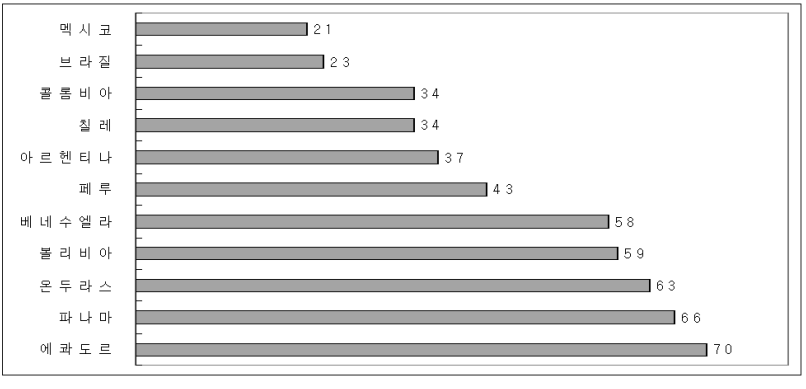
※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169호 협약의 제 15조는 토착 주민들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천연자원 사용, 운영 및 보존에 대한 참여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이에, 페루 정부는 상기 아마존 토착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토지는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페루 전 국민이 공유하는 자산이므로 Aidesep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시위대의 무장시위 또는 교통로 진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 헌정 및 공안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투입, 진압할 방침이며, 상기 Iquitos시를 포함한 12개 아마존 밀림지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언(5.14부터 30일간 지속), 이 지역의 치안 악화 시 군병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상기와 같은 비상사태는 2008년 8월 7일 Aidesep 측에 의해 주도된 1차 반정부 투쟁발생 시 30일간 실시된 바 있음.
- 페루 정부는 이러한 강경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Yehude Simon 총리 주도로 Aidesep 측과의 수차례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인권옹호관 등을 통한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는 등 강온 양면으로 대응함으로써 Aidesep의 Pizango 회장이 정부와 협상할 의지를 보임.
- 그러나, 페루 일부에서는 정부와 토착 원주민들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빈부차 및 사회적 소외문제 등에서 비롯된 분쟁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

삼림보호지역 및 공원지역 지정 등의 불확실성이 투자진출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는 에콰도르, 파나마, 온두라스,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지목되었다. 페루도 아마존 열대우림 등 삼림보호 지정 가능 지역이 많아 광산개발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림 Ⅲ-26 삼림보호지역 및 공원지역 지정에 대한 불확실성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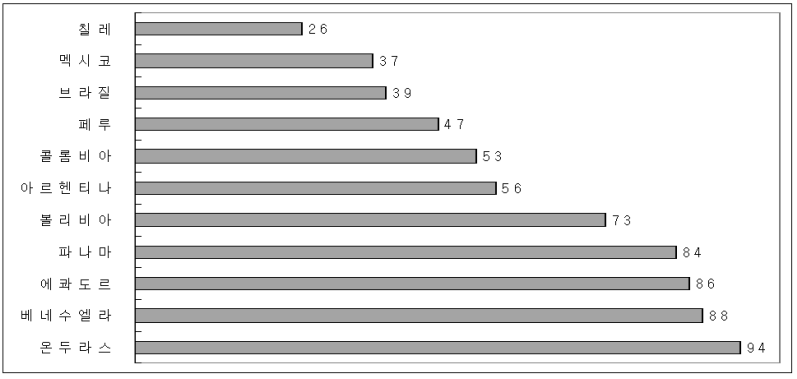
다) 규정의 중복성 및 비일관성(연방·지방정부나 연방·주정부 및 부처간 규정의 중복 및 비일관성)

연방·지방정부나 연방·주정부 및 부처간 규정의 중복 및 비일관성이 광산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로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볼리비아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를 위시한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법 규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III-27 규정의 중복성 및 비일관성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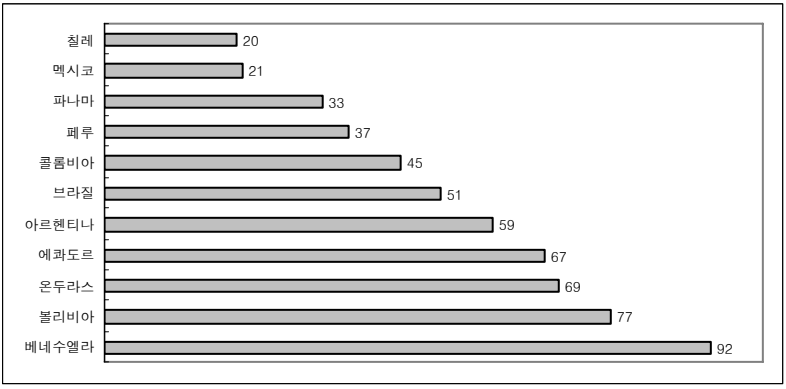
라) 세제(개인세, 법인세, 소득세, 자본세 및 세제의 복잡성 등)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은 세제가 복잡하고 세금이 높기로 유명하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세제의 복잡성, 높은 세제부담 등으로 외국투자자들이 투자진출을 기피하는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이 지목되었다. 그에 비해 칠레, 멕시코 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해 세제가 단순하고 세제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루

도 최근 광산개발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를 신설하는 등 세제부담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Ⅲ-28 세제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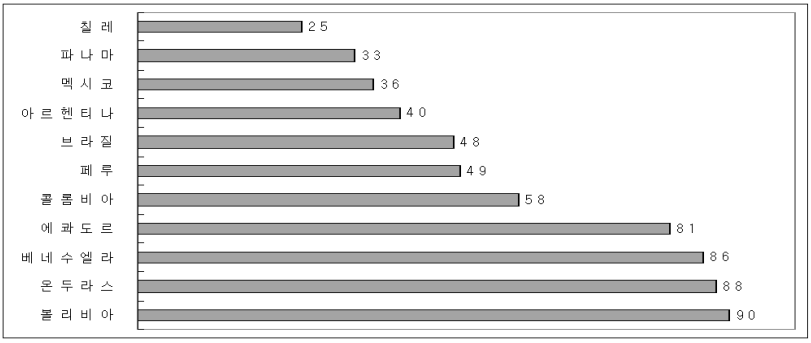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마) 인프라

페루를 위시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전력 및 도로 부족, 항만 미비 등의 심각한 인프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앞선 칠레에서조차도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가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을 정도다.

그림 III-29 인프라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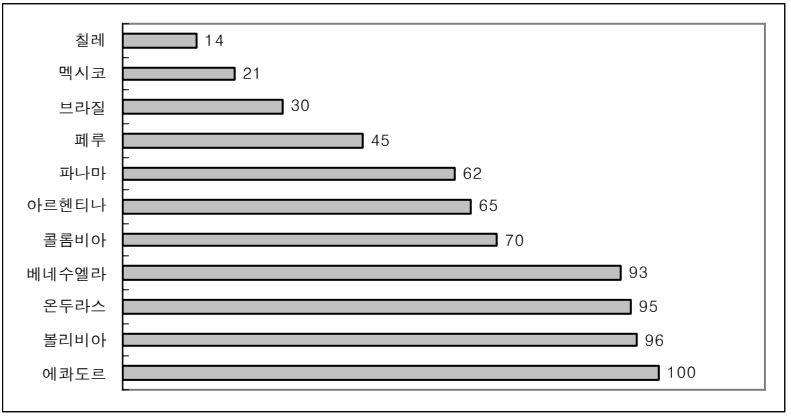
바) 정치적 안정 및 치안 안전

1990년대 이후 중남미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안정성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로 빈곤이 심화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반시장(反市場), 반미(反美) 기치를 내건 좌파 성향의 정부가 속속 등장하며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군이다. 그에 반해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페루도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좌파 정권의

집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정치적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고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의 이득이 빈곤층과 농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음에 따른 불만을 현 정부가 어떻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부가 향후 페루 정치 안정의 주요 변수일 것이다.

그림 Ⅲ-30 정치적 안정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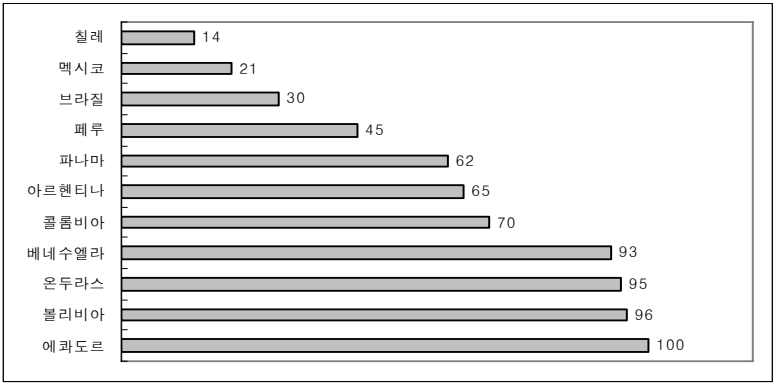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중남미 각국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데다 청년 실업률이 높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직업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정도가 비교적 치안이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밖에 페루를 위시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이다.

그림 Ⅲ-31 치안 안전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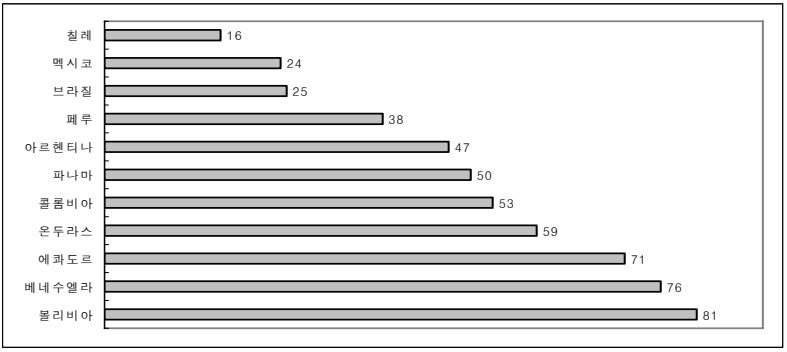
사) 노동규정·고용협약 및 노동력(숙련 노동력) 이용의 수월성

중남미 지역은 전통적으로 예외 없이 노조의 세력이 강하고 노동법이 발전해 있다. 특히 최근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득세하고 있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에서 노동규정과 고용협약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실제로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에 반해 페루를 포함한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노동규정과 고용협약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비해 유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Ⅲ-32 노동규정 · 고용협약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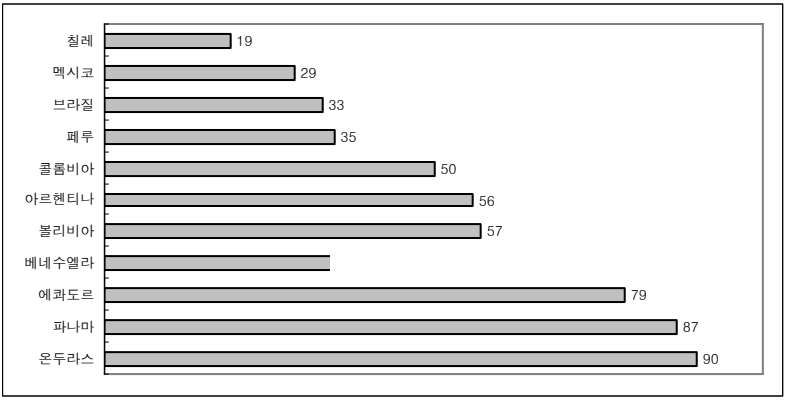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도 열악하다. 따라서 중남미 각국에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숙련 노동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광산개발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에서 숙련 노동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페루를 위시해 칠레,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숙련 노동력 확보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3 노동력(숙련 노동력) 이용의 수월성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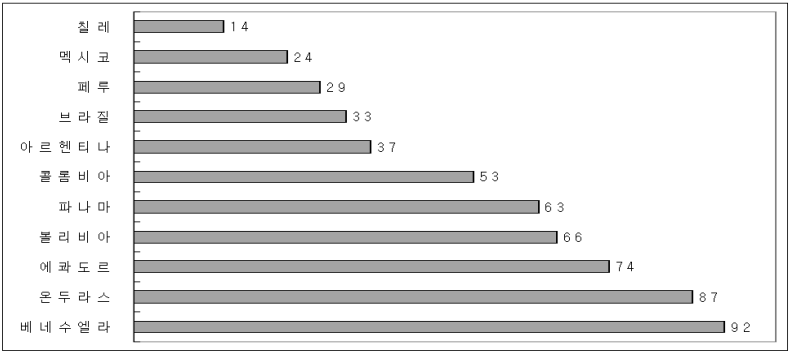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아) 지질 데이터베이스(정보접근의 용이성, 지도의 품질 및 축적 등)

중남미 국가 중 페루는 비교적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지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페루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광물개발 투자대상국으로 각광을 받아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페루 이외에 전통적인 광물부국인 칠레와 멕시코의 지질 데이터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Ⅲ-34 지질 데이터의 우수성 및 신뢰성

(단위: 0=투자 장애 낮음, 100=투자 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20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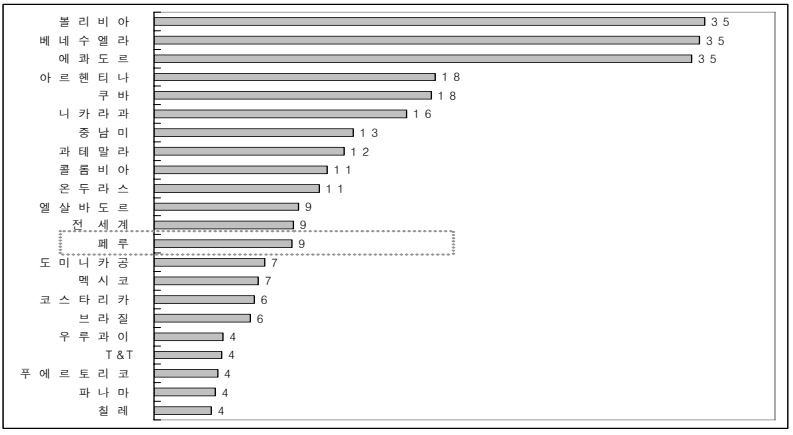
나. 에너지산업

1) 전체 진출 환경

페루의 석유개발 진출 리스크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 Global Insight의 국별 석유개발 리스크 평가에서 페루의 위험도는 중남미 평균을 크게 밑돌며 세계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중남미 주요 산유국 중에서는 T&T, 멕시코, 브라질의 석유개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리스크는 중남미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등 매

그림 Ⅲ-35 페루 석유개발 단기 리스크 비교(2009년 3분기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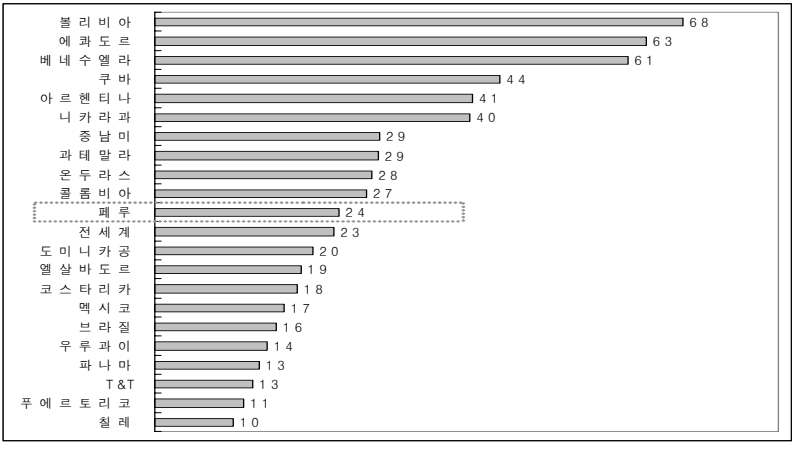
(단위: 0=낮음, 100=높음)



자료: Global Insight.

그림 Ⅲ-36 페루 석유개발 중기 리스크 비교(2009년 3분기 현재)

(단위: 0=낮음, 100=높음)



자료: Global Insight.

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석유산업 개방도(국내 석유생산 중 외국기업의 생산비중) 측면에서 볼 때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국가이다. 2007년 기준으로 페루에서 석유생산은 거의 100% 외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소재 자원조사 기관인 Fraser Institute가 현지 진출 다국적 석유기업들의 설문조사(Global Petroleum Survey 2008)를 토대로 한 평가에 따르면 페루의 석유개발 진출 환경은 하위권(전체 34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11위), T&T(13위), 브라질(16위), 콜롬비아(19위) 등의 순으로 석유개발 투자진출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41위), 베네수엘라(45위), 에콰도르(46위), 볼리비아(47위) 등의 투자진출 환경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열악한 국가군에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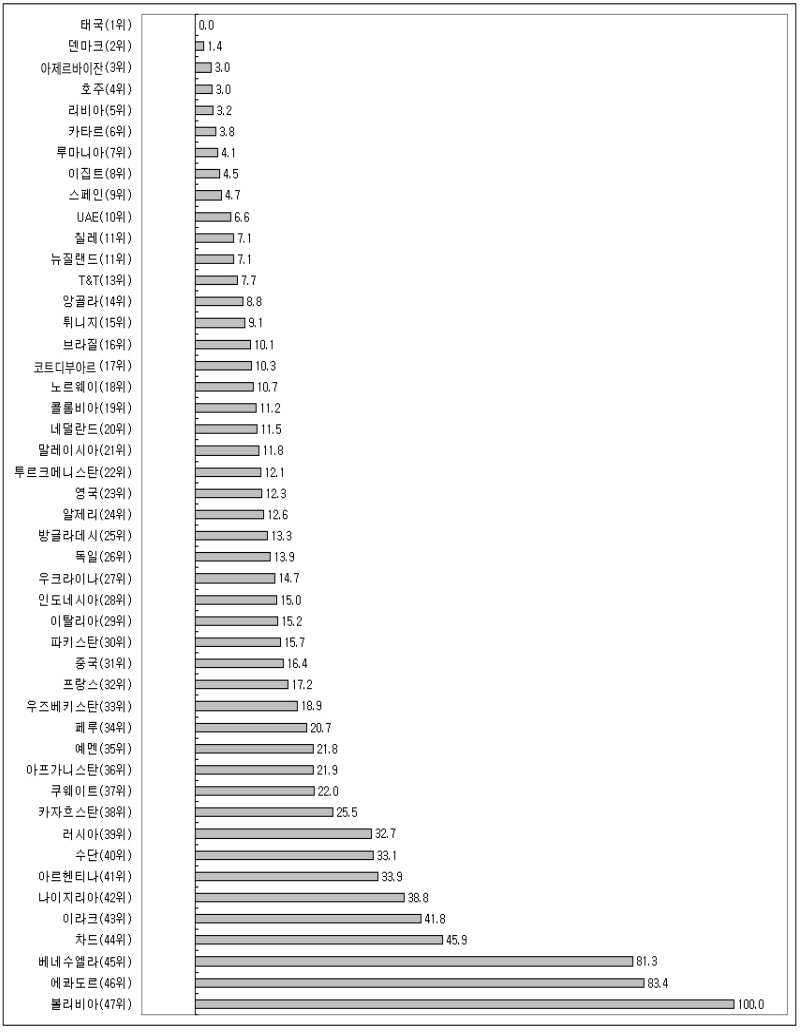
2) 요소별 진출 환경[5]

페루 석유부문에 대한 요소별 진출 환경을 살펴보면 재정조건(로열티 지급, 생산물 분배 및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정부의 강제

5) Fraser Institute, Global Petroleum Survey 2008을 토대로 작성.

그림 Ⅲ-37 전 세계 국가들의 석유개발부문 진출 환경 비교

(단위: 0=매우 양호, 100= 매우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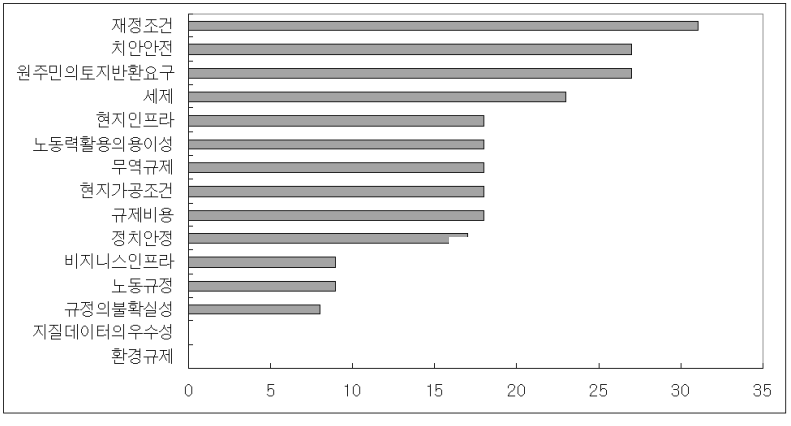


자료: Fraser Institute 자료 재정리(Global Petroleum Survey 2008).

적인 요구)이 가장 큰 투자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 밖에 치안 안전, 원주민의 토지반환 요구, 복잡하고 과도한 세금, 열악한 인프라 상황 등이 페루 석유개발 진출 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로 지적되었다.

그림 Ⅲ-38 페루 석유개발의 요소별 진출 환경

(단위: 0=투자장애 낮음, 100=투자장애 높음)



자료: Fraser Institute 자료 재정리(Global Petroleum Survey 2008).

5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광업

1) 진출 현황

페루는 현재 중남미 국가 중 세계 25대 메이저 광물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중남미에는 현재 이들 기업 중 12개사가 진출, 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나라별로는 페루가 12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칠레 6개, 브라질 3개, 멕시코 2개 순이다.

표 III-27 세계 25대 메이저 광물업체들의 중남미 광물탐사 현황

국가	회사	페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쿠바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호주	BHP Billiton	◎					◎	◎	
캐나다	Barrick Gold	◎	◎						
	Teck Cominco	◎	◎		◎				
멕시코	Grupo Mexico	◎							
폴란드	Gold Fields	◎							
남아공	Anglogold Ashanti	◎							
스위스	Xstrata	◎	◎	◎	◎	◎			
영국	Rio Tinto	◎							
	Antofagasta	◎	◎						
	Anglo American	◎	◎	◎					◎
미국	Phelps Dodge	◎	◎						
	Newmont Mining	◎		◎					
진출업체 수		12	6	3	2	1	1	1	1

자료: UNCTAD(2007).

또한 현재 중남미 지역에는 세계 25대 광물메이저 중 14개사가 진출, 광물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별로는 페루가 8개사로 가장 많고, 칠레(7개), 아르헨티나(4개)와 브라질(4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 III-28 세계 25대 메이저 광물업체들의 중남미 광물 생산 현황

국가	기업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자메이카	도미니카공	수리남	베네수엘라
호주	BHP Billiton	◎	◎		◎				◎	
캐나다	Falconbridge	◎	◎				◎	◎		
	Barrick Gold	◎		◎						
	Teck Cominco	◎								
멕시코	Grupo Mexico	◎								
러시아	Placer Dome		◎							
남아공	Anglogold Ashanti			◎	◎					
	Glencore International	◎		◎						
스위스	Xstrata			◎						
영국	Rio Tinto		◎		◎					
	Anglo American		◎		◎					◎
	Antofagasta		◎							
미국	Phelps Dodge	◎	◎							
	Newmont Mining	◎				◎				
진출업체 수		8	7	4	4	1	1	1	1	1

자료: UNCTAD(2007).

광종별로 외국기업의 진출은 동광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다. 동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으로는 Grupo Mexico,

Phelps Dodge, BHP Billition, Xstrata, Mitsubishi, Sumitomo 등이 대표적이다. 금광 개발에는 Newmont Mining, Barrick Gold Corp 사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표 III-29 페루 진출 광물기업의 주요 현황

기업 명	소유주	광종	진출 위치
Sounther Copper	Grupo Mexico, Marmon Corp, Phelps Dodge Overseas Capital Corp	동	Cuajone Mine, Mosquegua; Toquepala Mine; Tacna; Ilo 제련소, Mosquegua; Ilo 정유공장, Mosquegua
Compania Minera Antamina SA	BHP Billiton, Xstrata, Teck Cominco, Mitsubishi	동, 아연	Antamina Mine, Huari, Ancash
BHP Billiton Tintaya SA	BHP Billiton, Xstrata	동	Tintaya Mine, Cusco
Sociedad Minera Cerro Verde	Phelps Dodge, Sumitomo, Metal Mining Co, 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	동	Cerro Verde, Arequipa
Minera Yanacocha	Newmont Mining, 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 World Bank/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금	Ynacocha, La Quinua, MaquiMaqui Mines, Cajamarca
Minera Barrick Misquichilca	Barrick Gold Corp	금	Pierina, Cajamarca & Lagunas Norte, Alto Chicama

표 III-29 계속

기업 명	소유주	광종	진출 위치
Doe Run Peru	Doe Run Peru SR Ltda.	은, 납	La Oroya, Junin
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	Compania de Minas Buenaventura	은	Julcani & Huachocolpa Mines; Huancavelica; Uchucchacua Mine, Lima; Orcopama Mine, Arequipa
Sociedad Minera Corona	Sociedad Minera Corona SA	은	Hualgayoc, Cajamarca
Compania Minas Arcata	Compania Minas Arcat SA	은	Arcata, Arequipa
Minera Nor Peru	Pan American Silver Corp	은	Quiruvilca, La Libertad
Volcan Compania Minera	Volcan Compania Minera SAA	아연	Cerro Pasco, San Cristobal, Mahr Tunel, Andaychagua, Junin

자료: BMI(2009).

2) 주요 진출사례

가) 중국기업

페루 광산개발에는 중국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다. 현재 페루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기업으로는 Minmetals, Chinalco (Aluminum Corporation of China), Shougang, Zijing Mining Group 등이 있다. 페루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중국기업들의 총 투자규모는 7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Minmetals[6]는 금과 동 프로젝트에 향후 2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연간 동 생산량은 14만 4,000톤, 금 생산량은 8만 2,300온스에 이를 전망이다. Shougang은 현재 Ica의 Marcona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굴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Zijing Mining Group은 2007년 2월 Piura에 위치한 Rio Blanco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Monterrico Metals(영국계)를 1억 8,6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그룹은 2007년 9월에 보유 주식 89.9% 중 10%를 한국의 LS-Nikko에 약 2,000만 달러에 매각했다.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Rio Blanco 광산 프로젝트에 약 14억 4,00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 광산의 연간 생산량은 22만 톤으로 빠르면 2011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광산개발 반대 운동으로 현재 활동이 중단 상태이다. 한편 Zijing Mining Group은 2008년 말에 에콰도르 국경 부근의 35광구(2만 8,000 헥타르)를 취득했다.

Chinalco사는 2007년 6월 Toromocho 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Peru Copper사(캐나다)를 7억 9,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2009년부터 개발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

6) 중국의 공기업으로 중국계 Jinagxi Copper와 합작기업이다.

며, 총 투자금액은 21억 5,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Eximbank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조업기간은 총 30년으로 최초 10년간 동 생산 규모는 1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나) DOE RUN PERU S.R.L.- LA OROYA

페루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1997년 Doe Run Company는 국영 La Oroya 금속 복합시설을 2억 4,7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 복합시설은 1922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복합 금속으로부터 구리, 아연, 은, 납, 금 등 10개의 금속을 분리하는 용해·제련 복합체이다. 2008년 Doe Run사는 12억 달러의 매출에 9,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09년에는 환경보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운영위기에 처해 있다.

Doe Run이 La Oroya 복합시설을 매입할 당시 페루 정부와 환경적정화프로그램(PAMA: Programa de Adecuaciony Manejo Ambiental)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Doe Run사는 매입한 당시로부터 10년 안에 주위 환경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시설에는 유해 가스, 오수 방출 감축 시설, 정화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2007년 Blacksmith Institute에 따르면 La Oroya 복합 시설은 세계

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10개의 공장 중 하나이다. La Oroya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 출신 어린이들의 혈액에는 1dl당 21마이크로그램(microgram)의 납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어린 아이들의 혈액에서는 65마이크로그램의 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제보건기구가 허용하는 최고 수치 10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문제까지 겹치자 Doe Run사는 La Oroya 공장의 운영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Doe Run사의 공장 가동 중지 조치는 실제로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환경적정화프로그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7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La Oroya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이는 페루 정부에게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고려한 행동이었다.

페루 정부는 기한 내에 예정된 투자(1억 5,500만 달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Doe Run사는 이행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Doe Run사가 상습적으로 기한 연장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페루 정부가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나. 에너지산업

1) 진출 현황

페루에서 국영석유회사인 Perupetro사는 상류부문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류부문에서만 활동하고 있다. 2008년 석유생산 기준으로 볼 때, 아르헨티나계의 Pluspetro Peru사가 41%의 시장점유율로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국계 Sapet Development(28%), 브라질계 Petrobras Energia(12%) 순이다. 천연가스 생산부문에서도 Pluspetro Peru사가 50%의 시장점유율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계 Maple Gas사(25%)가 잇고 있다.

표 III-30 페루 상류부문의 주요 진출기업

기업 명	석유		가스	
	생산 (천 bpd)	시장점유율 (%)	생산 (십억 m^3)	시장점유율 (%)
Pluspetro Peru	49	41	0.8	50
Sapet Development	33	28	–	–
Petrobras Energia	14	12	0.12	6
Petro-Tech	12	10	0.05	3
Maple Gas	0.5	0.4	0.4	25

자료: BMI(2008 and 2009).

하류부문, 특히 정제부문에서는 Pluspetro Peru사와 RepsolYPF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표 III-31 페루 하류부문의 주요 진출기업

기업 명	정제		판매	
	정제능력 (천 bpd)	시장점유율 (%)	판매능력	시장점유율
Pluspetro Peru	88	46	0	0
RepsolYPF	102	53	222	–

자료: BMI(2009).

주요 진출기업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Sapet) 및 한국(SK Corporation)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유럽기업 중에서는 스페인계 기업인 RepsolYPF사의 진출이 단연 두드러진다. 미국기업 중에서는 Hunt Oil사와 Maple Gas사의 진출이 두드러지며 중남미기업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Pluspetrol과 브라질 국영기업인 Petrobras의 진출이 눈에 띈다.

LNG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한 외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2006년 1월 RepsolYPF와 Hunt Oil사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22억 달러 규모의 LNG 공장 건설을 개시했다. RepsolYPF는 여기서 생산될 LNG를 미국 서부 해안지역과 멕시코에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표 Ⅲ-32 주요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기업 명	주요 진출 활동
Sapet (중국)	– 중국 국영석유회사 CNPC의 자회사로 페루의 최대 석유생산업체 – 페루 북부 해안에 위치한 6광구(Block 6)와 7광구(Block 7)에서 활동 – 2004년 1월에 Pluspetrol Norte사의 지분 45%를 인수
RepsolYPF (스페인)	– 1일 10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갖고 있는 La Pampilla 정유공장의 지분 60% 소유 – 최근에는 5개 석유탐사 광구에도 참여 – 202개 주유소 보유 – 페루에서 가장 많은 LPG 주유소 보유 – Peru LNG 프로젝트에도 참여
Maple Gas (미국)	– Aguaytia 가스·전력 프로젝트 지분 보유 – Maquia와 Agua Caliente 유전에서 활동 – Pucallpa 정유소와 30년 장기리스계약 체결
Pluspetrol (아르헨티나)	– 페루의 대표적인 석유생산기업 – 카미세아 가스 프로젝트 상류부문 지분 26% 보유 – 카미세아 가스 프로젝트 수송부문 지분 22% 보유
Hunt Oil (미국)	– 카미세아 가스 프로젝트 상류부문 지분 36% 보유, 수송부문 지분 22% 보유 – 페루 LNG 수출 프로젝트 주도
SK Corporation (한국)	– 카미세아 가스 프로젝트 상류부문 지분 36% 보유, 하류부문 지분 11% 보유 – Camisea LNG 수출 프로젝트 투자
Petrobras (브라질)	– 생산광구 1개와 8개 탐사광구 참여

자료: BMI(2009).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가스를 활용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2007년 10월 미국

계 Terra Industries사와 Orica사는 10억 달러를 투자, 암모니아와 요소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브라질의 국영석유회사인 Petrobras사와 프랑스의 Suez사도 13억 달러를 투자해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2) 주요 진출사례

가) SK의 Camisea 액화 가스

SK는 1996년에 제8 석유광구를 매입한 이후, Camisea 프로젝트인 88광구 및 56광구의 가스수송, 가스액화공장 건설 등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III-33 SK의 페루 에너지산업 참여 현황

프로젝트명	8광구	88광구	TgP	56광구	천연가스 액화공장	Z-46광구
프로젝트	오일광구	가스광구	가스수송	가스광구	천연가스 액화공장	오일광구
SK지분	8.30%	17.60%	11.20%	17.60%	20.00%	100%
상황	1996년 부터 개시	2004년 부터 개시	2004년 부터 개시	2008년 부터 개시	건설 중	건설 중
개시	1996. 7월	2000. 12월	2000. 12월	2004. 9월	2003. 2월	2007. 11월
종료	2024. 5월	2040. 12월	2033. 12월	2044. 9월	2028. 7월	2015. 1월

자료: SK.

(1) 88광구 및 56광구 개발 참여

SK는 2000년 12월 88광구 및 56광구에 컨소시엄의 일부로 참여하였다. SK의 지분율은 17.6%로 Pluspetrol(27.2%), Hunt(25.2%)에 이어 세 번째이다. 두 광구에서 가스 생산은 2004년 8월과 9월부터 개시되었다.

표 III-34 SK 이외 기업들의 Camisea 프로젝트 참여(88, 56광구)

참여회사	Pluspetrol	Hunt	SK	Sonatrach	Tecpetrol	Repsol
참여지분	27.20%	25.20%	17.60%	10.00%	10.00%	10.00%

자료: SK.

(2) TgP 가스수송관

SK는 2000년 말 TgP 가스수송관 사업에 Techint가 주도한 컨소시엄의 일원(11.19%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TgP 가스수송관은 2004년 8월부터 운용을 개시했으며 현재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가스관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표 III-35 SK외 기업들의 TgP 가스수송관 프로젝트 참여 현황

참여회사	Techint	Hunt	Sonatrach	Pluspetrol	SK	Suez	G&M
참여지분	23.60%	22.38%	21.18%	12.38%	11.19%	8.07%	1.20%

자료: SK.

나) 리마와 그 외 도시로의 가스 공급

Calidda사는 20년간(2004~2024년) 리마와 Callao 지역의 가스 단독 공급을 양허받았다. Calidda사는 2010년 가스 공급망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6,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급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Calidda사는 2009년 4월에는 Ica시의 가스공급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다.

Calidda사는 가스공급망을 확장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총 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Chilca 화력발전을 위해 가스를 주로 소비하는 두 전력회사(Kallpa와 Enersur)가 공급 비용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였다.

표 III-36 2009~2013년 Calidda사의 가스 공급 투자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투자액	60.56	94.12	78.45	27.57	9.95	270.65

자료: Calidda.

Arequipa, Tacna, Puno, Moquegua, Cuzco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장조사는 2010년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남부지방의 가스 수송은 KUNTUR社가 맡을 예정이다.

2008년 4월 실시된 Ica 지방 가스 공급 입찰에는 Suez Energy

와 Grana y Montero 컨소시엄, Promigas S.A.ESP., EEB-TGI 컨소시엄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경쟁하였다. 경쟁 입찰은 공사구간을 가장 많이 제의하고 페루의 참여 지분이 많은 회사가 낙찰받았다.

표 III-37 ICA 지방 가스 공급 입찰 현황

구분	공사 구간	현재 연결가치	페루 참여	최종 점수
EEB-TGI 컨소시엄	50,000	44,425	0.51	110.20
Promigas S.A.	50,000	38,432	0.51	104.77
Suez-Grana & Montero 컨소시엄	48,000	32,536	0.51	88.70

페루 민간투자진흥청(ProInversion)은 EEB-TGI 컨소시엄을 공급자로 최종 낙찰하여 2009년 3월 7일에 계약을 마쳤다. 2011년부터 Ica의 Pisco, Ica, Nazca, Marcona에 가스 수송 및 공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EEB-TGI 컨소시엄은 가스수송과 배급망에 1억 3,600만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가스 소비량에 따라 최종투자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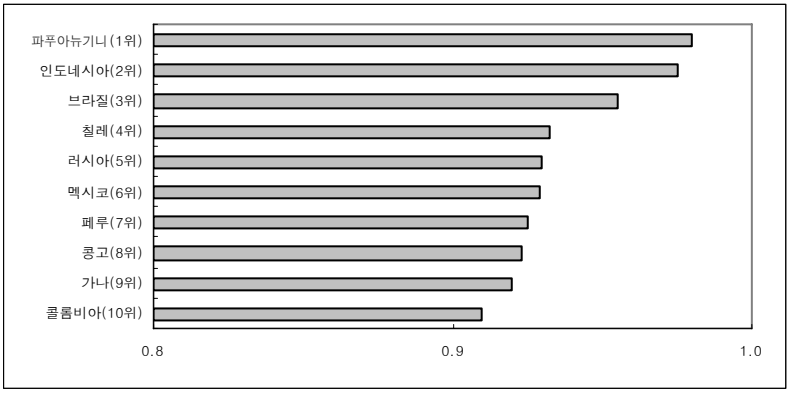
6

향후 성장잠재력

페루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추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쇄도, 광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페루 광물개발의 높은 잠재력은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캐나다에 위치한 자원조사 전문기관인 Fraser Institute가 최근 4년(2004/05~2007/08)간 세계 각국(전 세계 비교대상 38개국 중)의 광물개발 잠재력을 평가한 결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 페루는 7위를 차지했다.

그림 Ⅲ-39 전 세계 주요 광물국의 잠재력 순위(4년 평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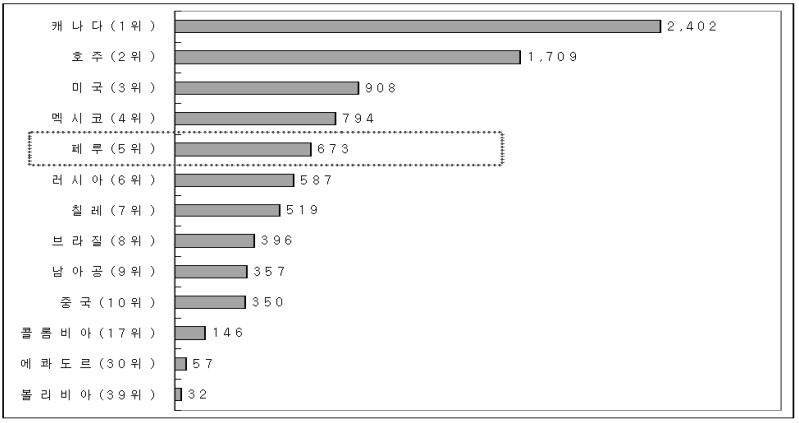
주: 척도 1= 잠재력 매우 높음, 0 = 잠재력 매우 낮음.
자료: Fraser Institute, Survey of Mining Companies: 2004/2005-2007/2008을 토대로 필자 작성.

또한 페루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비철금속 탐사 대상국 중 하나이다. 2008년 기준으로 페루는 캐나다, 호주, 미국, 멕시코에 이어 다섯 번째로 활발한 광물탐사가 이루어지는 국가이다.[7] 페루에 대한 광물탐사 투자규모는 최근 5년간 약 7배가 확대, 2008년에는 6.73억 달러(세계 5위, 남미 1위)에 달했다.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페루의 1/10 수준이다.

7) 캐나다의 Metals Economics Group에 따르면 세계의 탐광개발투자(초기탐광 ~ F/S)는 2003년 이후 금속시황의 회복, 고가격에 힘입어 대폭 증가했다. 2007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 2008년에는 132억 달러에 달했다.

그림 Ⅲ-40 세계 10대 비철금속 탐사 대상국(2008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Metals Economics Group.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자원개발시장으로 페루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는 다른 신흥 석유개발시장에 비해 자원개발의 역사가 길고 관련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제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루 자원개발시장은 일부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그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매력이다. 대표적으로 SK에너지의 경우 페루 에너지 상하류 부문 모두에 성공적으로 진출, 그 경험을 토대로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로 진출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내 중소 자원개

발업체로는 유일하게 골든오일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에서 성공적으로 광구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2월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사상 최초로 콜롬비아석유공사와 손잡고 페루의 민간석유회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국내 사상 최대의 외국회사 인수합병(M&A)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다양한 성공 경험은 후발기업들이 중남미 자원개발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Ⅳ

IT산업

1 / 산업개황

2 / 주요 육성정책

3 / 시장 현황 및 구조

4 /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 향후 성장잠재력

1

산업개황

페루의 전화보급률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유선전화 가입 비율도 소득격차를 반영해 지역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의 89%가 빈곤선상에 있는 우앙카벨리카(Huancavelica) 산악지역의 경우 전화보급률은 0.83%에 불과하다. 페루 정부는 농촌 통신사업자 지원기금(FITEL)을 통해 통신격차(telecom divide) 해소를 위해 주력해오고 있다.

페루 IT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 및 중남미 국가 중에서 중하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페루는 EIU,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e-비즈니스준비도, 네트워크준비지수에서 전 세계 국가 중 중하위

표 Ⅳ-1 페루의 IT 및 통신(ICT)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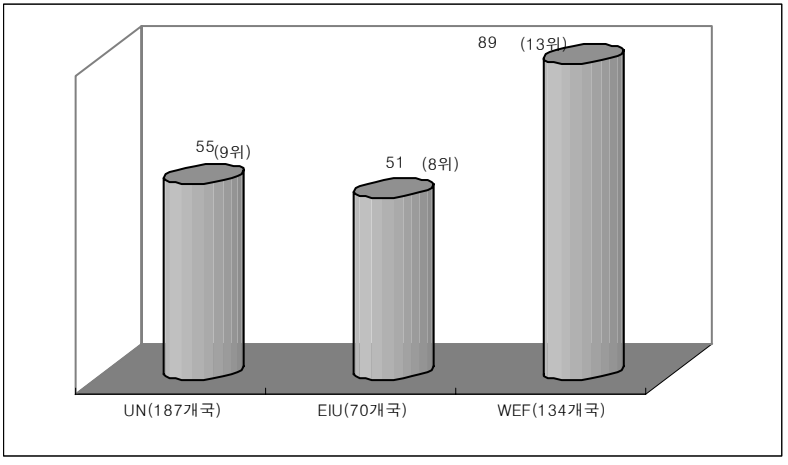
구분	항목	통계
통신네트워크 (2008년)	총 유선전화 대수	281만 회선
	유선전화밀도(보급률)[8]	9.7%
	공공유료전화 대수	16만 6,000대
	주요 통신운영자	Telefonica del Peru, Telmex Peru, Americatel
인터넷 사용자 (2008년)	인터넷 사용자 수	940만 명
	인터넷 보급률[9]	32.4%
브로드밴드 (2008년)	총 가입자수	70만 4,000명
	ADSL 가입자수	67만 5,8040명
	케이블 모뎀 가입자 수	1만 3,376명
	브로드밴드 보급률[10]	2.4%
무선전화 (2008년)	가입자 수	1,845만명
	연간성장률	64%
	보급률[11]	63.3%
	주요 사업자	Movistar Peru(Telefonica) Claro(America Movil) Nextel
국가통신감독기관	Osiptel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8) 100명당 유선전화 보급률 기준, 이하 동일.
9) 100명당 인터넷 보급률 기준, 이하 동일.
10) 100명당 브로드밴드 보급률 기준, 이하 동일.
11) 100명당 무선전화 보급률 기준, 이하 동일.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에 반해 페루는 2008년 UN이 발표한 전자정부준비지수에서 182개국 중 55위를 기록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Ⅳ-1 페루 정보화 수준 순위



주: ( )는 중남미 국가 중 순위
자료: 1. 전자정부준비지수: UN,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8"
2. e-비즈니스준비도: EIU, "The 2008 e-Readiness Rankings"
3. 네트워크준비지수: WEF, "2008-2009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8년 현재 페루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940만 명이다. 인터넷 사용자 면에서 볼 때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이어 다섯 번째다. 대체로 중남미에서 인터넷 사용자 수의 크기는 인구의 규모에 비례한다.

표 Ⅳ-2 중남미 10대 인터넷 사용 국가(2008년)

국가	사용자 수(백만 명)	증가율(전년비, %)	보급률(%)
브라질	50.1	11	26.0
멕시코	24.7	6	24.0
아르헨티나	20.0	25	50.3
콜롬비아	17.0	40	35.4
페루	9.4	23	32.4
칠레	8.0	8	47.3
베네수엘라	6.7	27	24.2
도미니카(공)	2.3	40	24.8
코스타리카	1.8	20	39.6
자메이카	1.7	12	60.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인터넷 보급률 기준으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자메이카,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콜롬비아에 이어 7번째에 해당한다.

2008년 현재 페루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74만 2,000명으로 보급률은 2.5%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8.7%), 칠레(8.6%), 멕시코(6.5%), 브라질(5.3%)에 비하면 아직까지 크게 낮은 상황이다.

표 IV-3 중남미 10대 인터넷 보급률 국가(2008년)

국가	사용자수(백만 명)	증가율	보급률(%)
자메이카	1.7	12	60.0
아르헨티나	20.0	25	50.3
칠레	8.0	8	47.3
코스타리카	1.8	20	39.6
우루과이	1.3	37	39.5
콜롬비아	17.0	40	35.4
페루	9.4	23	32.4
푸에르토리코	1.2	10	30.0
브라질	50.1	11	26.0
가이아나	0.2	5	25.9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표 IV-4 중남미 국가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2007	2008	증가율	보급률
아르헨티나	2,557	3,444	35	8.7
브라질	7,718	10,197	32	5.3
칠레	1,312	1,447	10	8.6
콜롬비아	1,207	1,982	64	4.1
멕시코	4,545	6,900	52	6.5
페루	589	742	26	2.5
베네수엘라	858	1,277	49	4.4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2

주요 육성정책

페루 정부는 1994년부터 통신산업 민영화를 개시한 데 이어 1998년에는 통신시장을 완전 개방하였다.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전제로 한 외국인투자법을 도입해 통신시장을 전면 개방, 외국인투자를 통해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확장 등 기간산업도 외국인투자 유치 등 민영화를 통해 민간업체 간 자유경쟁을 유도,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1994년에 농촌 및 소외지역 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신투자기금(FITEL)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통신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익의 1%로 조성되며, 교통통신부(MCT)가 기금의 관리를 맡고 있다. 최근 이 기금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사업(Band Ancha Rural, 일명 BAR)을

들 수 있다. 고립지역 브로드밴드 보급프로젝트의 경우 2009년 3월 실시된 입찰에서 Telefonical del Peru(이하 TdP)가 입찰권을 획득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4,56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11년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1,019개 농촌 마을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게 되며 3,010개 지역에 공중전화, 497개 지역이 가정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상자 3 FITEL의 브로드밴드 프로젝트

- 1단계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사업<Banda Ancha Rural(BAR Ⅰ)>: Rural Telecom이 2007년 7월에 입찰권을 획득. FITEL은 이 프로젝트에 88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BAR 1의 목적은 페루 중부, 중북부,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1,928개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임. 2008년 9월 현재 669개 지역에 1,904대의 컴퓨터와 361대의 공공전화 설치.
- 2단계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보급사업<Banda Ancha Rural(BAR Ⅱ)>: 2007년 7월에 Consorcio Trebol Informatica사와 Itaca Peru사의 컨소시엄이 입찰권을 획득했으나 본 계약 체결에 실패. 2007년 11월에 입찰이 취소, 2009년 2분기 재입찰 실시. FITEL은 이 프로젝트에 1,36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페루 중남부, 북부 및 남부 지역 2,120개 지방에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농촌지역 브로드밴드 서비스프로그램(Internet Rural): 2008년 8월 입찰에서 캐나다와 페루회사 간 컨소시엄(Ameritel-Cime-Valtron)이 낙찰. 110만 명의 주민, 1,050개 농촌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1,150만 달러 금융지원 제공, 이 중 940만 달러는 통신부(MTC),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
- 고립지역 브로드밴드 보급프로젝트(BAS: Banda Ancha para Localidades Aisladas): 2009년 1분기 프로젝트 입찰 실시. 보조급 지급규모는 4,560만 달러. 160만 명의 주민, 3,852개 지역에 브로드밴드 서비스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페루 정부는 또한 1995년에 도시 곳곳에 공중 PC방(cabinas publicas)을 설치해 일반 대중의 인터넷 사용을 장려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공중 PC방은 인터넷 서비스 이외도 VoIP 기술을 활용한 국제전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글상자 4 공중 PC방(Cabinsa Publicas)

페루의 주요 도시 곳곳에는 cabinas publicas라 불리는 공중 PC방이 설치되어 있다. 공중 PC방은 1995년 페루 과학네트워크(Red Cientifica Peruana)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페루에서 공중 PC방은 모든 도시와 농촌 마을에서도 발견된다. 공중 PC방은 컴퓨터, 인터넷 접속, 비즈니스 서비스, VoIP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보통 사이버카페라고도 불리나 전통적인 사이버카페와 다른 점은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공중 PC방은 한두 개의 ADSL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된 10대에서 20대의 컴퓨터가 있다. 공중 PC방(cabinas publicas)은 인터넷사용 접근 서비스 이외에도 VoIP 기술을 이용한 국제전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공중 PC방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인터넷 사용 요금이 크게 낮아졌다. 현재 공중 PC방의 인터넷 사용 요금(시간당 0.33달러)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PC방 간의 경쟁 심화로 일부 지방에서는 많은 PC방들이 사업을 접는 경우가 속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6년 공중 PC방 수는 2005년에 비해 14%가 줄어들기도 했다.

페루에서 공중 PC방은 인터넷에 접속할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 특히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9월 페루통계청(INEI)의 조사에 따르면 공중 PC방 사용의 절반 이상이 12~24세의 청소년이었다.

글상자 4 계속

표 공중 PC방 증가 추이

연도	공중 PC방 수	증가율(%)
2000	1,371	229
2001	1,972	44
2002	2,904	47
2003	10,785	271
2004	17,629	63
2005	33,635	91
2006	28,975	−14
2007	52,546	81

페루 정부는 2005년 3월부터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국민에게 절반 가격으로 PC를 제공하는 PC보급프로그램(PC Peru Program)을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페루 정부는 2007년 말부터 교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PC를 제공하는 21세기 교사프로그램(Teachers of the 21st Century Programme)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페루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 육성, 2008년 2,000만 달러이던 소프트웨어 수출을 2012년까지 1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페루 정부는 최근에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IT 관련 제품의 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였다.[12)]

페루 정부의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은 공공분야 디지털 계획

12) HS84, HS85 제품의 관세는 0%이다.

으로 알려진 정보화사회개발계획(Plan de Dasarrollo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on)이다. 2006년 발표된 이 계획의 5대 목표는 ① 정보화사회 개발에 적합한 IT 인프라 확보, ② 정보화사회 접근을 위한 교육개발 촉진, ③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④ 생산분야 지원을 위한 IT개발응용 서비스, 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으로 대별된다.

글상자 5 정보화사회개발계획의 5대 목표 및 주요 정책

□ 5대 목표

① 정보화사회 개발에 적합한 IT 인프라 확보
- 농촌지역 인터넷 및 와이드밴드 설치
- 위성 와이드밴드 설치

② 정보화사회 접근을 위한 교육개발 촉진
- 공공분야 교육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IT교육 실시
- 디지털 교육 실시

③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④ 생산분야 지원을 위한 IT개발응용 서비스

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와의 상호 연계 강화

□ 주요 정책

- 공공기관 온라인정보 접근
- 공공행정 효율화 및 투명화를 통한 개선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인프라 촉진을 위한 전자정부 추진
- IT소외인구에 대한 교육
- 민간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신기술 사용능력 배양

글상자 5 계속

ㅇ 정보통신기술 도입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혁신 가속화, 이를 통해 민간인 및 기업계 지원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ㅇ 전자정부 계획 추진에 핵심적인 시스템 및 기관 통합을 위한 전략프로젝트 개발

- 전자정부조달 시스템(SEACE) 개발 실시
- 전자신분증(DNI Eletronico) 개발
- 전자인증 개발을 통한 참여정치 및 민주사회 구현

ㅇ IT기술을 통한 정보화사회 구현 및 공공행정 효율화·투명화

ㅇ 소외계층 전자정부 및 정보화사회 개발을 위한 IT 인프라 조성

ㅇ 남녀노소 불문 IT 접근 능력 강화 및 정보화사회 적응력 확대

3

시장현황 및 구조

가. 인터넷 시장

1) 인터넷 시장

페루의 인터넷 보급률은 중남미 평균에 비해 8%가 높다.

페루가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보급에 성공한 요인은 공중 PC방(cabinas publicas)의 확산에 힘입은 바 크다. 사실 페루는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사용자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 2008년 3분기 페루 통계청이 조사한 설

문에 따르면 페루 인터넷 사용의 특징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응답자의 68.5%가 공중 PC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도 23%에 달했는데, 이는 2007년 조사 수치 18.2%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에서 인터넷 접속 비중은 13.4%로 나타났다. 학교와 대학교에서 인터넷 접속 비중은 7.2%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비중 8.6%보다 낮은 것이다.

아직까지 페루에서 컴퓨터 보급률은 높지 않다. 페루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페루 가정의 18.2%만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일례로 페루 수도인 리마의 컴퓨터 보급률은 34.6%에 달한다. 그에 반해 농촌지역의 컴퓨터 보급률은 1.4%에 불과하다.

컴퓨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5년 3월 페루 정부는 'PC Peru Program(Programa PC Peru)'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절반 가격으로 PC를 보급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첫 단계로 인텔사와 합작으로 14만 대의 PC를 보급했다.

Americatel, EC-red, Naveganas 등 소수의 ISP가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은행과 기업체들도 무료 인터넷 서

비스에 참여했다. 페루의 최대 은행인 Banco de Credito는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서비스인 ViaBCP를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2008년 9월 현재 ISP 등록업체 수는 120개에 달한다. 이 중에서 6개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표 IV-5 페루 인터넷 보급률 현황

연도	사용자 수(천 명)	연간 증가율(%)	보급률(%)
1997	100	67	0.4
1998	300	200	1.2
1999	500	67	2.0
2000	800	60	3.1
2001	2,000	150	7.6
2002	2,400	20	9.0
2003	2,850	19	10.5
2004	3,220	13	11.7
2005	4,600	43	16.5
2006	6,498	41	22.9
2007	7,636	18	26.6
2008	9,400	23	32.4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2) 브로드밴드 시장

인터넷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브로드밴드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01~2008년 기간 연평균 750%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가입자 수는 1만 4,000명에서 70만 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 현재 페루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4%로 중남미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이다.

페루 정부는 2011년까지 적어도 100만 명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페루 정부는 서비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농촌지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2008년 3월 Osiptel은 TdP가 ADSL 인프라를 사용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91%까지 삭감토록 명령했다. 이 판결에 따라 소규모 브로드밴드 제공업자들의 시장 진입, 특히 농촌지역과 소외지역 시장 진입이 쉬워졌다.

표 Ⅳ-6 페루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

연도	가입자 수(천 명)	증가율(%)	보급률(%)
1999	1	–	0.0
2000	4	300	0.0
2001	14	250	0.1
2002	42	200	0.2
2003	97	131	0.4
2004	215	122	0.8
2005	350	63	1.3
2006	479	37	1.7
2007	589	23	2.0
2008	704	26	2.4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페루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ADSL이 주도(전체의 96%)하고 있으며 케이블 모뎀의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ADSL 서비스는 TdP가 독점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TdP ADSL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수준이다. 일부 업체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ADS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페루에서 유일하게 TdP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는 Telmex이다. Telmex는 2008년 6월 리마에서 케이블 TV, 브로드밴드, 전화를 포함한 3중 서비스를 개시했다.

표 Ⅳ-7 기술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연도	ADSL	케이블	기타
1999	0.0	0.0	100.0
2000	0.8	19.2	80.1
2001	12.1	42.8	45.1
2002	48.9	36.2	14.9
2003	65.8	27.9	6.3
2004	86.5	10.8	2.7
2005	93.8	4.5	1.6
2006	96.0	2.6	1.5
2007	96.0	1.9	2.1
2008	96.0	1.9	2.1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표 Ⅳ-8 중남미 각국의 기술별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 현황(2008년)

(단위: %)

국가	케이블	ADSL	기타
아르헨티나	31	68	1
브라질	26	70	4
칠레	43	56	1
콜롬비아	32	62	6
멕시코	22	75	3
페루	2	96	2
베네수엘라	11	86	3
중남미	27	70	3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2008년 말 현재 TdP는 69만 7,000명의 가입자를 확보, 페루 최대 브로드밴드 운영업체로 부상했으며, 브로드밴드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은 95.8%에 달한다. 브로드밴드 요금이 비싸 아직까지 많은 페루인들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 전자상거래시장

페루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을 위해 디지털 서명과 증명서에 관한 법(법률 제27269호)을 신설하고, 전자서류의 진위성과 완전성을 보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정부(e-government) 구축으로 전자세금계산서(SUNAT: 국세청) 발행을 비롯해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련 수속과 거래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다. 이미 세관과 국세청의 수속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공기관의 95%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기술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페루 전자상거래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소프트웨어 시장

페루의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억 2,200만 달러에 불과해 아직까지 그 규모는 작으나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른 상황이다. 2013년 시장규모는 2억 1,000만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BMI 전망). 2009년 소프트웨어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춤할 전망이나 향후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크다. 특히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장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FTA 체결로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더욱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도인 리마에서는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사용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에서의 수요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최근 괄목할 만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여전이 커다란 문제이다. 2003년 페루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감시기구(Indecopu)를 설립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공공부문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사용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중 불법 복제의 비중은 2003년 73%에

서 2006년 40%로 급감했다. 이 같은 공공부문에서 불법 복제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중siness Software Associ2003년에 따르면 페루 전체적으로 불법 복제율은 2008년 71%에 달한다. 페루에서 MS Of쥣은 e의 불법 복제본은 1달러면 구매가 가능한 사정이다.

2009~2013년 기간 페루 소프트웨어 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4%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과의 FTA 체결과 후속 FTA 체결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페루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IT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페루에 거점을 마련하며 소프트웨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페루 정부의 적극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정책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이다.

페루 전체 소프트웨어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 미국과 FTA 체결로 대기업들의 경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잠재력도 매우 크다. 현재 페루에서 경영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소기업의 잠재고객 수는 7,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빠른 경제성장세에 힘입어 기업부문, 특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ERP 및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RP는 페루 총 소프트웨어 지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SAP사[13]에 따르면 현

재 2,000개에 달하는 잠재기업을 감안할 경우 잠재시장 규모는 연간 1억 5,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관리 및 보안소프트웨어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은행들의 IT 시스템 통합과 신상품 및 서비스 개시를 위한 능력제고 노력에 힘입어 금융부문에서도 기회가 늘고 있다. 페루의 경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제금융회계방식(IFAS)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은행권에서도 IT에 대한 새로운 투자붐이 일고 있다.

페루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출 잠재력을 겨냥,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페루에는 300개의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이 중 75%가 정기적으로 수출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안데스 국가들과 미국이다. 페루소프트웨어 산업협회(Apesoft)에 따르면 2008년 소프트웨어 수출규모는 2007년에 비해 25% 증가한 2,000만 달러에 달했다.

향후 페루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잠재력은 기술에 있다고 판

---

13) SAP은 1972년 독일 만하임에서 다섯 명의 전직 IBM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회사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 선도 업체이다. SAP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통합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으며, 오늘날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많은 기업들에서 SAP 제품을 사용한다.

단하고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IT분야에서 청소년층의 기술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페루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공부문의 대기업들이 비즈니스 과정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 소프트웨어 경쟁력 촉진기구인 Pacis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페루의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규모는 2008년 1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페루소프트웨어산업협회(Apesoft)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안데스개발공사(CAF)와 협정을 체결했다. 페루 정부는 또한 Arequipa 시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 하드웨어 시장

페루의 IT시장 규모는 10억 달러(2008년 기준)로 아직까지 그 규모는 작으나 PC 보급률이 15%에 불과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T시장이 페루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7%로 미미한 실정이다.

표 Ⅳ-9 페루 IT산업 지표(2006~13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IT시장규모	780	889	1,014	1,125	1,260	1,424	1,623	1,834
IT시장규모 (GDP대비, %)	0.8	0.8	0.8	0.9	0.9	0.9	0.9	0.9
하드웨어 (컴퓨터 판매)	433	489	552	630	700	785	887	995
서비스	254	293	340	371	420	479	552	630
소프트웨어	94	107	122	124	140	160	184	210
PC (노트북 포함)	346	386	442	510	567	637	728	823
서버	39	44	50	57	63	71	80	90

자료: BMI(2009).

페루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은 OLPC(One Laptop per Child) 프로그램을 통한 페루 정부의 대규모 노트북 구매에 힘입어 전망이 매우 밝다. 페루의 컴퓨터 판매액은 2009년 5억 1,000만달러에서 2013년에는 연평균 13%씩 증가, 5억 1,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상반기에만 노트북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다. 그에 반해 같은 기간 데스크톱의 판매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09년 7월까지 페루 정부는 OLPC 프로그램을 통해 11만 대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정부는 2009년 남은 기간 추가로 8~9만 대의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페루에서 하드웨어 시장은 PC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PC 판매는 연평균 20% 증가, 연간 PC(노트북 포함) 판매 대수는 50만 대에 달한다. 페루 국내에서 조립되어 판매되는 연간 노트북 수는 2009년에 40만 대에서 2013년에는 80만 대에 달할 전망이다. 페루에서 최근 노트북 판매 증가의 일등공신은 노트북 가격의 인하이다. 최근 노트북 가격은 2006년 1,200달러에서 2008년 650달러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페루 PC 판매시장은 정부의 OLPC 프로그램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실질소득 증가도 많은 저소득층들이 PC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매 판매는 전체 PC 판매의 10%에 불과하나 최근 PC 판매자와 체인점 간의 협정 체결에 힘입어 소매 판매 증가세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체인점을 통한 PC 판매는 전체 판매의 50%에 달한다.

OLPC 프로그램에 힘입어 노트북 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노트북은 2009년 1분기 전체 PC 판매의 80%에 달했다.

2007년만해도 전체 PC 판매의 70%를 데스크톱이 차지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그 비중은 급격히 하락, 2009년 상반기에는 10%까지 떨어졌다. OLPC 프로그램은 2009년에도 페루 PC 판매의 일등공신이 될 전망이다. OLPC 프로그램으로 이미 25만 대의 PC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PC 판매 또한 지역간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컴퓨터 판매의 80%, 노트북 판매의 90%가 리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향후 수년 안에 지방의 컴퓨터 판매 증가로 바뀔 전망이다. 페루 통계청(INEI)에 따르면 2007년 3분기 기준으로 컴퓨터 보급률은 15.4%에 불과했다. 그러나 리마 대도시의 경우 전체 가정의 30.7%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가구당 1대씩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페루 전체 도시의 컴퓨터 보급률 17.3%, 농촌지역의 보급률 0.75%에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결과이다.

라. 통신시장

페루의 유무선전화 보급률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특히 유선전화 보급률은 빈부격차,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정글 등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 무선전화의 신속한 유선전화 대체 등의 이유로 중남미 평균에 비해 50% 낮은 상황이다.

페루 통신시장은 통신부문민간투자감독청(Osiptel)과 교통통신부(MTC)가 관장하고 있다. 1994년 통신산업 민영화가 개시되어 1998년 8월에 통신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통신서비스 제공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외국인투자도 급증했다.

통신산업 자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페루 통신시장은 아직까지 Telefonica del Peru(TdP)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TdP는 장거리전화시장, 휴대전화시장 및 인터넷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최근 통신요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2004년에는 통신사 간 경쟁심화 및 대규모 홍보에 힘입어 장거리전화요금이 크게 하락했다.

1) 유선전화

페루에서 유선전화 인프라는 빈곤지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대부분의 유전전화 서비스는 리마와 카야오(Callao)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전화보급률은 17.5%에 달한다. 그에 반해 빈곤 산악지역인 우앙카벨리카(Huancavelica)의 경우 보급률

은 0.8%에 불과하다.

페루 전체 유선전화 보급률은 중남미 평균에 비해 50% 낮다. 페루의 전화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빈곤 이외에 Telefonica del Peru(TdP)의 독점, 무선전화의 유선전화 대체, 안데스 산맥과 아마존 정글 등 낮은 지리적 접근성 등에 기인한다.

2007년 9월에 교통통신부(MCT)는 FITEL를 활용해 2011년까지 전화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대폭적인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1년까지 유전전화 보급률을 12%까지 확대하고, 무선전화 보급률은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100만 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정보다 계획 목표 달성이 빨라지자 2008년 2월에 페루 정부는 2011년까지 목표를 재수정(유선전화 보급률은 15%, 무선전화 보급률은 80%까지)해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전화 보급정책에 힘입어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페루에서 전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 크게 감소했다. 2008년 9월에 무선전화 서비스는 전 국토의 76.2%에 해당하는 1,832개 지역(districts)이 어떠한 형태로든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표 Ⅳ-10 페루의 유선전화 서비스 회선 수 및 보급률 현황(1997~2008년)

연도	서비스 회선 수(천 개)	증가율(%)	보급률(%)
1997	1,537	15.4	6.2
1998	1,554	1.1	6.2
1999	1,610	3.6	6.3
2000	1,618	0.5	6.2
2001	1,571	−2.9	6.0
2002	1,657	5.5	6.2
2003	1,839	11.0	6.8
2004	2,050	11.5	7.4
2005	2,251	9.8	8.1
2006	2,401	6.7	8.5
2007	2,673	11.3	9.3
2008	2,812	6.8	9.7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표 Ⅳ-11 중남미 국별 유선전화 서비스 회선 수 및 보급률 현황(2008년)

국가	서비스 회선 수(백만 선)	보급률(%)
아르헨티나	9.89	24.9
벨리세	0.03	9.9
볼리비아	0.70	6.9
브라질	40.45	21.0
칠레	3.45	20.5
콜롬비아	7.91	16.5
코스타리카	1.48	32.5
쿠바	1.15	10.1

표 Ⅳ-11 계속

국가	서비스 회선 수(백만 선)	보급률(%)
도미니카공화국	0.99	10.3
에콰도르	1.89	13.7
엘살바도르	1.06	14.9
과테말라	1.44	10.5
가이아나	0.14	18.0
아이티	0.12	1.4
온두라스	0.87	11.1
자메이카	0.38	13.6
멕시코	20.54	19.2
니카라과	0.26	4.6
파나마	0.50	14.8
파라과이	0.40	6.5
페루	2.81	9.7
푸에르토리코	1.03	26.1
수리남	0.08	16.1
우루과이	0.96	28.7
베네수엘라	5.90	21.2
기타	1.45	–
총계	105.86	18.3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2) 무선전화

무선전화시장은 페루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의 하나이다. 2001년에 무선전화 가입자 수가 유선전화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 2008년 말 현재 페루의 무선전화 보급률은 64.9%로 중남미 평균에 비해 약 17%가 낮다. 이는 페루의 1인당 GDP가 중남미 평균에 비해 43% 낮은 것에 비하면 대체로 양호한 것이다.

무선전화 보급률은 도농간에 격차가 매우 크다. 산악지역에서는 기초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무선전화 사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리마와 카야오 주의 무선전화 보급률은 11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반해 대부분 원주민이 살고 있는 우앙카벨리카(Huancavelica) 주의 경우 보급률은 11.6%에 불과했다.

표 IV-12 페루 무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현황(1997~2009년)

연도	가입자 수(백만 명)	증가율(%)	보급률(%)
1997	0.436	116	1.8
1998	0.736	69	2.9
1999	1.046	42	4.1
2000	1.340	28	5.2
2001	1.793	34	6.8
2002	2.307	29	8.6

표 Ⅳ-12 계속

연도	가입자 수(백만 명)	증가율(%)	보급률(%)
2003	2.930	27	10.8
2004	4.093	40	14.9
2005	5.583	36	20.0
2006	8.772	57	30.9
2007	15.417	76	53.6
2008	20.952	36	71.9
2009.3	21.874	29	74.8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GSM 기술방식은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루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TDMA 방식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으며 CDMA 방식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로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용도로 사용되는 iDEN 기술방식의 경우 아직까지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Movistar Peru사는 GSM 1900, CDMA 800, TDMA 800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의 AMPS 기술은 2007년 중순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2008년 11월에 TdP사는 2013년까지 모든 CDMA 플랫폼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표 Ⅳ-13 기술별 무선전화 시장점유율 추이(2004~08년)

(단위: %)

연도	WCDMA	GSM	CDMA	iDEN	TDMA	AMPS
2004		26.9	4.5	4.5	13.1	6.1
2005		34.9	4.5	4.5	8.6	3.2
2006		62.6	4.0	4.0	1.0	0.3
2007		83.3	3.4	3.4	0.2	0.0
2008	0.1	90.3	3.6	3.6	0.0	0.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Claro(구 TIM Peru)사는 2001년 1월 페루에 처음으로 GSM 방식을 2008년 4월에는 3G WCDMA도 처음으로 상용화했다. Nextel del Peru사는 iDEN 800 모바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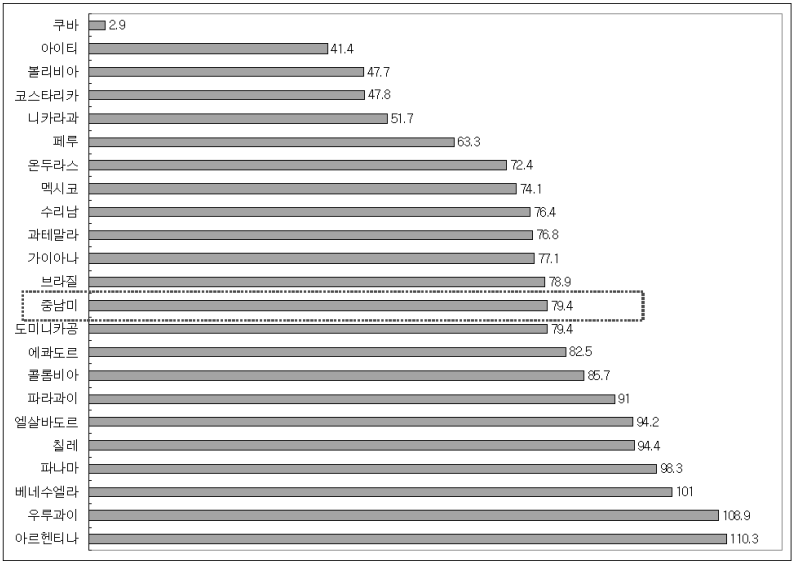
표 Ⅳ-14 운영업체 및 기술별 무선전화 가입자 수 현황(2008년 12월 현재)

운영업체	시스템	사업 개시	가입자 수(명)	증가율(%)
Movistar	CDMA 800	1997.9	1,097,520	−40.0
	GSM 1900	2006.2	9,508,980	53.1
	US TDMA	1998.6	6,200	−75.2
Claro	GSM 1900	2001.1	7,155,000	31.2
	WCDMA 800/1900	2008.4	23,000	–
Nextel	iDEN	1999.12	659,880	39.6
총계			18,450,580	31.8

자료 :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그림 IV-2 중남미 국별 무선전화 보급률 현황(2008)

(단위: %)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페루에서 3G 서비스 상용화는 Claro사가 처음으로 2007년 7월에 실시했다.[14] 2008년 4월에는 수도인 리마와 인근 항구 도시인 카야오, 그리고 일부 리마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를 대상으로 3G WCDMA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09년 2월에는 서비스 대상지역

14) 중남미에서 3G 서비스 상용화는 2006년 12월에 칠레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7년 중반에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서도 상용화가 실시되었다. 2007년 말에는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의 모든 무선전화 운영업체들이 3G 서비스를 실시했다. 브라질에서는 2007년 11월에, 멕시코에서는 2008년 2월에 3G 서비스가 상용화되었다.

표 Ⅳ-15 중남미 국별 무선전화 가입자 수 및 중남미 역내 비중

국가	가입자 수(백만 명)	중남미 역내 비중(%)
브라질	152.44	33.3
멕시코	78.46	17.1
아르헨티나	43.82	9.6
콜롬비아	41.36	9.0
베네수엘라	28.21	6.2
페루	18.45	4.0
칠레	15.90	3.5
에콰도르	11.40	2.5
과테말라	10.50	2.3
도미니카공화국	7.02	1.5
엘살바도르	6.80	1.5
온두라스	5.67	1.2
파라과이	5.61	1.2
볼리비아	4.78	1.0
우루과이	3.64	0.8
아이티	3.60	0.8
파나마	3.34	0.7
자메이카	3.08	0.7
니카라과	2.93	0.6
푸에르토리코	2.59	0.6
코스타리카	2.17	0.5
기타	4.98	1.1
중남미	458.26	100.0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2009).

이 Arequipa, Asia, Chiclayo, Cusco, Piura, Trujillo로 확대되었다. Nextel사는 2009년 중순에 3G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마. 수출입

1) 수출

페루는 하드웨어 생산을 하지 않고 단지 조립만 하고 있다. 주로 메모리와 조립컴퓨터를 미국, 콜롬비아, 볼리비아에 수출하는데 수출규모는 연간 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 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불법제품의 유통이 빈번해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선호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북미와 인근 중남미 국가들로 수출규모는 2007년에 2,200만 달러에 달했다.

2) 수입

IT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로 국내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IT부문의 성장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판매 대수는 2008년에 76만대에 달했다. 이 중 76%인 58만 대가 국내에서 조립한 컴퓨터였다. 그에 반해 수입

컴퓨터는 전체 판매의 24%인 18만 대에 그치고 있다.

표 IV-16 개인용 컴퓨터 연도별 판매액

(단위: 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348,365	554,475	554,922	592,971	660,921	758,405
국내에서 조립한 컴퓨터	246,652	399,027	393,528	435,530	501,335	582,925
수입 컴퓨터	101,713	155,448	161,394	157,441	159,586	175,480
신품	49,103	62,886	66,357	77,944	97,226	119,848
중고	52,610	92,562	95,037	79,497	62,360	55,632

주: 2008년은 예상치.
자료: Dominio Consultores.

주요 수입대상국은 중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한국 등이다. 이 중에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8년 기준으로 59%에 달하는 등 절대적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7년 4.8%에서 2008년 2%로 크게 하락했다.

컴퓨터 부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푸에르토리코 등이다. 컴퓨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부품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2008년 76%)은 절대적이다. 그에 반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최근 3년간(2006~2008년) 하락세(2.9% → 1,3%)에 있다.

표 Ⅳ-17 컴퓨터(HS 8471)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5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7	2008	
	계	249.3	279.1	279.9	380.9	100	100	36.1
1	중국	96.1	121.3	136.7	224.4	48.8	58.9	64.2
2	미국	39.1	34.9	44.1	57.5	15.8	15.1	30.3
3	멕시코	36.3	42.9	36.5	46.5	13.0	12.2	27.6
4	말레이시아	5.3	5.9	7.4	9.2	2.6	2.4	24.4
5	한국	11.0	12.9	13.4	7.8	4.8	2.0	−42.2
6	싱가포르	7.9	6.8	6.2	7.4	2.2	2.0	20.1
7	태국	5.0	3.8	4.4	4.8	1.6	1.3	8.7
8	일본	6.1	7.4	4.0	4.4	1.4	1.2	10.6
9	대만	3.7	5.5	3.3	2.7	1.2	0.7	−18.7
10	칠레	0.8	1.9	2.5	2.4	0.9	0.6	−5.0

자료: World Trade Atlas.

플래시 메모리의 주요 수입 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미국 등이다. 이 중에서 중국이 2008년 기준으로 51.4%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과 일본의 시장점유율도 20%, 17%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약 6%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8년 수입증가율이 572%에 달하는 등 상위 5대 수입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18 컴퓨터 부분품과 부속품의 수입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5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66.66	102.6	85.66	78.2	100	100	100	−8.7
중국	18.5	46.71	62.82	59.05	45.5	73.3	75.5	−6
미국	11.35	9.75	6.75	8.83	9.5	7.9	11.3	30.8
대만	1.28	2.41	3.88	1.99	2.4	4.5	2.6	−48.7
말레이시아	0.69	1.42	1.41	1.37	1.4	1.6	1.8	−2.8
푸에르토리코	2.66	3.23	1.1	1.34	3.1	1.3	1.7	21.4
한국	3.08	2.93	1.58	1.05	2.9	1.8	1.3	−33.6
멕시코	3.74	5.74	1.23	0.96	5.6	1.4	1.2	−21.5
싱가포르	4.55	4.46	0.84	0.8	4.3	1	1	−4.4
일본	14.7	19.19	3.56	0.74	18.7	4.2	1	−79.1
태국	0.83	0.59	0.43	0.64	0.6	0.5	0.8	47.1

자료: World Trade Atlas.

표 IV-19 플래시 메모리 수입상대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7	2008	
총계	12.46	21.19	100	100	70.1
중국	6.44	10.89	51.7	51.4	69.1
대만	3.04	4.24	24.4	20	39.2
일본	2.19	3.54	17.6	16.7	61.5

표 IV-19 계속

국가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7	2008	
한국	0.18	1.24	1.5	5.8	572.1
미국	0.36	0.73	2.9	3.4	101.2
프랑스	0.04	0.18	0.3	0.9	380.9
독일	0.02	0.07	0.2	0.3	240.9
싱가포르	0	0.06	0	0.3	5242.7
말레이시아	0.06	0.06	0.5	0.3	−8.3
홍콩	0.01	0.04	0.1	0.2	436.8

주: HS 코드 8523.51.은 2007년 생산.
자료: World Trade Atlas.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1. 하드웨어 기업

가. 최근 경제 현황

데스크톱 시장에서는 HP가 50%의 시장점유율로 절대 강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는 Dell과 Lenovo가 잇고 있다. 서버 분야에서는 IBM이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PC시장에서는 IBM이 4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Lenovo, Acer, Dell 등이 쫓고 있다.

다른 중남미 PC시장이 정체를 보인 데 반해, 페루 PC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다국적 PC 제조업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시바는 미국과의 FTA로 페루가 2년 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큰 노트북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며 페루를 중남미 허브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거대 컴퓨터업체인 Dell은 2008년 하반기에 페루 사무소를 개소했다. 기업용 컴퓨터 분야의 선두주자인 Dell은 페루 시장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신상품 출시를 통해 소매부문에 더 집중하는 등 HP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Dell은 미국의 거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구축, 중남미 여러 국가로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월마트는 최근 페루시장에 체인점 개설을 검토 중이다.

중국계 컴퓨터 회사인 Lenovo는 2007년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교사를 위한 PC 지원 프로그램'의 판매업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Lenovo사는 2007년 17%인 PC 시장 점유율을 2008년에는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페루 국내 PC 제조업체로는 킨타니야(Qintanilla)가 있다. 킨타니야사는 페루 국내 비공식 조립업체와 손을 잡고 연간 7만 대의 PC를 조립 판매해오고 있다. 페루 교육부는 정부지원 PC 제공 프로그램의 대상업체로 Grupo Leafar, Intocomex, Tech Data, Deltron, Agunsa 등 페루 국내업체들을 선정했다.

글상자 6 Grupo Deltron사 소개

순수 페루자본 기업으로 20년 전 컴퓨터부품 수입시장에서 컴퓨터 부분품과 완성품 도매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페루에서 유일하게 데스크톱, 휴대용 컴퓨터, 서버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체 체인망을 활용하여 2008년에 3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페루에서 판매되는 컴퓨터의 75%는 메이커가 없는 것으로 대부분 수공업 차원에서 조립되는데, Deltron사는 2000년에 ISO9000, ISO14000 규격을 갖춘 컴퓨터 조립공장을 설립하였다. 현재 3만 대의 컴퓨터를 생산하여 이 중 50%는 Saga Falabella, Ripley, Hiraoka, Casa, Stylus 등 유명 매장에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입찰을 통해 정부에 공급하거나 Advance라는 고유 상표로 판매한다. 중미의 5개국에 Advance 상표로 랩 톱을 수출하기 위해 상표를 등록 중이며, 랩 톱은 전량 중국에서 조립된다.

나. 소프트웨어 기업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페루 교육부와 협정을 체결, 페루 정부가 'One Laptop Per Child' 일환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윈도우 소프트웨어(Windows software for XO laptops)를 공급하기로 했다. 윈도우를 탑재한 랩 톱이 제공되기는 처음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또한 TdP사와 손잡고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의 모바일 플랫폼에 윈도우 라이브(Windows Live) 서버를 제공하기로 했다. 2008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중남미 사업조직을 대폭 개편, 중미,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Multi-Country Americas)을 신설했다. 이전에

페루는 안데스 부서(Andean Unit) 관할이었다.

미국의 비즈니스솔루션 제공업체인 Epicor사는 페루 시장 진입을 위해 중남미 역내 기업인 Teres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Epicor사는 페루 기업들에게 ERP, CRM, SCM 및 자동화솔루션 등을 제공하기 위해 Teres사를 포함한 페루 국내 파트너와 공조할 계획이다.

다. IT 서비스 기업

IT 서비스 분야에서는 IBM, HP, EDS 등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의 투자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8년에 IBM은 TdP와 계약을 체결, 2011년까지 기술지원, 백업 및 피해복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 규모는 1,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HP사는 SAP사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Business All-in-One-Fast-Start'온라인 솔루션을 출시했다. 인도기업인 TCS사도 페루 시장에 진출했다. 유럽기업 중에서는 특히 스페인 기업인 Crystalis Consulting사가 페루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Crystalis사는 2007년 8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일곱 번째 사무소를 페루에 개소했다. 중남미 기업 중에서는 콜롬비아의 Intergrupo사가 2010년 페루에 소프트웨어개발센터 개소 계획을

갖고 있다.

페루는 또한 최근 중남미 IT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투자도 받고 있다. 2009년 콜롬비아의 IT 회사인 Consult-soft사는 ERP와 CRM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소를 페루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칠레의 IT 공급업체인 Solint사도 2010년에 페루에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

5

향후 성장잠재력

페루 IT시장은 아직까지 시장 규모는 작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빠른 경제성장세, 소매시장의 팽창세, 관세 및 요금의 하락 등의 호재에 힘입어 2008~13년 기간 연평균 약 12.6%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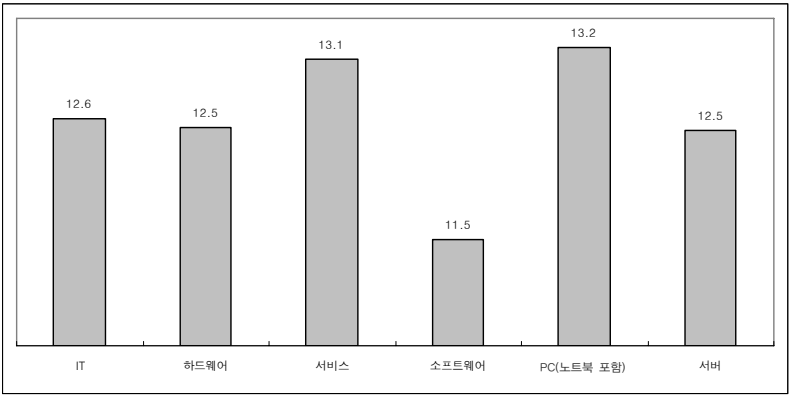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 및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힘입어 외국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IT산업의 발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12월 미국과의 FTA 체결로 페루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했다. ITA 가입으로 IT 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었다. 그 결과, SAP사 같은 기업들은 페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IT 제품에 대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8~2013년 기간 IT서비스 시장이 연평균 13.1% 성장을 기록,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소프트웨어 시장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11.5%의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이다. PC 시장의 경우 정부의 PC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13.2%의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림 Ⅳ-3 페루 IT시장 발전 전망(2008~2013년, 연평균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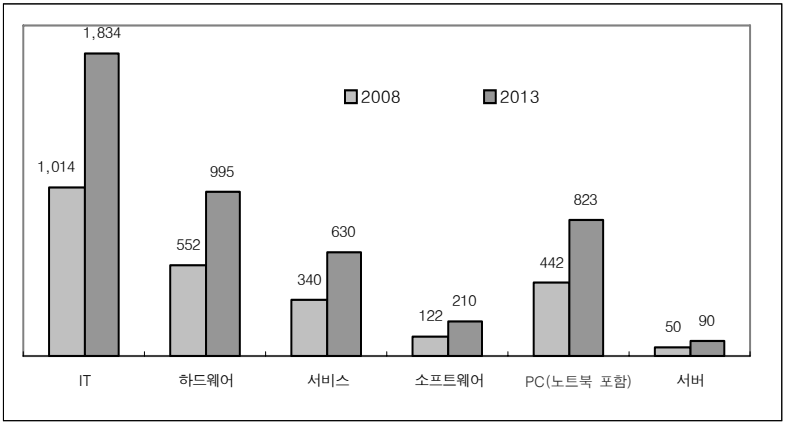
자료: BMI(2009).

이 같은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페루 IT시장의 규모는 2008년 10억 달러에서 2013년에는 18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하드웨어 시장도 5억 5,200만 달러에서 9억 9,5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C 시장 규모도 4억 달러에서 8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4 페루 분야별 IT시장 크기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자료: BMI(2009).

V

수산업

1 / 산업개황

2 / 주요 육성정책

3 / 생산 현황 및 구조

4 /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5 / 향후 성장잠재력

1

산업개황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페루는 3,080km의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데다 북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난류(暖流)와 남으로부터 훔볼트 난류가 만나 풍부한 어장을 이루고 있어 안초비, 전갱이, 고등어, 정어리 등의 어족이 풍부하다.

페루 해양연구원(IMARPE: Marine Institute)에 따르면 페루에서 발견된 어종(魚種)은 1,000종에 달하는데, 이 중 지속적으로 어획(漁獲)이 가능한 어종은 60종에 이른다. 페루에는 1,100종의 연체류가 있는데 이 중 40종이 상업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400종의 조개류 중 25종이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다. 처브(chub), 전갱이(jack mackerels), 안초비 등 심해어종이 풍부하며 이 중에서

도 안초비는 어유 및 어분의 재료로 사용된다. 직접 식용으로 사용되는 해저(海底) 어종으로는 대형 오징어와 농어, 대구(hake), 돌고래(mahi) 등이 있다. 새우와 가리비는 주로 해안가에서 양식한다. 강과 호수 등 내륙에서 서식하는 생선은 주로 내수용으로 판매된다. 최근 들어 내수와 수출을 겨냥한 송어와 틸라피아(tilapia) 양식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관상용 열대 물고기도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형 오징어를 제외한 모든 어종에 대해 매년 어획량을 통제(fishing quotas)해 오고 있다.

페루는 세계 최대 어분 및 어유 수출국으로 어분의 경우 전 세계 소비량의 33%를 공급하고 있다. 페루는 또한 전 세계에서 칠레 다음으로 많은 식용 생선을 생산하고 있다.

페루 경제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위상도 매우 크다. 2008년 기준으로 페루 총 수출에서 수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안초비를 가공한 어분과 어유의 비중이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한다. 페루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만 명을 넘는다.

2

주요 육성정책

가. 주요 수산관련 기관

1) 개요

페루에서 수산업은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 내의 수산차관이 담당한다. 산하기관으로는 해양연구원(IMARPE), 수산기술연구원(ITP), 어업개발기금(FONDEPES)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해양연구원(IMARPE)은 어족자원 연구, 감시 및 보존정책에 대해 자문한다. 수산기술연구원(ITP)은 고부가가치 수산제품의 개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전파,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산부문은 페루 정부의 주요 세수원이다. 먼저 페루 정부는 수산회사의 순이윤에 대해 3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세는 수산부문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되어 수산업을 포함한 현지 인프라 및 관련 기구에 투자된다. 또한 페루 정부는 안초비를 사용해 어분을 생산하는 업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 어선에서 어분 생산공장에 전달되는 안초비 1톤당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한다.

페루는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와 더불어 회원국 간 해양정책의 공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태평양상임위원회(CPPS: Permanent Commission for the South Pacific)의 창립(1952년) 멤버이다. 페루는 또한 회원국 간 양식개발 정보, 기술 및 경험의 상호 교환을 목표로 출범한 중남미어업개발기구(OLDEPESCA: Latin America Organization for Fishery Development)의 일원이다. 페루는 동태평양지역에서 참치어업의 보존과 관리가 주요 임무인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회원국이기도 하다.

2) 해양연구원(IMARPE: Marine Institute)

1964년 설립된 해양연구원은 1950년대 페루 해군과 세계식량

기구(FAO)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연구기관을 전신으로 한다. 주요 임무는 어업활동을 감시하고 어족자원의 보존 정책을 위한 자문과 권고이다.

주요 연구 활동은 △육상과 해안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모든 어종의 하역에 대해 일간 기록 △어족의 샘플 채취를 위해 정기적인 연구 항해와 청년층 어업 인력 모집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대양(大洋)의 조건 관찰 △어족의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해 특정 어족의 조업 금지 및 어획쿼터 도입에 대한 자문 등이다.

연구원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연간 예산을 통해 충당하거나 안초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훈련교육, 워크숍 및 기타 이벤트를 통해 얻는 자체 소득에 의존한다.

3) 수산자원 감시 및 통제

페루의 배타적경제수역(EEZ)[15]은 매우 크고 넓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위성감시시스템(SISESAT)을 통해 EEZ 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시에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색출해낸다. 생계형 어선은 위성감시 대상에서 제외

15) 페루의 EEZ 넓이는 86만 3,000km^2에 달한다.

된다. 어선에 장착한 위성시스템의 운용비용은 개별 선주들이 부담한다.

위성감시는 특정 해안에 대해 조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때 특히 중요하다. 위성은 조업 금지지역에서 어선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조업 어선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통지해준다. 현재 안초비 조업은 특정지역, 특정시기에 한해 연중 120일만 가능하다.

4) 수산기술연구원(ITP: Fish Technology Institute)

리마 근처의 카야오(Callao)에 위치해 있으며, 수년간 고부가가치 수산물 개발에 주력해왔다. 이외에도 수산물 취급 및 제품 가공 등과 관련 수산물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제품분석을 위해 실험실을 두고 있다.

5) 어업개발기금(FONDEPES: National Fund for Fisheries Development)

1992년 당시 수산부는 생계형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개발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의 주요 설립 목적은 △소형 어선 전용 하역 터미널 건설 △어업장비 구입 시 신용대출 △수산물 수

송장비 구입 시 신용대출 등이다. 설립 이후 FONDEPES는 해안가 오지에 47개의 하역 터미널을 설립했다.

나. 주요 정책

1) 정책 개요

페루 정부의 수산정책은 ① 생태계(eco-systems) 보호, ② 청정기술 사용, ③ 생물다양성 보전, ④ 사회정의, 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 다섯 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페루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어로금지[16]를 실시하는 한편 구형 어선의 신형 교체와 고품질 어분 생산을 위한 저온건조공법 사용, 첨단공장 설립 등에 투자를 집중해오고 있다. 또한 페루 정부는 어족 생산 다변화를 위해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아 심해 수산물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페루에서 수산정책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어획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초비 조업 어선에 대한 최대 어

16) 페루 정부는 해양연구원이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해 안초비, 전갱이 및 대구의 어획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어획량은 당해연도 특정 시기에 특정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어획에 기초해 정해진다. 대형 오징어와 기타 어종은 아직까지 쿼터 대상이 아니다.

획 한도를 지정하고 있다. 또한 남태평양 대구에 대해서는 개별 조업 쿼터를 부과하고 있다. 대형 오징어, 전갱이 및 고등어, 참치 및 관련어종, 심해 대구 등에 대해서도 조업 규정을 두고 있다.

직접식용 어족에 대한 페루 정부의 정책 목표는 식품안전과 수출 촉진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 안초비 및 오징어를 사용한 제품의 개발 촉진, 대양어선(high seas fleet)의 개발 촉진,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 확대, 여러 도시 내 냉장유통(cold chains) 체계의 설립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2) 어족자원 보호 정책

최근 페루 정부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어선당 최대의 어획 한도(MCLV: Maximum Catch Limits per Vessel)' 제도의 도입이다. 2009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북부/중부 및 남부 지역에서 조업하는 각 어선은 어획 할당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철선(steel vessel)과 목선(wooden vessel)의 경우 어획 경력 및 어선의 수용능력 등에 따라 어획 할당량이 다르게 적용된다.

MCLV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50일 이내의 조업기간 동안에 전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을 하다

보니 항구와 어분공장이 포화상태를 맞기도 했다. 이에 따라 MCLV의 도입 목적 중 하나는 조업 기간에 어선들의 조업을 적절히 조정하여 어군(魚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생계형 어업 생산을 장려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어분의 질을 개선하려는 등 다각적인 포석을 갖고 있다. MCLV 도입으로 페루 정부는 식용 생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공급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안초비 및 어분·어유 생산 장려책

페루 정부는 안초비 및 어분·어유와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어분 및 어유 공장에서 배출·방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 및 방출에 관한 최대허용한도(MPLs: Maxium Permissible Limits)'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9년 청정기술 도입 정책의 일환으로 배출(effluents)에 관한 최대허용한도제를 도입했다. 방출(emissions)에 관한 제도는 수년 전에 도입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루에 있는 모든 어분 공장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페루의 대표 어항인 피스코(Pisco)와 침보테(Chimbote) 항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를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2004년에 피스코 항구를 대상으로 Apropisco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도입으로 피스코 항구에 위치한 7개의 어분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배출물은 먼저 1차 처리 과정을 거쳐 펌프로 중앙 처리장치로 옮겨지고 여기서 처리된 배출물은 바다로 방출된다. 2007년에는 침보테에서도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다. 침보테에서는 어분, 냉동 및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뿐만 아니라 광산물 쓰레기도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자발적인 윤리규정이 도입되었다. 저인망 어선의 70%를 차지하는 페루 수산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전국수산협회(SNP: Sociedad Nacional de Pesqueria)를 설립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했다. 또한 공장 및 어선 소유주, 공장 기술자, 선장 및 선원 등을 중심으로 어업행동강령(Fishing Behaviour Code)을 제정했다.

넷째, 국가정책 차원에서 어린이 영양실조 개선을 위해 안초비의 소비를 장려해오고 있다. 페루 정부는 사회프로그램과 관련해 모든 식자재 구입 시 그 중 8%를 안초비와 오징어가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 째,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안초비 통조림 등을 포함, 식용 부문에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 V-1 어족자원 보호 주요 조치

항목	주요 내용
바이오메스 통제	– 조업 개시 및 폐장을 법적으로 규정 – 연간 및 계절별 총 어획 한도 제도 도입 – 5마일 이내에서는 생계형 어선만 조업 가능 – 어획 시 10% 이상의 유치어가 잡히거나 어획 허용 한도에 도달했을 때 조기 폐장 – 어선 당 최대 어획 한도(MCLV) 제정
잡어 통제	– 잡어 한도 5%(2007년 현재 3.6%) – 최저그물 크기: 1/2인치(12mm)
하역	– 적재용량 공식 신고 – 신규 어선의 진입 금지 – 200마일 이내에서 조업 시 허가 필요 – 5마일 이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위성추적장치 부착 – 134개 하역지점에서 24시간 어획 기록 –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벌금 부과
기타	– 생산부는 매일매일 웹사이트에 당일 조업허가 어선과 조업금지 어선에 대해 공지 – 가공공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이나 생계형 어선으로부터 생선을 받을 수 없음 – 가공기계나 환경보호 장비에 이상이 있을 시 가공공장은 생선 반입 금지 – 생선의 훼손을 막기 위해 트럭이나 생계형 어선으로 벌크 수송 금지 – 펌프와 파이프를 통한 생계형 어선의 어획 금지

자료: 페루 생산부.

MCLV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훈련프로그램 및 조기 퇴직자를 위한 연금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3) 양식산업 육성책

페루 정부는 수산부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양식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식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페루에서 양식업은 지형별로 크게 해안 양식업, 고원 양식업, 아마존 강 유역 즉 정글 양식업으로 나눈다. 해안가에서 양식되는 주요 어종에는 새우, 가리비, 넙치, 틸라피아 등이 있다. 그에 반해 내륙 및 고원지대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송어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강 유역의 정글지역에서 양식되는 어종에는 파이체(paiche), 관상어, 기타 아마존 어종 등이 있다.

페루 정부는 양식업에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보다 성과가 더딘 편이다. 특히 육상 양식부문의 투자 유치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우와 가리비 양식은 해외시장에서의 높은 수요와 지리적 이점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8년, 새우 양식업은 엘니뇨와 폭풍우, 뒤이은 치명적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가리비 양식은 페루 전 해안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페루 정부는 가리비의 불법 양식을 막기 위해 민간투자자에

게 특정 지역을 지정해주고 있다.

티티카카 호수 등 내륙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양식 어종은 송어다. 페루 정부는 아마존 지역에서 식용 어종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자의 관심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페루 정부는 2001년에 기업등록세 면제 및 소득세 삭감 등의 조치를 통해 양식산업 육성책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페루 정부의 양식산업 육성은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관료적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30일 안에 양식업 허가를 내주는 'An Aquiculture One Stop Shop'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3

생산 현황 및 구조

가. 어획 및 생산

1) 산업용 어획

수산부문은 간접식용을 위한 산업용 부문과 직접식용을 위한 생계형(전통형) 부문으로 대별된다. 산업용 어선은 총 1,283척에 달하며 이 중 700척은 평균 250톤(MT)의 적재능력을 갖춘 철선이다. 주로 건착망 어선으로 안초비 어획에 주력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적재능력 50~110톤 사이의 목재 어선 600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건착망을 사용해 안초비, 전갱이, 정어리 등을

어획한다. 성어(成魚)만 어획할 수 있도록 어종별로 그물망의 크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표 V-2 산업용 어선 수

어선 유형	수	적재능력(hold capacity) (천 m^3)
건착망(purse seines) 어선	1,191	208.819
트롤(trawls) 어선	58	7.027
다용도(multipurpose) 어선	30	4.027
연승(longliners) 어선	4	0.725
총계	1,283	220.598

자료: 페루 생산부.

수산물 가공공장 중에서는 어분공장 수(2007년 기준)가 150개로 가장 많다. 어분공장 수는 2004년 150개로 증가한 이후 정체 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냉동가공 공장 수가 두 번째로 많다. 냉동가공 공장은 2004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 2007년에는 106개에 달했다. 불과 4년 사이에 20개가 늘었다. 통조림 공장 수는 2002년 99개를 정점으로 하락, 2007년에는 75개에 그치고 있다.

표 Ⅴ-3 품목별 수산물가공 공장 수와 생산능력(1998~2007년)

종류	표시 단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통조림	수	95	99	98	99	85	86	87	73	75
	생산능력 (상자/8시간)	185,723	195,118	197,114	198,244	190,137	191,000	191,840	175,682	177,650
냉동	수	82	86	86	86	78	87	95	93	106
	생산능력 (톤/1일)	2,807	2,880	3,027	3,042	2,810	2,935	3,557	3,913	4,644
염장	수	20	21	21	20	17	17	17	13	16
	생산능력 (톤/1일)	1,486	1,648	1,724	1,730	1,200	1,592	1,592	1,243	2,777
어분	수	137	139	143	143	140	150	150	146	150
	생산능력 (톤/1일)	8,429	8,738	8,922	8,751	8,589	9,129	9,093	9,143	9,244

자료: 페루 생산부.

어획량은 2004년 962만 톤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2008년에는 735톤에 머물렀다. 직접식용 수산물의 어획량이 200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간접식용 수산물의 어획량은 정체상태에 있다. 용도별로 어획량은 간접식용이 직접식용보다 다섯 배 많다. 2008년 총 어획량 중 간접식용의 비중은 83%에 달했다.

표 Ⅴ-4 용도별 어획량 추이(1999~2008년)

(단위: 천 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8,431.1	10,660.6	7,994.5	8,774.6	6,097.6	9,618.5	9,400.3	7,027.8	7,230.7	7,353.1
직접식용	643.1	748.2	786.5	617.8	750.6	807.9	771.6	1,132.3	1,144.7	1,226.9
통조림	205.3	223.0	174.9	60.2	168.1	82.9	89.4	233.5	182.5	197.4
냉동	113.8	140.9	199.3	184.6	184.9	307.7	322.4	481.5	537.6	606.8
가공	51.2	51.4	54.5	48.5	49.1	49.9	48.1	42.7	42.3	46.9
신선	272.8	332.9	357.8	324.5	348.4	367.3	311.7	374.6	382.2	375.8
간접식용	7,787.9	9,912.5	7,208.0	8,156.8	5,347.0	8,810.6	8,628.7	5,895.5	6,086.0	6,126.2
안초비	6,732.0	9,555.6	6,347.7	8,082.9	5,335.5	8,797.1	8,628.4	5,891.8	6,084.7	6,116.5
기타	1,055.9	356.8	860.4	73.9	11.5	13.5	0.3	3.7	1.3	9.7

주: 여기서 가공은 절임, 절임-건조, 간한 것을 포함.
자료: 페루 생산부.

직접식용 수산물 중에서는 대왕오징어 어획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직접식용 어획량의 42%에 달했다. 어획된 대부분의 오징어는 냉동 가공되고 있다. 오징어 다음으로는 전갱이, 안초비가 직접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Ⅴ-5 직접식용(CHD)을 위한 주요 수산자원의 어획량

(단위: 톤)

어종	냉동	통조림	염장	신선(냉장)	2008	2007
아메리카대왕오징어	446,342	60	30	38,344	484,776	427,591
전갱이	28,730	59,650	941	69,794	159,115	254,426
안초비	8,424	77,066	4,630	309	90,429	75,089
고등어	26,177	46,330	1,927	13,644	88,078	62,387
만새기	15,246		57	31,526	46,829	35,333
대구	24,546		74	5,918	30,538	31,634
가리비	17,741			678	18,419	24,768
가재	13,882			1,794	15,676	14,496
바다장어	1,001			8,096	9,097	14,867
파타고니아 꼴뚜기	2,581			1,835	4,416	14,769
참치	600	3,232		40	3,872	4,080
달팽이	1,673	17		483	2,173	2,838

자료: 페루 생산부.

2) 생계형 어로

5해리 어업수역 내에서의 조업은 생계형 어로만이 가능하고, 산업용 어선의 어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1997~2000년 사이 생계형 어선은 6,000척에서 9,700척으로 증가했다. 전체 생계형 어선 중 35%는 노 젓는 어선이거나 범선이며 나머지

65%는 엔진을 장착한 어선이다. 생계형 어선의 법적 최대 크기는 30톤의 적재능력을 갖춘 32.6m^3이다.

표 V-6 생계형 어선의 현황

적재 능력	어선 수	선원 수
0.5~2톤	6,000	2~4
2~5톤	2,500	4~6
5~15톤	1,050	8~10
15~30톤	150	8~10
총계	9,700	

자료: 페루 생산부.

페루 정부에 따르면 생계형 어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페루 해역에서 새로운 어종인 대형오징어 어로의 확대에 기인한다.

모든 어선은 개인 소유이며 선장과 선원은 주로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페루 수산부에 따르면 1명의 어부가 부양하는 가족은 4명이다.

20톤 이하의 어선은 대부분 1년 내내 대형 오징어잡이에 주력하고 있으며 조업 허가기간 중에는 돌고래(mahi)나 보니토(bonito) 등 고부가가치 어족 어로에 전념한다. 20~30톤 사이의 어선 중 절반은 트롤망으로 대구를 어획하며 나머지는 페루 북

부에서 테이블 피쉬(table fish)를 잡는다. 대형 어선의 경우 연안 어족이 고갈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갱이 어획에 주력했었다.

생계형 어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어구(漁具)를 사용하나 그 중에서도 연승(延繩, Long line) 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페루 해안을 따라 217개 어촌이 분포해 있으며 5만 9,000명의 어민이 매일매일 조업을 한다. 페루 정부는 주요 지역에 47개 하역 터미널을 설립, 생계형 어민들이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지에서 어민들은 대체로 중간상에 생선 판로를 의존한다. 중간상들은 사전 협상 가격에 근거해 생선을 매매한다는 계약 조건으로 보수 비용, 어로 비용 등을 지원한다. 판아메리카고속도로 인근 어촌의 경우 어민들은 지역조합과 협회 등을 조직, 보다 근대화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중간상들의 협상력은 오지보다 크지 않다.

현재 생계형 어민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신용 지원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어민들이 유일한 신용창구인 상업은행도 보증 요구를 맞추기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이마저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3) 어획

산업용 어선은 전체 어획의 91%를 차지하며 생계형 어선이 8.5%, 육상 및 해상 양식이 0.5%를 차지한다. 어획된 안초비는 공장으로 직접 전달되어 어분과 어유로 가공된다.

생산부가 정한 어족 보존정책 때문에 어선은 해당연도에 안초비 어획 허용 쿼터 내에서 120일만 조업할 수 있다. 나머지 기간에는 항구에 정박해 있거나 다른 어종을 어획한다. 생계형 어선은 보통 바다에서 하루나 이틀을 보내며 어획한 생선은 가까운 터미널에 하역할 때까지 얼음으로 냉동 보관한다.

어선과 가공공장의 소유주는 주로 페루 국내 투자자로 대부분의 경우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고 있다.

4) 육상 및 해상 양식업

페루 정부는 육상 양식산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1,532건의 양허를 제공했다. 양허 면적은 92만 2,000헥타르에 달하며 주로 송어와 아마존 강 어종의 양식을 위한 것이다. 새우 양식과 가리비 양식 등 해안 양식에는 158건(1만 헥타르의 면적)의 사업이 허가되었다.

에콰도르 국경, 페루 북부에서 이루어졌던 새우 양식산업은 1990년대 후반 엘니뇨 여파와 전염병으로 완전히 와해되었다가 현대적인 양식 기술을 도입한 이후 다시 성장세를 맞고 있다. 2007년 생산량은 1만 1,657톤(MT)에 이르렀다. 가리비 양식장은 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2007년 생산량은 1만 8,518톤(MT)에 달했다. 송어 양식은 육상 호수와 인공 1못 등에서 각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 송어 생산량은 5,996톤(MT)에 달했다. 틸라피아와 잉어도 양식되고 있으나 아마존 강 어종의 양식은 마케팅 인프라 부족과 자연산 어획 가능성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이다. 페루에서 대부분의 양식산업은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민간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표 Ⅴ-7 페루 양식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가리비	3,914	5,701	6,671	10,484	11,066	12,337	18,518
새우	731	2,592	3,328	5,073	8,324	9,257	11,657
송어	2,675	2,981	3,111	4,699	5,475	5,794	5,996
틸라피아	225	121	112	1,311	619	494	1,746
기타	88	139	530	693	475	505	309
총계	7,633	11,535	13,751	22,261	25,958	28,387	38,225

자료: 페루 생산부.

6) 외국 어선에 대한 조업 허가

페루 어업법에 따라 외국 어선들은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페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80척의 에콰도르 참치 어선이 페루 EEZ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다. 선주들은 수산물이 직접 에콰도르 통조림업자에게 전달될 경우 등록된 참치 어선의 순 중량의 톤당 50달러를 지불한다. 그에 반해 참치가 페루에서 가공을 위해 하역될 경우 1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조업은 참치 시즌인 특정 기간에만 허가된다. 현재 페루 해역에서 어획된 모든 참치는 페루 국경 밖으로 반출된다.

해양연구원(IMARPE)의 공식 검사관이 어선에 승선하여 참치의 어획을 감시한다. 한국과 중국 어선들은 EEZ에서 대형 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받았으나 페루의 생계형 어선과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페루 정부의 판단에 따라 조업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어선은 200해리 밖에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가공

1) 산업용 가공

안초비는 어분과 어유로 가공되는데 일반적으로 4.5톤을 가공해 1톤의 어분을 얻을 수 있다. 어유 생산은 계절과 안초비의 유지 함유량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어획량의 2~9%에 달한다. 페루에서는 안초비만 어분으로 가공할 수 있다.

연간 전 세계 어분 생산량은 약 600만 톤에 달하는데, 이 중 페루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한다. 어분은 품질이 다양한데 표준형의 경우 6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특등품의 경우 그 함유량은 75%에 달해 주로 양식용 생선의 사료로 많이 사용된다. 과거에는 가격이 저렴해 윤활유로 사용되던 어유는 현재 양식용 사료로 쓰이며 가격이 높아졌다.

2) 생계형 가공

생계형 어선에서 하역된 생선과 대형 오징어는 국내 시장에서 신선한 형태로 팔리거나 해안가 가공공장으로 옮겨진다.

페루에서는 생선 공급이 불규칙해 전통적으로 제품 가공을 위

해 임시로 여성인력을 고용한다. 그에 반해 행정 및 보안 인력은 정규인력을 고용한다. 노동인력들은 가공공장 근처에 거주하며 필요 시 즉각적으로 생산에 동원된다. 보수는 보통 생산량(통조림 개수당)에 기초해 지급된다. 법정 최저임금은 월 155달러이나 각 가공업자들은 노동자들과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염장과 건조 작업은 고용된 여성 노동인력과 그 가족들에 의해 진행되며 국내 현지 업자에게 판매된다.

3) 고용

2004년 현재 수산부문 종사 인력은 총 12만 7,161명에 달한다. 산업용 수산부문이 전체 고용 인력의 21.5%를, 생계형 수산부문이 46.8%, 나머지는 기타 가공, 양식업 및 기타 관련 산업이 차지한다.

생계형 어민들은 40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어민들은 연방협회인 FIUPAP의 구성원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민들의 이해를 대변해 준다.

2006년 기준으로 수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는 1만 1,751명으로 100명에서 500명의 규모의 회사에 전체 근로자의 46%가 종사하고 있다.

표 Ⅴ-8 2006년 규모별 페루 수산업 민간회사의 근로자 수

(단위: 명)

	총	05~09	10~19	20~49	50~99	100~499	500명 이상
수산업	11,751	316	1300	2,585	2,137	4,684	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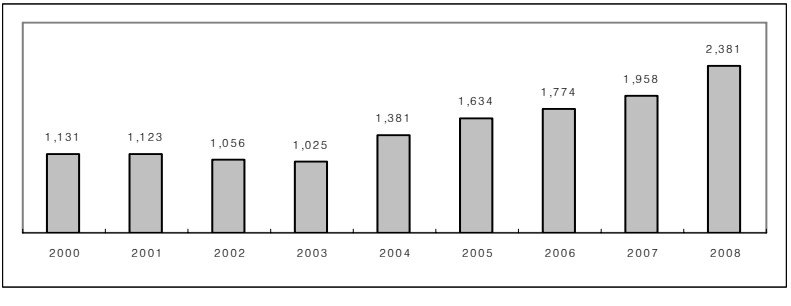
자료: 페루 노동부.

다. 수출

전통적으로 수산업은 페루의 주요 외화가득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수출은 2004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003년 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수산물 수출은 2008년 2배 이상 증가한 23억 달러에 달했다.

그림 Ⅴ-1 페루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생산부.

가공 형태별로는 어유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2008년 수출은 전년보다 49% 증가했다. 다음으로 냉동 수산물의 수출도 현저한 증가세(전년비 27%)를 보였다.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는 어분(2008년 기준)이 5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냉동 수산물이 19%, 어유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Ⅴ-9 페루 수산물 수출 현황(수출금액 기준)

(단위: 천 달러, %)

구분	2008		2007	변화율
	금액	비중		
어유	371,580	16	249,256	49
냉동	463,143	19	365,648	27
통조림	89,458	4	76,803	16
염장	29,730	1	29,392	1
기타	14,620	1	3,911	274
신선(냉장)	5,006	0	6,095	−18
어분	1,403,308	59	1,223,889	15
활어	4,282	0	3,801	13
총계	2,381,131	100	1,958,79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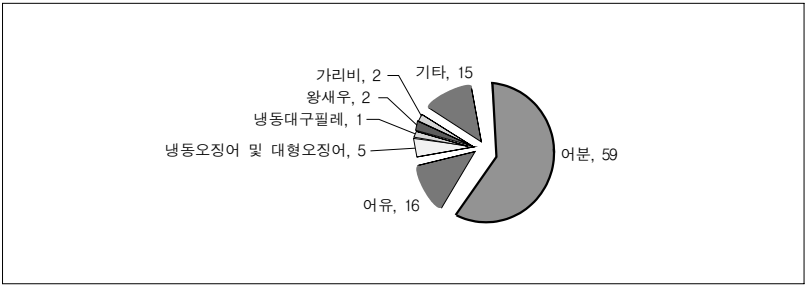
자료: 페루 생산부.

수출량 기준으로는 어분의 수출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그에 반해 수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어유의 수출은 22%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어유 수출이 수출량 증

가보다는 수출 가격의 인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Ⅴ-2 품목별 페루 수산물 수출 비중(2008년)

(단위: %)



자료: 페루 생산부.

표 Ⅴ-10 페루 수산물 수출 현황(수출량 기준)

(단위: 천 kg, %)

구분	2008		2007	변화율
	수출량	비중		
어유	249,993	11	320,717	−22
냉동	328,542	15	292,969	12
통조림	39,051	2	39,178	0
염장	3,853	0	3,905	−1
기타	22,864	1	9,266	147
신선(냉장)	629	0	855	−26
어분	1,551,292	71	1,276,666	22
활어	509	0	456	12
총계	2,196,736	100	1,944,015	13

자료: 페루 생산부.

용도별 수산물 수출은 직접식용이 39만 톤, 간접식용이 180만 톤으로 간접식용이 직접식용보다 4배 이상 많다. 직접식용 수산물 중에서는 냉동 수산물의 비중이 가장 크고 간접식용 수산물 중에서는 어분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표 V-11 용도별 수산물 수출량 추이

(단위: 천 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1,844	2,917	2,396	1,800	1,719	2,247	2,492	1,985	1,949	2,252
직접식용	97	105	133	116	153	197	193	329	340	391
통조림	38	34	36	17	29	21	12	37	39	39
냉동	58	70	95	98	123	175	180	291	300	349
가공	1	1	2	1	1	1	1	2	2	2
간접식용	1,742	2,809	2,259	1,676	1,560	2,038	2,280	1,641	1,570	1,799
어분	1,481	2,352	1,943	1,515	1,373	1,753	2,002	1,343	1,264	1,564
오일	260	457	315	161	187	285	279	289	306	235
기타 오일	–	–	–	–	–	–	–	10	15	–
비식용	5	3	5	8	7	11	19	14	25	63

주: 가공은 절임, 절임·건조, 간한 것 포함.
자료: 페루 생산부.

양식 수산물의 수출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2008년 기준 수출액은 1억 달러에 불과하다. 주요 수출품은 가재, 가리비, 송어,

틸라피아 등이다.

표 V-12 양식 수산물의 수출

구분	2007		2008	
	금액(천 달러)	수량(천kg)	금액(천 달러)	수량(천kg)
가재	53,846	10,038	59,178	9,798
가리비	36,470	4,572	43,548	4,889
송어	5,250	898	3,240	553
틸라피아	57	8	250	68
총계	95,626	15,517	106,218	15,310

자료: 페루 생산부.

페루 정부의 수출다각화 정책에 힘입어 수산물의 수출대상국 수가 2005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직접 식용 수산물의 수출대상국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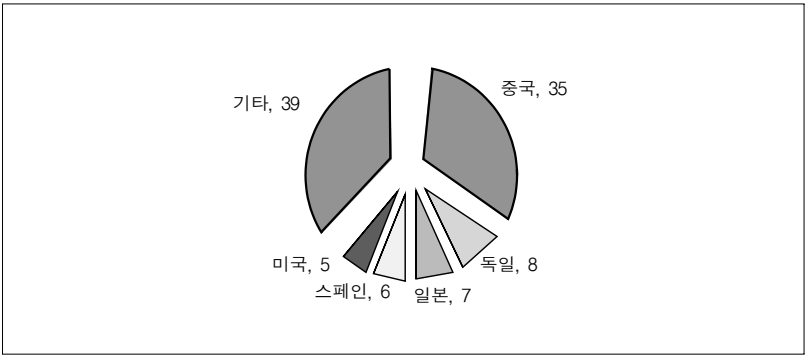
표 V-13 페루 수산물의 수출대상국 수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접식용	73	81	80	109	111	106
간접식용	70	68	62	58	57	58
기타	51	46	46	44	42	43
총계	103	105	104	120	120	119

자료: 페루 생산부.

그림 Ⅴ-3 페루 수산물의 주요 수출대상국(2008년)

(단위: %)



자료: 페루 생산부.

수산물 중 페루의 최대 수출품목인 어분의 경우 중국이 전체 수출의 52%를 차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대중국 어분 수출은 37.5%에서 51.8%로 크게 증가했다. 독일(12%), 일본(9.9%), 베트남(4.1%), 대만(3.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요 어유 수출대상국은 벨기에(20.6%, 2008년 기준), 칠레(18.5%), 노르웨이(13.8%), 덴마크(12.1%), 캐나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06~2008년) 노르웨이와 캐나다의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칠레와 덴마크의 수출비중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수출비중은 0.8%에 불과했다.

표 V-14 갑각류 또는 생선의 어분(HS 2301.20)의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2006	2007	2008	(08/07)
	계	1,141	1,222	1,426	100	100	100	16.6
1	중국	427	506	739	37.5	41.4	51.8	46.1
2	독일	174	162	170	15.3	13.2	12	5.3
3	일본	165	160	141	14.4	13.1	9.9	-12.3
4	베트남	30	44	58	2.6	3.6	4.1	31.2
5	대만	51	41	44	4.5	3.3	3.1	7.9
6	터키	31	44	37	2.7	3.6	2.6	-17.5
7	인도네시아	24	23	34	2.1	1.9	2.4	48.3
8	스페인	15	32	33	1.3	2.6	2.3	1.7
9	칠레	42	11	29	3.7	0.9	2.1	174.4
10	캐나다	34	30	24	3	2.4	1.7	-20.4

자료: World Trade Atlas.

표 V-15 어유 및 지방(HS 1504.20)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2006	2007	2008	(08/07)
	계	196.1	247.9	380.2	100	100	100	53.4
1	벨기에	34.2	38.3	78.1	17.4	15.4	20.6	104.2
2	칠레	45.6	68.5	70.5	23.2	27.6	18.5	2.9
3	노르웨이	8.3	19.8	52.4	4.2	8.0	13.8	165.0
4	덴마크	53.5	62.2	46.1	27.3	25.1	12.1	-25.9
5	캐나다	14.9	17.7	44.3	7.6	7.1	11.7	150.7
6	미국	9.9	14.0	26.0	5.1	5.7	6.8	85.8
7	호주	2.9	7.0	13.0	1.5	2.8	3.4	85.3
8	스페인	4.2	0.0	9.5	2.2	0.0	2.5	62068.0

표 V-15 계속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9	일본	4.0	8.9	8.5	2.1	3.6	2.2	-4.3
10	중국	9.9	4.2	8.5	5.1	1.7	2.2	104.6
12	한국	0.0	0.1	3.2	0.0	0.0	0.8	3203.0

자료: World Trade Atlas.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수출은 2008년 기준 4억 1,7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대비 16%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연체류의 수출규모가 약 2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냉동생선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표 V-16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세부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HS	종류	2006	2007	2008	증가율 (08/07)
307	연체류	160	172	199	16.1
304	생선포 및 기타 생선살	51	70	80	13.8
306	갑각류, 껍질 벗긴 것 포함	49	56	66	16.3
303	냉동생선 (생선포 제외)	33	39	50	26.6
305	절인 생선, 말린 생선, 소금 간한 생선	11	16	16	0.6
301	활어	4	4	4	11.7
03	계	312	361	417	15.7

자료: World Trade Atlas.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20.3%), 스페인(19.9%), 프랑스(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비중도 5.1%로 나타났다.

표 V-17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수출 및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312	361	417	100	100	100	15.7
1	미국	52	75	85	16.6	20.7	20.3	13.4
2	스페인	66	76	83	21	21.2	19.9	9
3	프랑스	36	27	37	11.7	7.4	9	40.4
4	일본	20	18	24	6.3	4.9	5.7	34.1
5	중국	15	17	23	4.8	4.6	5.6	40.2
6	한국	21	22	21	6.6	6.2	5.1	−5.6
7	이탈리아	17	23	18	5.6	6.3	4.4	−18.7
8	베네수엘라	4	7	14	1.2	2.1	3.5	96.2
9	홍콩	9	12	10	2.8	3.2	2.5	−11.2
10	독일	9	11	10	3	3.1	2.4	−9.5

자료: World Trade Atlas.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류 및 기타 무척추류(HS 1605)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64.1%, 2008년 기준), 한국(14.2%), 스페인(5.5%) 순이다.

표 V-18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갑각류·연체류 및 기타 무척추류 (HS 1605)의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60.7	58.9	105.9	100	100	100	79.9
1	중국	36.8	35.9	67.9	60.6	61.0	64.1	89.1
2	한국	8.2	7.6	15.0	13.5	12.9	14.2	98.4
3	스페인	4.5	5.3	5.8	7.4	9.0	5.5	9.1
4	대만	3.8	2.8	5.0	6.3	4.8	4.7	79.1
5	미국	2.6	2.7	3.5	4.2	4.6	3.3	27.8
6	독일	1.4	1.7	2.9	2.3	2.9	2.7	70.4
7	일본	0.5	0.4	1.7	0.9	0.6	1.6	344.4

자료: World Trade Atlas.

표 V-19 조리한 생선 및 통조림(HS Code 1604) 국가별·연도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가율 (08/07)
					2006	2007	2008	
	계	60	67	85	100	100	100	25.4
1	스페인	8	15	17	13.4	21.8	19.9	14.6
2	도미니카공화국	5	7	8	8.1	10.0	10.0	24.4
3	남아프리카공화국	1	6	6	1.1	8.8	7.4	5.5
4	이탈리아	6	4	6	9.2	5.8	7.1	53.9
5	콜롬비아	5	4	6	9.0	5.8	7.0	50.4
6	파나마	4	3	5	6.1	4.8	6.2	60.6
7	칠레	1	3	4	2.0	4.1	5.1	57.8

자료: World Trade Atlas.

라. 국내 소비와 수입

페루 국내 생선 소비량(2004년 기준)은 총 46만 400톤에 달한다. 이 중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는 7.6%인 3만 4,700톤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은 통조림, 신선 및 냉동 생선, 염장 및 건어물 등 모든 형태의 가공물을 포함한다. 페루의 1인당 생선 소비량(2004년 기준)은 19.8kg로 형태별로는 신선 생선 13.6kg, 통조림 2.5kg, 염장 및 건어 1.1kg 순이다.

표 V-20 페루 국내 생선 소비량(2004년)

(단위: 천 톤)

구분	국내산	수입산	총 소비
신선	367.2	7.5	374.7
통조림	35.5	2.2	37.7
냉동	8.5	24.9	33.4
염장 및 건어	14.5	0.1	14.6
총계	425.7	34.7	460.4

자료: 페루 생산부.

수산대국이지만 페루는 국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어종에 한해 수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냉동 대구(horse mackerel)를 들 수 있다. 페루의 생계형 어민들이 주로 건착망을 사용해 대구를 어획해 왔다. 그러나 남획으로 페

루에서 대구는 거의 멸종했다. 원양과 심해에서 발견되는 대구(mackerel) 어종은 트롤망으로 어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페루에서 이같은 조업이 가능한 어선은 제한적이다. 최근 들어 산업용 안초비 어선이 이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주요 수입 수산물은 냉동 생선으로 전체 수산물 수입의 58%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절임 또는 말린 생선, 신선 및 냉장 생선 등도 수입하고 있다.

표 V-21 어류·갑각류·연체류(HS 03)의 연도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HS	구분	2006	2007	2008	증가율 (08/07)
303	냉동생선(SLICE 제외)	13.7	17.8	27.3	53.9
305	절임 또는 말린 생선	0.8	0.5	5.4	1091.7
302	신선한 생선, 냉장 생선(SLICE 제외)	2.0	3.8	5.1	34.8
306	껍질 벗긴 것을 포함한 갑각류	2.5	3.0	3.7	24.1
307	연체류	2.5	1.9	2.9	50.1
304	SLICE와 기타 생선살	1.0	1.2	2.7	121.3
03	총계	22.6	28.1	47.1	67.8

자료: World Trade Atlas.

어류, 갑각류, 연체류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인근 수산대국인 칠레와 에콰도르이다. 특히 칠레로부터 수입 비중(2008년 기준)은 약 50%에 이른다.

표 Ⅴ-22 생선·갑각류·연체류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증가율(08/07)
	계	22.6	28.1	47.1	67.8
1	칠레	10.7	17.3	22.9	32.6
2	에콰도르	8.4	6.2	8.7	40.5
3	아르헨티나	0.1	0.2	5.5	2515.5
4	스페인	0.3	0.1	1.9	1193.6
5	일본	1.6	1.2	1.5	23.1
6	파나마	0.3	0	1	2057.6
7	중국	0.5	1	0.8	−17.1
8	미국	0	0	0.8	1703.2

자료: World Trade Atlas.

조리한 생선 및 통조림의 수입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630만 달러에 이르며 대표적인 수입국은 에콰도르로 전체 수입의 98%를 차지한다.

표 Ⅴ-23 조리한 생선 및 통조림(HS 1604)의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6	2007	2008	변화율(08/07)
1	에콰도르	6.73	6.84	15.87	131.9
2	중국	0.04	0.01	0.26	4076.5
3	스페인	0.06	0.06	0.08	21.9
4	영국	0	0	0.02	968.5
5	칠레	0.02	0.02	0.02	8.5
총계		7.04	6.98	16.3	133.4

자료: World Trade Atlas.

마. 투자

국내 수요의 확대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산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페루가 여러 선진국과 FTA 체결을 확대함에 따라 수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가공업계는 어분 이외의 수산자원을 가공, 판매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산부 차관에 따르면 2009년 중 직접 식용 수산물에 대한 투자 금액은 8,000만 달러, 통조림과 냉동에 대한 투자는 1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들어 Arequipa, Puno, Moquegua, Tacna 등의 지방정부들 역시 수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4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 및 전략

아직까지 페루 수산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은 활발하지 않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냉동 생선, 통조림 분야에 특화해 페루에 진출한 Dyer 그룹과 수산가공업 분야에 진출해 성공한 한국의 Freeko Peru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Dyer 그룹은 전갱이, 고등어, 멸치 등의 통조림 가공공장에 1,000만 달러를 투자, 2009년 6월부터 생산을 개시했다. 이 공장에서는 현재 1교대당 3,600상자의 통조림을 생산, 국내 시장에만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로 판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Dyer 그룹은 Brescia, Hayduk,

Austra Group과 같은 어분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가공품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Dyer 그룹은 1,000만 달러를 추가 투자, 냉동공장(월 생산능력 80톤)도 건설할 예정이다.

둘째, 한국자본의 Freeko Peru사는 1997년에 Piura 근처 Paita에 수산가공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곳은 페루 정부가 특수지역(CETICOS)으로 지정해 특혜를 주는 지역이다. Freeko Peru사는 800만 달러를 투자해 1,080m^2(1일 85톤 생산능력) 면적에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약 100명의 종업원이 4개의 생산라인에서 반조리(semi-cooked)품, 빵가루 묻힌 상품 등을 엄격한 위생 기준과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된 제품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브라질 등으로 수출된다. 최근에는 수출품목을 늘려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으로도 수출을 시작했다.

수출 규모는 2007년 1,200만 달러에서 2008년 2,790만 달러에 달했다. 주요 품목은 생선(HS 1604.20), 연체류(HS 1605.90.), 오징어류(HS 0307.49) 등이다.

5

향후 성장잠재력

페루는 Jackie Alder and Daniel Pauly(2008)이 평가한 어업 지속성 가능 지수 순위에서 전 세계 53개 수산대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향후 페루 수산부문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페루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산 분야는 무엇보다도 양식산업이다. 유망양식 어종으로 해안가에서는 새우, 가리비, 넙치, 틸라피아가 있다. 고원지대에서는 송어 양식이 유망하며 정글 등 아마존 강 유역에서는 관상어, 아마존 강에만 서식하는 어종이 유망하다.

표 Ⅴ-24 어업 지속성 가능 지수 순위

순위	국가	평균 점수	순위	국가	평균 점수
1	페루	6.42	28	스웨덴	3.82
2	나미비아	5.10	29	파키스탄	3.81
3	미국	5.10	30	인도네시아	3.80
4	독일	4.90	31	일본	3.78
5	폴란드	4.82	32	호주	3.78
6	노르웨이	4.71	33	스페인	3.77
7	세네갈	4.70	34	대만	3.75
8	칠레	4.67	35	태국	3.74
9	남아공	4.64	36	베트남	3.70
10	가나	4.59	37	러시아	3.67
11	네덜란드	4.56	38	터키	3.60
12	뉴질랜드	4.54	39	아이슬랜드	3.58
13	나이지리아	4.45	40	인도	3.57
14	영국	4.40	41	스리랑카	3.57
15	말레이시아	4.34	42	멕시코	3.56
16	한국	4.31	43	프랑스	3.50
17	라트비아	4.30	44	예멘	3.49
18	필리핀	4.28	45	북한	3.46
19	앙골라	4.27	46	포르투갈	3.39
20	미얀마	4.25	47	덴마크	3.34
21	캐나다	4.23	48	브라질	3.27
22	아일랜드	4.13	49	이란	3.12
23	이탈리아	4.03	50	에콰도르	3.00
24	중국	3.96	51	방글라데시	2.81
25	모르코	3.93	52	아르헨티나	2.55
26	이집트	3.92	53	페로제도	2.29
27	우크라이나	3.90			

자료: Jackie Alder and Daniel Pauly(2008).

표 Ⅴ-25 유망 양식 어종

지역	어종
해안	– 새우, 조개, 넙치, 틸라피아
고원	– 송어
정글	– 파이체(paiche), 관상어, 아마존 어종

해양 수산부문에서는 냉장유통 체계 구축사업이 유망하다. 또한 전통적인 어분 및 어유 가공업 이외에 대양 및 심해어업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상자 7 수산부문 주요 투자 기회

– 직접식용: 안초비 가공 어분
– 페루 여러 도시에 냉장유통(cold chains) 체계 설립
– 대양어업: 참치, 황새치, 상어, 만세기(mahi mahi)
– 심해어업: 심해 대구, 유럽 거미게, 심해 새우

Ⅵ

한국·페루 산업협력 및 진출방안

1 / 협력 및 진출 여건

2 / 한·페루 산업협력 현황

3 / 한·페루 산업협력 방안

1

협력 및 진출 여건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 여건이나 진출 환경이 매우 양호한 국가이다. 먼저 페루는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이다. 흔히들 우리가 중남미 지역에 갖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국가다. 페루 경제의 안정성과 높은 성장성은 세계 주요 분석기관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IMD의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페루는 실질GDP 성장률과 1인당 실질GDP 성장률 항목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또한 환율 안정성 측면에서도 2위, 재정 건전성 항목에서는 9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 기초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페루는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등과 더불어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다. 이는 페루가 중남미 국가 중 해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는 평가다.

둘째, 페루는 거시경제 환경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국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상위에 올라있다. 2009년 평가에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었다.

표 VI-1 중남미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10) 순위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국가
37	1	콜롬비아
49	2	칠레
51	3	멕시코
56	4	페루
75	5	자메이카
77	6	파나마
80	7	벨리즈
81	8	트리니다드토바고

표 VI-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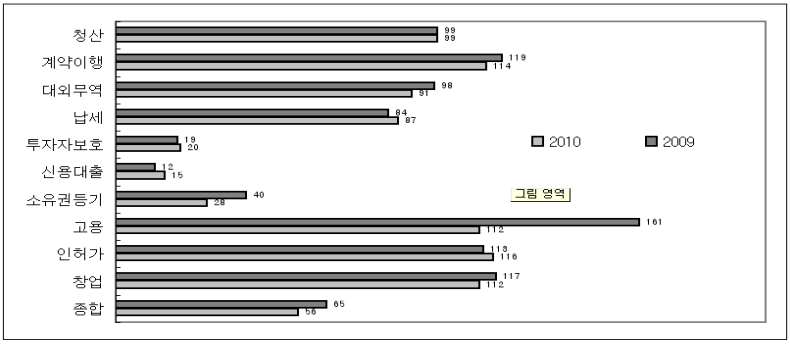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국가
83	9	도미니카
84	10	엘살바도르
86	11	도미니카공화국
110	12	과테말라
114	13	우루과이
118	14	아르헨티나
121	15	코스타리카
129	16	브라질
138	17	에콰도르
151	18	아이티
155	19	수리남
161	20	볼리비아
177	21	베네수엘라

자료: World Bank(2009).

항목별로 페루의 기업환경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자자 보호가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다. 항목의 순위로 볼 때, 페루의 투자자 보호 수준은 선진국에 버금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안심하고 페루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페루는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 31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BIT)를 체결하고 있으

며,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와 국제투자분쟁중재기구(ICSID)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Ⅵ-1 항목별 페루의 기업환경 순위



자료: World Bank(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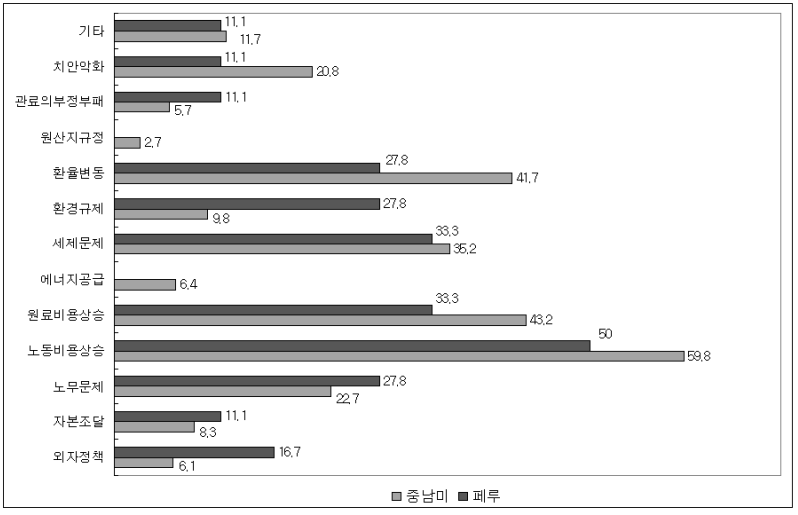
셋째, 페루 내에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양호한 데다 한·페루 FTA 협상이 종료되고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커 우리 기업의 대페루 진출 여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페루의 진출 환경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는 진출대상국으로서 페루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일본 무역투자진흥기구(JETRO)가 페루 진출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본기업들이 페루에서의 사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비용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50%가 이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페루 경제가 고성장세를 구가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비용 상승은 페루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중남미 진출 모든 일본기업들이 부딪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VI-2 일본기업들이 중남미 및 페루 현지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단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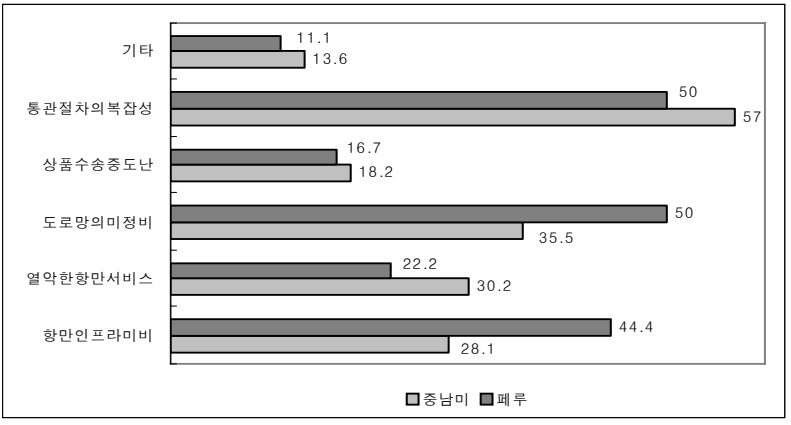
자료: JETRO(2009).

둘째, 세제 문제이다.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페루에서도 복잡한 세제와 과중한 세수 부담이 일본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산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세제조치는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환경규제이다. 최근 페루에서는 환경관련 분쟁이 크게 확산되며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환경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광산개발의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Ⅵ-3 중남미 및 페루 진출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물류상의 문제점

(단위: %, 복수응답)



자료: JETRO(2009).

넷째, 물류 및 인프라 문제이다. 특히 복잡한 통관절차는 수출입 과정에서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도로망과 미흡한 항만 인프라도 페루 진출 일본기업들이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었다.

2

한·페루 산업협력 현황

가. 경제협력 현황

1) 수출입 현황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9대 수출대상국이자 5대 수입대상국이다. 2008년 기준으로 대페루 수출규모는 7억 2,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대중남미 총 수출 2.2%를 차지한다. 그에 반해 대페루 수입규모는 9억 3,894만 달러로 우리나라 대중남미 총 수입의 6.6%를 점유한다.

표 Ⅵ-2 중남미 10대 수출입 대상국(2008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멕시코	9,089,949	27.3	브라질	4,380,460	31.8
2	파나마	6,463,703	19.4	칠레	4,127,354	30.0
3	브라질	5,925,866	17.8	멕시코	1,049,284	7.6
4	칠레	3,031,843	9.1	아르헨티나	914,772	6.7
5	바하마	2,069,130	6.2	페루	903,894	6.6
6	콜롬비아	1,090,759	3.3	파나마	872,781	6.3
7	버뮤다	789,999	2.4	트리니다드토바고	451,388	3.3
8	베네수엘라	728,387	2.2	볼리비아	202,540	1.5
9	페루	720,004	2.2	푸에르토리코	191,289	1.4
10	에콰도르	626,426	1.9	콜롬비아	143,429	1.0
	소계	30,536,066	91.8	소계	13,237,191	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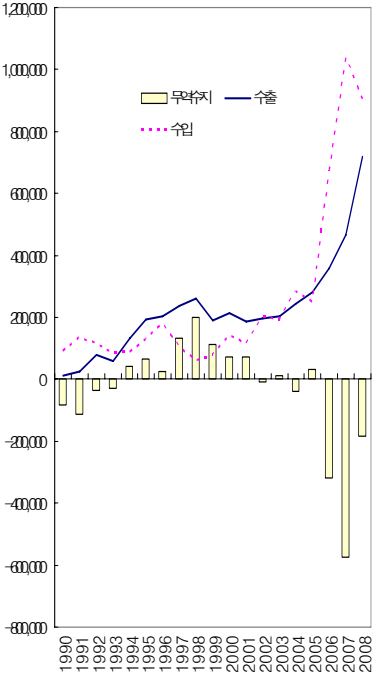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2003년 이후 큰 폭의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는 2004년부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규모는 2004년 3,809만 달러에서 2007년에는 5억 7,372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2008년 수입 증가세 둔화로 크게 감소했다.

표 Ⅵ-3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입 추이 현황

(단위: 천 달러)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90	10,042	93,898	−83,856
1991	24,626	136,429	−111,803
1992	77,989	114,838	−36,849
1993	57,588	85,562	−27,974
1994	131,570	88,522	43,048
1995	194,237	130,441	63,796
1996	204,452	180,701	23,751
1997	236,177	104,027	132,150
1998	260,274	61,925	198,349
1999	189,617	78,042	111,575
2000	213,412	142,928	70,484
2001	187,837	116,345	71,492
2002	195,834	204,570	−8,736
2003	204,397	194,417	9,980
2004	245,026	283,116	−38,090
2005	282,285	249,489	32,796
2006	358,875	675,897	−317,022
2007	466,161	1,039,888	−573,727
2008	720,004	903,894	−183,890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양국간 수출입은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광물 및 수산물을 수입하는 전형적인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의 형태를 띠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30.4%, 2008년), 합성수지

(10.9%), 석유제품(5.3%)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아연광(34.8%), 동광(33.3%) 등이다.

표 Ⅵ-4 대페루 10대 수출입 품목(2008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자동차	219,000	30.4	아연광	314,901	34.8
2	합성수지	78,449	10.9	동광	301,027	33.3
3	석유제품	38,461	5.3	기타 금속광물	156,101	17.3
4	정밀화학원료	30,428	4.2	석유제품	24,636	2.7
5	철강판	28,434	3.9	수산가공품	24,145	2.7
6	무선통신기기	26,695	3.7	기호식품	22,669	2.5
7	기타 석유화학 제품	26,265	3.6	철광	18,226	2.0
8	건설광산기계	22,784	3.2	어육 및 어란	9,687	1.1
9	고무제품	20,356	2.8	연체동물	9,099	1.0
10	형강	20,068	2.8	의류	6,612	0.7
		510,940	71.0		887,103	98.1

자료: 한국무역협회(KOTIS).

2) 투자 현황

후지모리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여건 개선 및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그간 전무했던 한국기업의 대페루 투자가

1994년부터 개시되었다. 페루 시장이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과거 테러집단들의 활동에 의한 치안부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특혜제도 마련 미비 등의 요인으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기업들의 투자관심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페루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 등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적극 운용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기업들의 대페루 투자 관심이 여러 분야에서 표출되었다.

페루는 2000년대 들어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2009년 6월말 현재 대페루 투자규모는 7억 815만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버뮤다, 케이만군도,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이다.

표 Ⅵ-5 중남미 국별 직접투자 현황(2009년 6월 누적)

(단위: 천 달러, %)

국가	투자금액	비중
버뮤다	3,102,085	31.9
케이만군도	1,819,688	18.7
브라질	1,077,457	11.1
멕시코	827,813	8.5
파나마	715,670	7.4
페루	708,159	7.3
영국령 버진군도	527,172	5.4

표 Ⅵ-5 계속

국가	투자금액	비중
아르헨티나	160,356	1.7
과테말라	109,002	1.1
온두라스	108,539	1.1
칠레	107,711	1.1
푸에르토리코	67,426	0.7
베네수엘라	66,514	0.7
볼리비아	61,255	0.6
콜롬비아	54,054	0.6
바하마	38,875	0.4
엘살바도르	36,085	0.4
코스타리카	33,236	0.3
니카라과	32,195	0.3
에콰도르	14,386	0.1
자메이카	11,330	0.1
아이티	10,876	0.1
벨리세	6,437	0.1
도미니카공화국	4,107	0.0
파라과이	3,927	0.0
가이아나	3,600	0.0
우루과이	1,469	0.0
바베이도스	1,186	0.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870	0.0
수리남	665	0.0
세인트루시아	500	0.0
트리니다드토바고	76	0.0
쿠바	0	0.0
총계	9,712,72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연도별로 대페루 투자는 1994년부터 시작돼 2003년에 1억 1,371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0년대 연평균 1,610만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규모는 2000년대 들어 6,558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표 VI-6 연도별 대페루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1	0	0	0
1994	1	1	750	750
1995	3	1	1,613	1,301
1996	7	2	77,999	54,124
1997	8	5	58,248	17,567
1998	4	0	54,688	17,619
1999	2	1	5,952	5,264
2000	4	3	64,235	25,023
2001	6	3	90,938	16,641
2002	8	3	162,136	86,921
2003	3	1	35,598	113,716
2004	2	0	40,583	76,798
2005	2	0	113,754	33,322
2006	7	3	193,949	61,635
2007	7	5	10,277	94,098
2008	9	5	274,664	82,149
2009. 1~9	8	2	117,628	31,341
총계	82	35	1,303,014	718,26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업종별로 대페루 투자는 광업에 집중돼 있다. 전체 투자의 95%가 광업에 대한 투자이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4.1%, 제조업 1.2% 순이다. 광업 중에서도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가 98.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표 VI-7 업종별 대페루 직접투자 현황(2009년 9월 누계 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 기준		투자 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2	2,670	0.2	236	0.0
광업	46	16	1,255,453	96.3	679,299	94.6
제조업	14	6	13,223	1.0	8,725	1.2
건설업	1	1	235	0.0	235	0.0
도매 및 소매업	14	8	30,755	2.4	29,195	4.1
운수업	2	1	566	0.0	566	0.1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1	111	0.0	11	0.0
총계	82	35	1,303,014	100.0	718,268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3) 개발원조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대 무상원조 지원국이

다. 2007년말 현재 페루에 대한 무상원조 규모는 1,729만 달러로 중남미 총 무상원조의 28.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VI-8 대중남미 국별 무상원조 지원 현황

(단위: 달러, %)

국가	2005	2006	2007	합계	비중
페루	2,723,713	4,345,792	10,227,164	17,296,669	28.1
파라과이	2,308,479	1,880,617	6,127,356	10,316,452	16.7
과테말라	1,375,195	1,927,782	2,871,231	6,174,208	10.0
에콰도르	122,041	941,410	4,133,235	5,196,686	8.4
엘살바도르	1,971,536	297,493	1,225,270	3,494,299	5.7
도미니카공화국	156,577	1,069,698	1,233,139	2,459,414	4.0
온두라스	79,404	449,433	1,777,070	2,305,907	3.7
볼리비아	130,795	146,624	1,096,038	1,373,457	2.2
니카라과	486,899	374,616	148,953	1,010,468	1.6
콜롬비아	156,549	201,890	239,739	598,178	1.0
자메이카	17,602	142,598	275,115	435,315	0.7
아이티	134,154	30,307	191,514	355,975	0.6
기타	2,340,895	2,148,451	6,093,497	10,582,843	17.2
합계	12,003,839	13,956,711	35,639,322	61,599,872	100.0

자료: KOICA.

4) 한·페루 FTA 협상 추진 현황

가) FTA 협상 현황

한·페루 FTA 협상 논의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 시 톨레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 11월 한·페루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민간공동연구기관 간 FTA 체결 타당성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서울대학교, 페루 측은 전국경제인단체(CONFIEP)를 각 연구기관으로 선정, 2007년 10월 리마, 2008년 4월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민간공동연구를 개최했다. 2008년 5월 양국은 민간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글상자 8 한·페루 FTA 협상 일지

- 2005.11 APEC 계기 정상회담 시 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제안
- 2006.11 APEC 합동 각료회의 시 FTA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 2007.10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페루 리마)
- 2008. 4 한·페루 F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 2008. 5 민간공동연구 종료
- 2008.10.7 한·페루 FTA 공청회 개최
- 2009. 1.20-21 한·페루 FTA 사전준비회의(페루 리마)
- 2009. 3.16-20 한·페루 FTA 제1차 협상(서울)
- 2009. 5.11-14 한·페루 FTA 제2차 협상(페루 리마)
- 2009. 6.29-7.3 한·페루 FTA 제3차 협상(서울)
- 2009.10.19-22 한·페루 FTA 제4차 협상(페루 리마)

양국은 공동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2009년 3월 1차 협상을 시작하여 2009년 말 4차 협상을 마쳤다. 핵심 쟁점인 상품 양허, 일시입국, 수산협력 분야에서 양측간 이견으로 당초보다 협상 완료가 지체되고 있다.

나) 한・페루 FTA 협상 추진의 의의

페루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페루와의 FTA 체결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페루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선점한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페루의 경제규모(1,270억 달러, 2008년)는 우리나라의 1/10 규모에 불과하며, 수출규모도 5억 달러 미만에 그치고 있어 관세철폐 등을 통한 단기적인 FTA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한・페루 FTA는 페루가 갖고 있는 광물에너지, 농림수산자원, 생물자원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페루는 최근 대형 유전 및 가스전 발견에 힘입어 중남미 유망 산유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페루는 어분, 어유, 아스파라가스 수출 세계 1위, 사탕수수 생산성 세계 1위, 식물다양성 보유 세계 8위, 삼림면적 보유 세계 10위 등 다양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둘째, 한・페루 FTA는 남미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페루는 지리적으로도 태평양에 면해

있는 데다 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미지역 진출의 전략적 관문으로서 가치가 높다. 페루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카야오 항구는 한국과 중남미간 최단 거리 항구이다. 특히 페루(월평균 임금 330달러, 2007년 기준)는 콜롬비아(709달러), 브라질(499달러), 칠레(485달러), 멕시코(481달러) 등에 비해 임금 수준도 낮아 제조업 진출기지로서도 활용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한・페루 FTA는 중남미 경제의 떠오르는 블루칩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페루는 중남미 경제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데다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다)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한・페루 FTA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페루 FTA는 한국과 페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규모가 페루 경제에 비해 10배 가량 크기 때문에 FTA 효과는 페루 경제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페루 FTA로 한국은 0.01% 소득증가, 0.006% 후생 증가, 0.03%의 수출입증가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페루의 경우 양자간 FTA로 0.23% 소득증가, 0.22% 후생증가, 0.66% 수출, 0.65%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Ⅵ-9 한·페루 FTA 경제적 효과

거시경제변수	한국(%)	페루(%)
후생	0.0063	0.2200
GDP	0.0100	0.2300
수출	0.0311	0.6600
수입	0.0345	0.6500
무역수지	−0.0001	0.0000
고용	0.0000	0.2900

자료: 김종섭(2008), 「한·페루 FTA 추진 필요성」, 한·페루 FTA 공청회 자료.

품목별로 수출의 경우 승용차, 모터사이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등 비교적 높은 관세(9%)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들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종 수입품목인 아연광 및 동광의 수입관세가 0%이므로, 관세철폐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냉동어류, 포도, 커피, 사탕수수당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나. 분야별 산업협력 현황

1)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현황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자원협력대상국이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페루와 가장 먼저 자원·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2003년 2월 자원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페루에 이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연이어 양자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립, 현재 중남미 8개 자원부국과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2009년 말까지 페루와는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표 VI-10 중남미 국가와의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현황(2009년 9월 현재)

국가	설치	대표	개최현황
브라질	2004.11	장관	2007.12, 2차(브라질)
칠레	2004. 6	국장	2009. 8, 3차(칠레)
아르헨티나	2004.11	국장	2008. 9, 2차(한국)
멕시코	2005. 9	국장	2006. 6, 1차(멕시코)
페루	2003. 2	국장	2009. 3, 4차(페루)
에콰도르	2007.12	국장	2008.11, 1차(에콰도르)
콜롬비아	2009. 3	국장	2009. 8, 1차(콜롬비아)
베네수엘라	2009. 3	국장	2009. 3, 1차(베네수엘라)

자료: 지식경제부.

최근 들어서는 자원에너지 유관기관 간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페루 지질광업제련연구원(INGEMMET)은 2003년 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2007년에는 6개월간 La Libertad 및 Ancash 지역의 광물개발 잠재력 평가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2008년에는 9개월간 페루 서부산악지대(Ancash 지역)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KORES)도 페루 INGEMMET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2008년에는 Cusco, Puno 지역 우라늄 매장 분포 연구를 위한 MOU를 맺었다. 2009년 8월에는 광물매장 현황 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 세미나, 워크숍, 방문을 통한 광물협력 촉진 MOU를 맺었다.

기업의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대우, 대한석유공사, SK에너지, 골든오일 등이 페루 가스 및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이며 페루 내 석유 및 가스 탐사 확대, LNG 공급 확대 등 우리 업체들의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SK에너지는 Camisea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88 및 56 광구 개발권을 확보했다. 또한 SK에너지는 LNG 컨소시엄을 통해 LNG 공장 건설사업에 참여 중이며 향후 석유화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2009년 2월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Ecopetrol과 공동으로 페루의 민간석유회사인 Petro-Tech사를 인수, 중남미 NOC와의 첫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이번 Petro-Tech사 인수는 한국석유공사 최초이자 국내 사상 최대의 외국석유회사 M&A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는 그동안 추진해온 단순한 해외광구의 지분 및 자산매입에서 벗어나 회사 및 인력을 직접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하게 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번 인수로 한국석유공사는 선진기술 및 전문인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숙련된 생산운영 인원 645명과 플랫폼 건설 및 자재관리 인원 1,200명, 시추전문가 230명 등 각 분야의

글상자 9 한국석유공사와 중남미 NOC와의 협력 사례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2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Ecopetrol과 합작으로 남미의 자원부국 페루의 민간석유회사 Petro-Tech社를 인수했다. Petro-Tech社는 페루 해상광구의 약 75%(면적대비)를 소유한 민간 석유회사로, 지주회사, 시추회사 등 13개 기업 3,000여 명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매장량 15억 2,800만 배럴, 원유 생산량 1만 2,500b/d, 가스 생산량 7,158b/d의 생산광구 1개(2,000㎢)와 기대매장량 6억 8,900만 배럴의 탐사광구 10개(7만 4,216㎢)를 가지고 있다. 석유공사의 인수지분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 Ecopetrol社가 보유하고 있다. 향후 석유공사는 Ecopetrol과 Petro-Tech社를 공동으로 경영하되 사장은 석유공사에서 선임키로 하고, 경영진은 총 6명(석유공사 3명, Ecopetrol 3명)으로 구성했다.

자료: 한국석유공사.

인력을 대거 확보해 메이저 수준의 유전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광물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활발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광종은 금과 동이며, 주요 진출업체로는 LS니꼬, 광업진흥공사, 크레피아, 세마미네랄 등이다. 특히 페루 Marcona 동광 개발 사업에 국제컨소시엄으로 진출한 우리 업체 LS Nikko사(480만 달러 투자)가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동광을 생산할 예정이다.

2) IT 분야 협력 현황

현재 페루와는 2008년 11월 대통령의 페루 순방 후속조치로 전자정부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페루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후속 사업으로 페루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타당성조사(F/S)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콘텐츠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으로 2008년 9월 아리랑국제방송과 페루 국영TV(IRTP) 간의 방송교류 협정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방송교류협정 체결사 간 유대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미디어 부분의 파트너십을 통한 양국간 방송교류를 활

성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 대표적인 협력은 삼성네트웍스가 2007년 6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페루 국립공과대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정보통신 분야 무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삼성네트웍스는 △ICT 교육센터 건립 △교육용 정보통신 기자재 지원 △네트워크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내 전문가 파견 및 페루 실무 대국내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삼성네트웍스는 이번 페루 협력 사업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 내 IT기술 수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네트웍스는 페루 외교부 본부를 비롯한 36될 해외공밀 페 ICT 인프라 개선과 영사 업무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외교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도 함께 수주했다.

3) 수산부문 협력 현황

페루 정부는 한·페루 양국이 해양국가로서 APEC 회원국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발전된 수산·어업 기술과 페루의 풍부

한 어업자원을 결합한 협력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페루 수산청(IMARPE)은 우리 해양연구소와 협력, 2008년부터 Summer School Project를 본격적으로 추진(페루 해양 전문요원의 방한 및 연수 프로그램)하고 있다.

우리 해양연구소는 중남미 수산어업 진출의 거점인 페루 측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페루 내 어업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가공업과 관련해 우리 업체들의 대페루 수산가공업 투자가 활발하며, 페루 측은 어업자원 개발 및 기술전수, 고용효과 등을 고려, 우리 업체들의 더 많은 투자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페루의 한인 수산업체는 대원수산 등 11개사에 달하며 주로 오징어 건어포, 장어 필레트, 대리점, 제빙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수산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7,000만 달러에 달한다.

다. 한국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실태 평가[17)]

우리 기업들은 왜 페루에 투자할까? 무엇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자원개발, 원자재 및 부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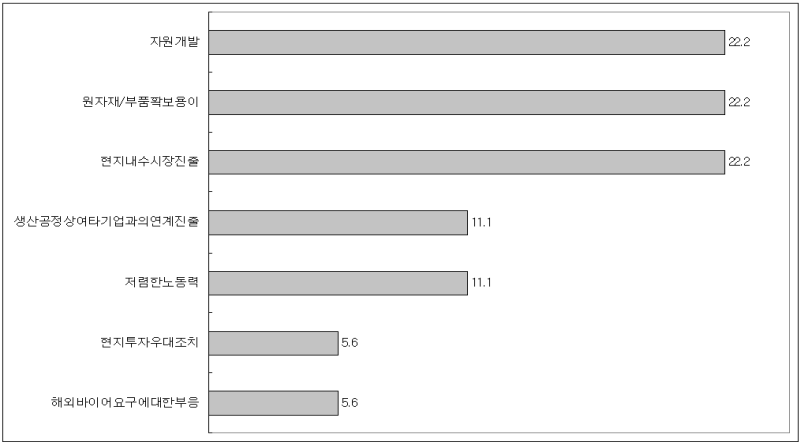
17) 본 설문조사는 2009년 하반기 실시되었으며 총 응답기업 수(전체 설문대상 기업 수 총 10개사)는 10개사이다.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 동등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페루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중에서 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는 유사한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 기업들은 페루의 풍부한 자원을 겨냥, 이를 개발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진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페루 진출의 가장 큰 동기는 페루 현지의 자원 개발·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VI-4 페루 시장 투자진출 동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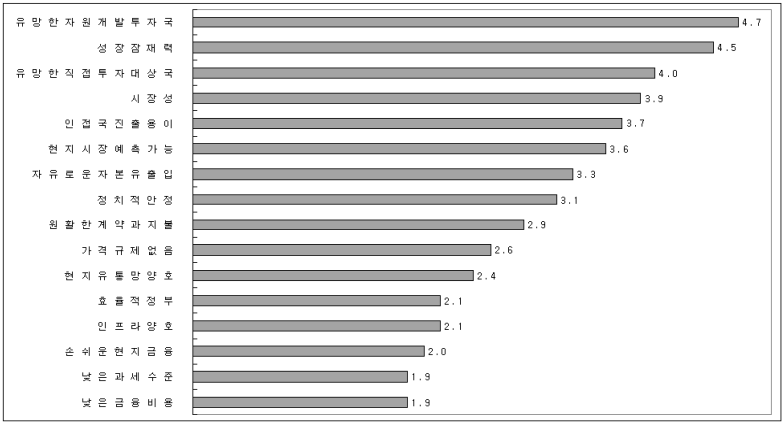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우리 기업들은 투자진출대상국으로 페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은 자원개발 투자대상국으로

유망하다는 것이다. 페루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개발 잠재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또한 페루 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루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은 시장규모의 확대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다. 남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페루의 지경학적 이점도 향후 투자진출 대상국으로 페루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현지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자본유출입이 자유롭다는 점,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페루 시장의 장점으로 지목되었다.

그림 VI-5 투자진출대상국으로서 페루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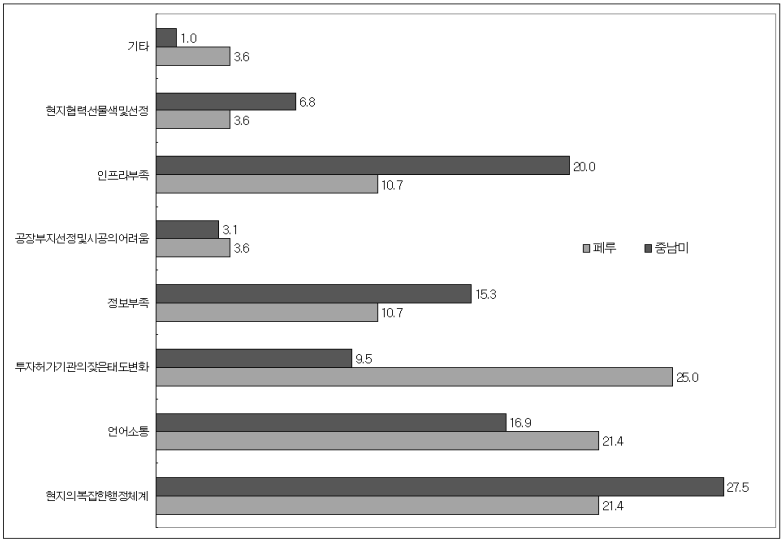


주: 척도 5 = 매우 그렇다. 1 = 전혀 아니다.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우리 기업들이 페루에 투자진출 단계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허가기관의 잦은 태도 변화(전체 응답기업의 25%)였다.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와 언어 소통 문제도 우리 기업들이 겪는 커다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VI-6 우리 기업들이 페루 진출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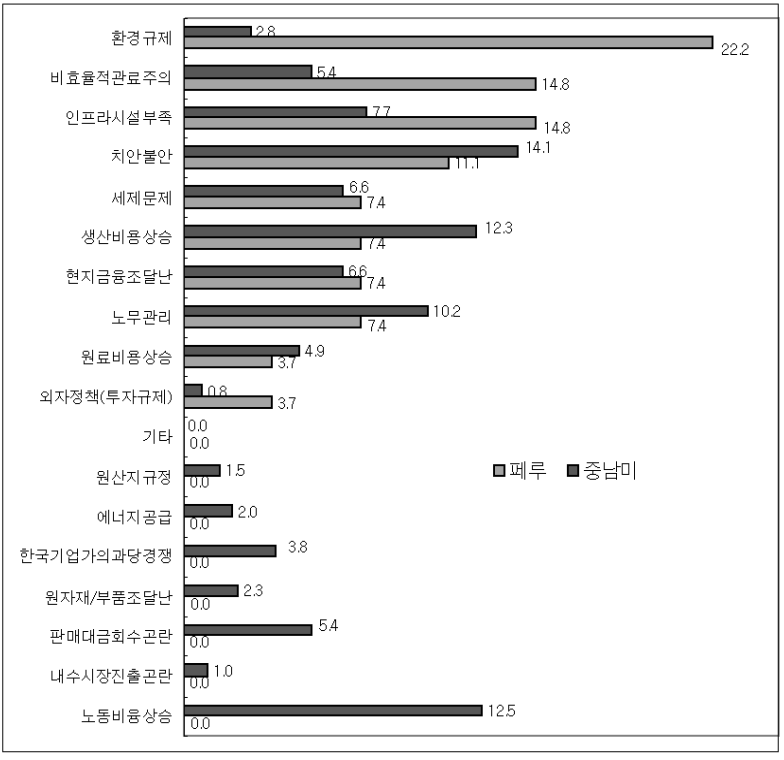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페루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전체의 22%에

달했다. 이는 중남미 전체 비중에 비하면 매우 큰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설문응답 기업 중 자원개발 기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VI-7 페루 진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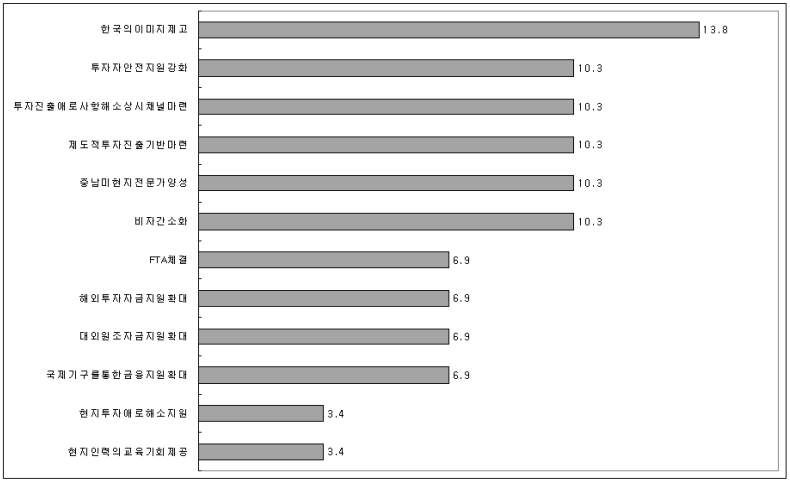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페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국에서 한국경제, 문화 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페루와의 경제협력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페루 현지에서 한국이나 한국기업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투자자 안전지원, 투자진출 애로사항 해소 상시채널 구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투자진출 제도 기반 구축, 중남미 현지 전문가 육성, 비자간소화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거론되었다.

그림 VI-8 한국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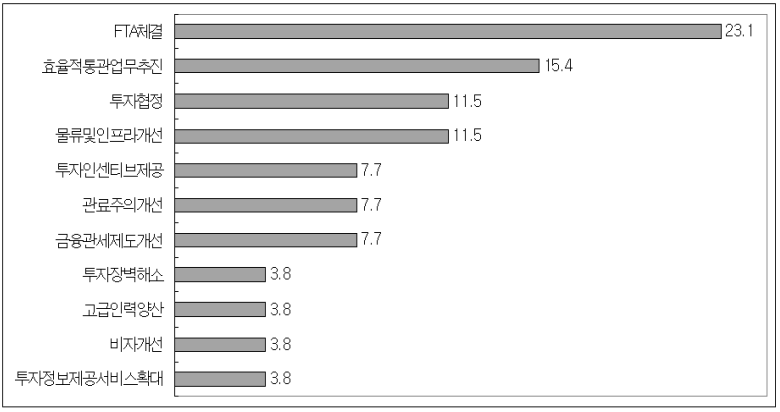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우리 기업들의 페루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과의 FTA 체결이었다. 이 같은 요구는 현재 한·페루 FTA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통관업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페루의 경우 관세 수준은 낮은 편이나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관 절차의 복잡성이 원활한 교역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목할 요구 사항은 투자협정 체결과 물류 및 인프라 개선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림 VI-9 페루 현지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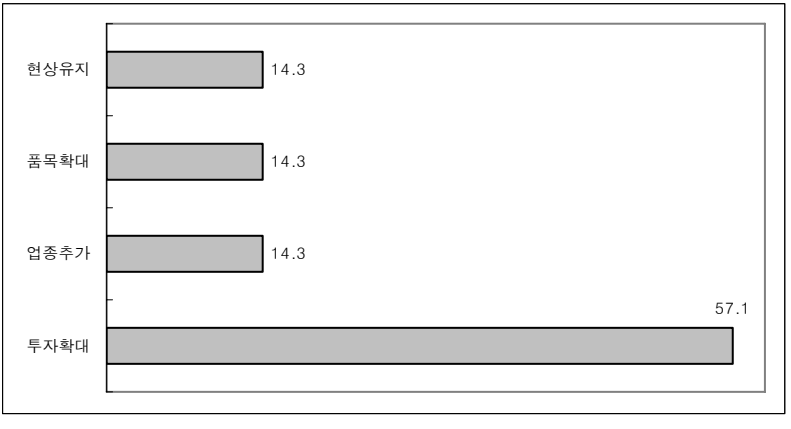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우리 기업들은 향후 페루시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기업의 96%가 2009년 하반기 조사시점보다 품목 확대, 업종 추가, 투자 확대 등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보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다는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그림 VI-10 향후 사업계획

(단위: %)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3

한·페루 산업협력 방안

가. 산업협력 확대 필요성 및 협력 방향

페루 경제는 규모가 크지 않아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은 인근 멕시코나 브라질에 비해 크지 않다. 페루 경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대페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 현재 수출규모는 7억 2,000만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9번째 수출대상국이다.

그러나 페루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투자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풍부한 광물·에너지 자원을 갖고 있어 전 세계 자원 메이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지

역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페루는 현재 중남미 국가 중에서 금속광물 자원 메이저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또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광물에너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페루는 아마존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어 광물·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21세기형 자원인 생물·에너지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또한 페루는 조만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FTA 협력대상국으로서도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이와 같은 페루 경제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해볼 때 페루와의 산업협력을 축으로 한 경제협력의 확대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급성에 기초해 페루와의 산업협력은 페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 할 것이다.

또한 페루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저소득국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이해를 앞세운 협력보다는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협력사업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페루 경제가 6%대의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광물·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쇄도로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어 상대국의 노골적인 이해가 드러

나는 협력사업은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한 협력정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협력여건을 구축한다는 견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협력 방안

1) 한・페루 산업협력위원회 설립

페루와의 포괄적인 산업협력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장으로 양국간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산업협력위원회는 한・페루 FTA 이후 산업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양국간 비즈니스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채널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중기적으로는 한・페루 산업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산업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인 한・페루 산업협력센터 혹은 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및 콜롬비아와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브라질과는 2008년 11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다.[18] 양국간 1차 회의는 20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

18) 당시 한・브라질 정상 참석하에 한・브라질 산업협력위원회 구성 MOU가 체

되었다.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11월 합의되어 2009년 3월 MOU가 체결되었다. 제1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9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한・페루 과학기술공동위 신속 개최

현재 양국은 그간 상호간에 대한 관심 부재로 1984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이를 진전시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나 관련 후속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점증하는 페루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신속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간 향후 과학기술협력 방향과 우선협력 분야 발굴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논의와 협의를 토대로 향후 세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EDCF와 산업기술협력을 연계한 진출 모색

페루와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페루와의 EDCF 사업은 한건도 추진되고 있지 않다. 지

결(2008.11, 브라질리아)되었다.

금까지 페루에 대한 EDCF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 측의 사업발굴 노력 부족 탓도 있겠지만 페루 측에서 타이드 론(tied loan) 성격의 EDCF를 기피했던 것도 작용한다. 따라서 페루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젝트를 발굴, 협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페루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낙후된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산업기술협력은 EDCF 자금을 활용해

표 VI-11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EDCF 지원 현황(2009년 말, 승인액)

연도	국가명	사업명	승인액 백만 달러	비고
1995	에콰도르	전화통신망 확충	15.0	자금지출 완료
1998	파나마	의료보건 현대화	20.0	〃
	니카라과	송배전망 확충사업	5.7	〃
	온두라스	지방 배전망 확충	6.0	〃
2000	볼리비아	교량건설사업	23.0	〃
2003	온두라스	치안강화사업	2.5	자금집행 중
2004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확충사업	17.2	구매계약 추진
2005	온두라스	아틀란티다 병원사업	24.2	자금집행 중
	도미니카(공)	관세청 전산화사업	23.0	구매계약 추진
2006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확장사업	43.6	〃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	23.6	L/A체결 추진
	니카라과	직업훈련소사업	12.6	〃
2007	니카라과	후이갈파 상수도 2차사업	15.9	〃
계 (13건)			23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페루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4) 미주개발은행(IDB)의 신탁기금을 활용한 산업기술협력 추진

2005년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출연한 지식공유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페루와의 산업기술협력을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측에서 페루 측의 산업기술 발전의 당면 과제를 면밀히 분석, 관련 사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기금을 활용해 한국의 산업기술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산업기술 이전과 협력을 매개하는 장으로서 가칭 한·페루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페루 진출 우리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속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은 양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협정은 우리 측

의 협정 교섭회담 개최 촉구에도 불구하고 페루 측의 내부사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6) 한·페루 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설립 운영

우리 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국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 채널 부재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즈니스 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글상자 10 일본·멕시코 FTA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

- 일·멕시코 FTA 체결 시 일본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설치
- 이 위원회는 일·멕시코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민간 대표도 참석 가능
-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대표, 주멕시코 일본대사, 민간에서는 일본경단련,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 일본계 마킬라도라협의회, JETRO 대표가 참석
- 2005년 4월 개최된 제1회 비즈니스정비위원회에서는 일본 측이 제기한 치안, 지적재산권, 채권 회수, 수송 인프라, 출입국 관리 등이 주요 의제로 채택

이에 따라 페루 투자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현지

국 정부에 전달하고 협의하며 해소할 수 있는 공식 채널로 가칭 '한·페루 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중남미 FTA 체결 대상국과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설치, 자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채널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다.

다. 분야별 협력 및 진출방안

1) 광물에너지

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1) 한·페루 금속·광물 유관기관 간 기술협력 확대

페루의 경우 풍부한 금속광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기술 분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따라서 페루 금속·광물 산업 진출의 여건 마련 차원에서 금속광물 분야 유관기관과 1차적으로 기술협력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탐사분야 기술 협력, 지질학(광산학) 교육 & 연구, 관련인력 육성 프로그램, 광해대책 등이다. 주요 협력대상 기관은 광물금속지질연구원(INGEMMET)을 들 수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페루와의 협력을 다지기 위한 '한·페루 금속·광물산업협력센터' 설립 추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광해대책 분야에서 협력 모색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광산개발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에 따라 페루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휴광과 폐광의 처리로 크게 고심하고 있다. 광산개발은 자연훼손을 유발하고 광산이 폐쇄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중금속으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등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페루 정부는 이 같은 휴폐광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NGO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일본은 광물에너지기구인 JOGMEC과 국제협력기구인 JICA를 중심으로 페루와 광해(鑛害)대책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광물개발 투자진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페루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광해대책 분야에서도 협력을 적극 모색, 페루 자원개발 진출의 자연스러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폐광 활용 경험 공유사업 추진

페루와 휴폐광 분야에서 협력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휴폐광을 새롭게 활용하는 협력사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상자 11 일본과 페루의 광해대책 분야 협력 현황

2008년 12월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광해정책전문가 파견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4월부터 2년간 페루 에너지광업부에 광해행정 자문관 파견, 광해관련법 정비 및 광해방지전략계획 작성 조언, 조직 및 인재의 강화 등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이다.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도 페루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한 폐광조사와 환경조사를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JOGMEC.

우리나라는 2006년 6월 광해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해 지반안정, 수질개선, 토양오염방지, 산림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폐광 지역의 대체사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대외원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19]의 하나로 페루의 폐광촌 대체사업 육성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도 적절한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19)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도국에 경제발전 전략수립의 정책자문을 통해 지원해주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08년까지 13개국에 대해 83개 과제가 지원되었으며, 우리 컨설턴트들의 정책자문 결과를 많은 국가들이 실제 자국 경제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있다. 일례로 도미니카공화국은 2008년 수출진흥전략에 대한 정책자문 시 제안되었던 도미니카공화국 판 코트라와 수출입은행 설립을 현재 적극 추진 중이다.

나)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

(1) IDB와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강화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현지 진출 대상국이나 대상지역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페루에서는 광물에너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출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을 IDB와 연계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0월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는 IDB와 중남미 지역에서 CSR 활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CSR 협력사업 발굴, 우수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의 전략회의 개최,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 추진 등이다.

(2) 패키지딜을 통한 진출 방안 적극 모색

최근 자원개발과 인프라 또는 플랜트 건설을 연계시키는 '패키지형' 진출 방식이 취약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진출 전략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표 Ⅵ-12 중남미 국별 계약 참여 방식

국가	수의계약	입찰
브라질	– 가능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에 국한	– 원칙적 공개입찰 – 업체간 공정경쟁 체제

멕시코	– 불가능	– 모든 프로젝트 공개입찰
		– 공공건설, 개발 프로젝트 관련 계약, 조달구매계약 등은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 (http;//compranet.gob.mx) 통해 수행
		※ 석유가스 하류부문 국제입찰의 경우 FTA 체결국에 국한

베네수엘라	– 가능 – 정치경제적 관계 고려, 국가나 정부간 협정 통한 계약 체결	
칠레	– 가능 – 선정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하도급의 경우 가능	– 원칙적 공개입찰 – 정부 및 국영기업 발주 프로젝트는 모두 공개입찰
아르헨티나	– 가능 – 인맥, 정치적 논리 활용	– 원칙적 공개입찰 – 주정부 주도 국제입찰 (23개 주정부가 자원 소유권 보유)
페루	– 가능 – 정부간 협정 체결 시 수의계약 가능	– 원칙적 공개입찰
볼리비아	– 가능 – 국가간 협약 체결 시, 입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업간 계약 체결 가능	– 원칙적 공개입찰
콜롬비아		– 원칙적 공개입찰

그러나 중남미 지역의 경우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높고, 자원개발 관련 법적·제도적 발전 수준도 높아 패키지형 진출 방식 적용에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자원개발 계약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들과 패키지형 진출이 가능한 국가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남미 국가 중 아직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는 페루를 위시한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이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패키지형 진출 가능 국가와 유망진출 분야를 제시하면, 페루의 경우 발전부문, 정유공장 및 가스관 건설, 석유화학 공장 건설, IT산업 등이 있다.

표 VI-13 패키지형 진출 유망국가와 분야

부문 / 국가	발전	조선	정유공장/가스관	제철소	석유화학	IT	도로/터널
베네수엘라		◉		◉		◉	
아르헨티나		◉					◉
페루	◉		◉		◉	◉	
볼리비아	◉		◉				
에콰도르	◉		◉			◉	◉

주: 유망진출 분야는 중남미 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기준으로 작성.

특히 최근 페루에서 IT사업과 광물자원 수입(輸入)을 연계한 진출 전략은 패키지 진출 전략으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 IPTV 컨소시엄은 2009년 4월 3년간 페루 전역에 유무선 IPTV망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인적자원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페루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 10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의 투자비용 전액을 페루 현지 광물(구리, 아연, 몰리브덴 등)로 받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IPTV 컨소시엄은 페루 광물개발 기업인 SCI그룹 등과 주요 광물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협약을 체결했다.

2) IT 분야

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1) 한국・페루 IT협력위원회 신속 설립

최근 페루가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먼저 2009년 3월 한・페루간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페루 정부가 한국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4의 통신사업자와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와이브로와 WCDMA의 페루 시

장 진출이 가시화 되었다. 2009년 4월에는 한국IPTV컨소시엄이 IPTV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해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형 IPTV가 페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한국과 페루 간의 급증하는 IT 협력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페루의 I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발전시키는 등 양국간 IT 협력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페루 IT협력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페루 측은 한국과 페루 간의 IT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2009년 3월 한·페루 간 IT 협의체 구성을 우리 측에 제안하였다.

(2) 정보접근센터 설립 운영

우리나라는 IT 강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IT 국제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IT후발국의 정보화 촉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형태가 정보접근센터 구축 사업이다.

지난 2002년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정보화진흥원이 글로벌 정보화 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 11월 말까지 현재까지 총 21개국에 구축되었다. 중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와 파라과이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중남미 IT후발국인 페루와도 정보접근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IT강국의 이미지를 현지에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표 VI-14 정보접근센터와 IT국제협력센터 비교

	정보접근센터(IAC)	IT국제협력센터(ITCC)
설립 목적	– IT후발국의 정보화 촉진 – 정보격차 해소	– IT산업 성장잠재력 및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전수·공유하고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 – 양국간 IT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진출 지원
운영방식	– 매칭펀드 방식 – 장소 제공 및 시설 운영은 해당 국가(기관)가 분담	– 매칭펀드 – 2년간 한시적 운영
주요 활동 및 사업	–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라운지, 세미나실, 운영요원 사무실 등 해당국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시설 구축 – Video Conference, e-Learning 시설 등 첨단 원격교육 시설 구축 – 센터 운영요원들에 대한 초청 연수 실시 및 정보화 교육교재 지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현지 점검반 파견을 통한 현지 운영 지원	– 상대국 정보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양국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수행 – IT 분야 기술 및 인력 교류

(3) 페루 현지 청년 IT인력 초청 사업 심화 및 확대 운영

현재 KOICA 등을 통해 중남미 현지 IT인력 초청 사업이 활발

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업은 대체로 현지 IT 정책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고위급 인사의 초청에 국한되고 있다.

페루 현지에서 한국의 IT제품에 대한 홍보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IT제품의 주요 소비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초청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지 청년 IT인력으로 초청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의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페루의 경우 IT를 전공한 교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IT 인턴십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4) ODA 사업의 일환으로 IT 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지원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전략적 ODA 지원대상국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페루에 대한 ODA는 주로 병원 건설 등 빈곤층 문제 해결에 집중돼 왔다.

앞으로 페루에 대한 ODA 지원은 페루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분야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분야가 IT 분야의 인력 육성이다. 때마침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도 청소년 IT 인력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ODA 사업의 일환으로 페루 정부와 IT 정보기술고등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기존의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를 IT 정보기술 학교로 전환, 성공을 이룬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IT 관련 인력육성 분야에서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IT 기술 수준은 페루의 IT 청소년 인력육성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와의 IT 정보기술고등학교 설립 사업 추진 시 현재 우리나라가 IDB에 기탁한 지식협력 관련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기업의 진출방안

(1) 페루를 중남미 IT시장 진출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

최근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우리 기업의 대표적인 IT진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먼저 페루는 우리나라의 IPTV 진출 대상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지씨앤씨, KTN, 넷월드, 아이비스터디 등 5개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 IPTV컨소시엄은 2009년 4월 27일 'IPTV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계약을 페루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페루 IPTV 프로젝트는 페루 전역에 IPTV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PeKvian HRD-IPTV, PHI)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3년간 페루 전역에 유무선 IPTV

망을 구축하고 현지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인적자원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2010년까지 진행될 제1단계 사업은 페루의 수도 리마와 인근의 파스코 지역에 1억 7,300만 달러 예산으로 100만 가구에 광통신망을 구축하고 IPTV 방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 중인 e-러닝 세계화 사업과 부산시가 포스트-APEC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APEC e-러닝 연수프로그램이 국내 IPTV 상용화 기술과 만나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글상자 12 한국의 페루 IPTV시장 진출 사례

한국 컨소시엄(APEC국제교육협력원, ㈜이지씨앤씨, KTN, 넷월드, 아이비스터디)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IPTV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1단계로 리마와 파스코 지역에 1억 7,300만 달러의 IPTV 서비스를 위한 광통신망과 방송센터를 설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페루 컨소시엄과 체결했다.

IPTV 운영에 필요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페루 컨소시엄에 전수할 예정이며, 페루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중 1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투자에 대한 상환의 일부는 정광 및 원유를 각각 LME, WTI 가격 기준으로 환산해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IPTV 및 교육 관련 기업이 남미에 진출하고, 한국 자원외교의 큰 성과를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페루는 IPTV를 활용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2대 현안과제인 빈부격차 해소 및 문맹률 저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남미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상자 12 계속

이번에 계약한 1단계 프로젝트에서는

① 수도 리마-파스코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300km에 걸친 IPTV 광통신망의 기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② IPTV 운영, 관리를 위한 IPTV 방송센터 및 교육 콘텐츠 생산 및 평가를 위한 대학, 지역 HRD센터 설립

③ 페루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전반에 걸친 컨설팅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이후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리마와 4개 도시를 연결하는 2,200km의 IPTV 시설과 인프라 구축 및 방송과 HRD 센터를 설립하고, 페루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교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페루와 공동 제작해 페루가 스페인어 방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PTV를 활용한 인적자원개발 사업'은 페루가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의 e-러닝 세계화사업 및 부산시의 Post-APEC 사업 일환으로 IACE가 운영한 'APEC e-러닝 연수 프로그램'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하고, 2008년 8월 IACE에 원격 네트워크 구축사업 컨설팅을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다. 페루의 의뢰에 IACE가 'IPTV를 활용한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확대・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양해각서를 거쳐 2008년 11월 사업 진행에 합의한 것이다.

※ 알콥(ALCoB,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s): 교육과학기술부와 IACE가 주도하여 2003년부터 구축해온 APEC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교사, 학생, 후원그룹(학자, 전문가, 교육관계자, 기업인 등)으로 APEC 역내 휴먼네트워크의 인적자원을 모두 일컬으며 총 15개 국가에 4,000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국컨소시엄: APEC국제교육협력원, KT 네트웍스, EGC&C, 넷월드 코리아, 한국교육아이비스터디

※ 페루컨소시엄: 민・관・학 특수목적회사(Asociaci□n Peruana de Telecomunicaciones y Teleeducaci□n Sociedad Anonima, APPT S.A.) 페루 국립 다니엘 알시데스 까리온 대학(Universidad Nacional Daniel Alcides Carrion, UNDAC)

둘째, 페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와이브로 및 WCDMA 거점 진출 대상국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2009년 3월 페루 정부가 제4의 통신사업자와 와이브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 등 우리 와이브로 업체의 현지 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셋째, 페루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대상국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12일 페루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우리 정부는 3억 규모의 페루 전자정부의 생성, 유통 등에 필요한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2008년 한국과 페루는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고 페루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루는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주요 IT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했다. 따라서 향후 중남미 IT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공은 페루 시장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페루 에너지개발 성공사례에서 보듯 중남미 한 국가에서의 성공모델은 다른 중남미 국가로의 이식에 매우 유용하다. 이는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법적·제도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현재 페루 시장에서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중남미 인근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현지 소프트웨어 산업체와의 협력 확대

페루는 IT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히 청소년 인력 육성을 강조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페루에는 300개의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는데, 이 중 70%가 미국 및 안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나 기술 수출 등을 통해 페루 현지시장 진출은 물론 인근 안데스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봄 직하다.

(3) Korea IT Festival 개최

IT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Korea IT Festival 행사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현지 진출기업, 우리 정부 및 현지 주한 공관 등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행사의 주요 내용은 각종 IT공모전, 시연회, 박람회 혹

은 전시회, 한국산 IT제품을 활용한 각종 이벤트(예: 문자 빨리 보내기 등) 등으로 구성된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나로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IT공모전을 개최해 시상자에게는 현지 기업 특채나 국비장학생 형태로 한국 유학 등 각종 특전을 제공함으로써 현지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3) 수산 분야

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1) 수산인력 육성 사업 지원

페루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고 수산업의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어업기술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페루의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낮은 교육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어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수산교육에 집중할만한 여력이 거의 없다.

향후 무궁무진한 페루 수산업의 잠재력을 현재화하기 위해서는 수산인력 육성을 통한 기술 발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페루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페루가 갖고 있는 수산부문의 발전 잠재력을 선점하고 새로운 개발협력 분야를 발굴,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수산기술 훈련센터' 혹은 '수산기술학교' 설립 사업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글상자 13 페루의 수산부문 교육 실태

페루에서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을 담당한다. 초중등교육은 무료이나 부모는 학교 등록 시 일부 기부금을 내며 교복과 교육재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학교 등록과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부모들의 심각한 빈곤으로 약 280만 명의 인구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페루의 문자해독률은 87%이다.

어업 활동에 대한 훈련이 어촌에서 학교의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민의 자제들은 아버지를 따라 어업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어업 기술을 습득한다. 생계형 어업에서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따라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특히 어선이 가족 소유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수산부는 페루 북부(CEP Paita)에서 성인 어민을 대상으로 기술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강의 내용은 어구, 엔진 및 어선 수리, 조업기술 및 안전조치 등이다. 해외나 리마에 소재한 공과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을 배우기도 한다.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은 KOICA의 ODA 자금은 물론 우리나라가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해외 한인수산업체에 대한 투자 지원

페루 현지 진출 우리 수산업체의 경우 신규 공장을 건설하거

나 확장 공사 시 대부분의 공장 기자재(냉동기, 발전기 등) 및 건축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등 한국의 대페루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산업체들이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중기적으로 현지진출 수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우선적으로는 현지진출 기업들이 희망하는 '해외진출업자가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수산정책자금 혹은 수산발전기금 등을 융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나) 기업 차원의 진출 방안

(1) 페루의 FTA를 활용한 진출 방안 모색

페루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다. EU와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대부분의 선진권과 FTA를 체결할 전망이다.

따라서 페루 수산부문 진출 시 이 같은 페루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현지에 진출한 일부 수산업체가 미국과의 FTA 무역특혜를 겨냥해 미국 수출을 개시하고 있다.

실제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페루가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의 생산기지로서 매우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페루의 풍부한 수산 잠재력을 활용, 현지에 수산가공 생산기지를 건설해 미국 등 수산 소비대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VI-15 생산기지로서의 전망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의류·섬유	2.6	2.0	4.0	3.5	3.1	3.0
신발 및 잡화	2.1	2.0	4.0	3.5	2.9	2.7
전기·전자	3.9	1.5	2.6	3.7	2.7	3.0
플라스틱/고무	3.8	1.7	3.3	–	3.0	3.1
화학	3.5	1.7	3.3	4.0	2.2	2.6
자동차 및 부품	4.5	1.5	2.0	4.8	2.5	3.1
일반기계	3.1	2.7	2.0	3.7	2.5	2.7
철강	4.2	2.0	2.0	5.0	1.9	2.6
농업 및 가공업	2.7	3.8	4.8	5.0	3.2	3.4
수산업 및 가공업	3.0	3.5	4.5	3.0	3.1	3.2
임업 및 가공업	2.6	3.0	4.3	4.0	2.6	2.8
광물·에너지	3.6	4.3	4.9	5.0	2.5	3.4
IT산업	4.0	4.0	3.3	4.3	2.4	3.1
평균	3.4	2.6	3.5	4.1	2.7	3.0

주: 척도는 1~5까지로, “매우 유망(5)”, “조금 유망(4)”, “보통(3)”, “약간 어두움(2)”, “매우 어두움(1)”로 설정, 이하 동일.
자료: KIEP 설문조사(2009).

(2) 페루 양식산업과의 협력 모델 구축

페루는 양식산업에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페루의 양식산업 기술 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페루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투자도 거의 전무하다. 페루는 수산업 중 양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산업의 풍부한 경험으로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발전된 양식기술과 페루의 풍부한 양식자원이 결합할 경우 양식산업 부문에서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냉장유통(cold chain) 부문 진출 모색

최근 페루 국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의 FTA 체결 등에 힘입어 수산물 수출도 크게 급증할 전망이어서 냉장유통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냉장유통 시스템은 자금 및 기술 부족으로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페루 수산부문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수산업체들은 페루의 냉장유

통부문에도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볼 만하다.

(4)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의 자금 활용 방안 모색

전반적으로 우리 수산업체들은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면에서는 아직까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 수단도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페루를 위시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수산업체들은 예외 없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페루 현지에 진출한 우리 수산업체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조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5년 우리나라가 IDB에 가입하면서 크게 기대했던 분야 중 하나가 IDB 차관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남미 진출 기업들이 IDB 차관을 활용한 예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IDB 차관 활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IDB 산하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의 융자에도 고려해볼 만하다. IIC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중남미 현지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단이 융자이다. IIC 융자는 대출기간이 신속(효율성)하

고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새로운 적용(창조성)을 하며, 융자의 구조·기간·지불조건 면에서도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IC의 가장 기본적인 융자 조건은 △수익성 존재 여부 △감사가 확인한 재무보고서 보유 △성장 잠재 가능성 보유 △국내의 노동 및 환경기준 준수 등이다.

IIC 융자는 1차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기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일본 수산업체가 2007년 9월 IIC로부터 1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았다. 수산물 수입 전문회사인 일본기업이 IIC 융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가장 큰 요인은 멕시코의 고용 증대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남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수산업체들도 일본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국의 고용에 기여하고 일정 정도의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IIC 융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20)]

---

20) 한국기업이 IIC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IDB 아시아 사무소에 회사 및 자금계획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 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IIC 담당부서에 보내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후 IIC는 융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융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자료 보강을 요청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IC의 지역사무소가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현장 실사 이후 최종적으로 융자 유무를 결정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권기수 외. 2008.『중남미 광물・에너지자원개발 및 플랜트산업 진출 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용역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페루 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한・페루 FTA 추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외교통상부 중남미자원협력센터 홈페이지 자료.

외교통상부. 2008. 한・페루 FTA 공청회 자료.

이상현・권기수. 2008.『페루의 산업기술정책』. 한국산업기술재단.

중남미자원협력센터. 2008.『중남미 에너지자원 보고서』. 서울: 외교통상부.

한국수출입은행. 2006.『중남미 에너지・광물자원 현황과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외국문 자료

Alder, Jackie and Daniel Pauly. 2008. *A Comparative Assesment of Biodiversity,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53 Countries' Exclusive Economic Zones*. Fisheries Center Research Reports 2008, Vol. 16, No. 7.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 2007. Notas de Estudios del BCRP. febrere de 2007.

Business Monitoring International. 2009. *Peru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Q3 2009*.

_____. 2009. *Peru Mining Report 2009*.

_____. 2009. *Peru Oil & Gas Report Q4 2009*.

CONCYTEC. 2006. *Plan Nacional Estrategico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para la Competitividad y el Desarrollo Humano(PNCTI 2006-2021)*.

EIU. 2008. *Country Profile 2008: Peru*.

_____. 2008. "The 2008 e-Readiness Rankings."

Fraser Institute. 2007/2008. *Survey of Mining Companies*.

_____. 2008. *Global Petroleum Survey 2008*.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2007. "Marco Macroeconomico Multianual 2008-2010."
Paul Budde Communication Pty Ltd(BuddeComm). 2009. "Peru-Key Statistics, Telcom 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s."
_____. 2009. "Peru-Telecoms Market Statistics & Forecasts."
Proinversion. 2009. *Peru: Why Invest in Peru?*
PromPeru. 2009. *Desenvolvimento del Comercio Exterior Pesquero en el Peru 2008*.
Tilman, John. 2006.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Proposed WTO Negotiations: The Fisheries Sector - Country Case Study: Peru."
UN. 2008. *UN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8*.
UNCTAD. 2007. *World Investment Report: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trac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July)
USGS. 2008.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8*.
World Economic Forum. 2008.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7-2008*.
WEF. "2007-2008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World Bank. 2007.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_____. 2007. *Doing Business 2008*.
_____. 2009. *Doing Business 2010*.

웹 사이트

British Petroleum 홈페이지 자료.
CONCYTEC 홈페이지 자료.
ECLAC 홈페이지 자료.
EIU Viewswire 온라인 자료.
Global Insight 홈페이지 자료.
IMD 온라인 자료.
IMF 홈페이지 자료.
JOGMEC 홈페이지 자료.
Metals Economics Group 홈페이지 자료.
Red Mundial de Cientificos Peruanos(RMCP, www.rmcp.org) 홈페이지 자료.
World Trade Atlas 온라인 자료.

부록

1. 유관기관 및 기업 현황

가. 광업·에너지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 에너지광업부 (MEM: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전화: (51-1) 475-0065
- 홈페이지: www.minem.gob.pe
- 장관: Mr. Sr. Pedro Sanchez Gamarra
- 전력국장: Mr. Ismael Aragón Castro: iaragon@minem.gob.pe

□ 페루민간투자진흥청
(PROINVERSION: Agencia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rivada:)
- 전화: (51-1) 612-1200 내선. (1341)
- 홈페이지: www.proinversion.gob.pe
- 전력·탄화수소 프로젝트 팀장: Mr. Luis Ortigas Cuneo
- e-mail: lortigas@proinversion.gob.pe / adelaguila@proinversion.gob.pe

□ 전국 광업·석유·에너지회의소 (SNMPE)
- 전화: (51-1) 460-1600
- 홈페이지: www.snmpe.org.pe
- 회장: Mr. Hans Flury
- 국장: Mrs. Caterine Podesta Mevius
- 에너지부문 팀장: Mrs. Tatiana Lozada

- e-mail: tlozada@snmpe.org.pe

□ 에너지 및 광업부문 투자 감독청 (OSINERGMIN)
- 전화: (51-1) 219-3410, 219-3400
- 홈페이지: www.osinergmin.gob.pe
- 국장: Mr. Edwin Quintanilla Acosta

□ Petroleos del Peru Petroperu S.A. (PETROPERU)
- 전화: (51-1) 614-5000, 211-7800 (내선 11320)
- 홈페이지: www.petroperu.com.pe
- 국장: Mr. Miguel Celi Rivera
- e-mail: mceli@petroperu.com.pe
-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팀장: Mr. Marco Silva
- e-mail: msilva@petroperu.com.pe

□ 광물·금속 지질연구원 (INGEMMET: Instituto Geologico Minero y Metalurgico)
- 전화: (51-1) 618-9800
- 홈페이지: www.ingemmet.gob.pe
- 원장: Mr. Walter Casquino Rey
- e-mail: wcasquino@ingemmet.gob.pe
- 광업관련 양허국장: Mr. Angel Chavez Mendoza

□ Laub & Quijandria Consultores
- 전화: (51-1) 628-1502, 628-1503
- 홈페이지: www.lq.com.pe
- Socio Principal: Mr. Jaime Quijandría Salmón,

- e-mail: jquijandria@lq.com.pe

□ 광업 엔지니어연구원 (Institute of Mining Engineers: IIMP)
- 전화: (51-1) 313-4160
- 홈페이지: www.iimp.org.pe
- 원장: Mr. Juan Hoyos
- e-mail: gerencia@iimp.org / fcastillo@iimp.org

□ 광물·에너지 조사연구원 (IDEM)
- 주소: Ca. Francisco Grana 671, Magdalena Del Mar, Lima, Peru
- 전화: (51-1) 460 - 6803
- 팩스: (51-1) 460 - 1600
- 원장: Ms. Angela Maria Ruiz Salazar
- Mail: amruiz@terra.com.pe / idem@snmpe.org.pe

□ 페루 자동차용 천연가스 연합회
- 전화: (51-1) 611-7618
- 홈페이지: http://www.cpgnv.org.pe

나. IT 산업 유관기관 및 기업

□ 국립 전자정부 및 정보 사무소
(Oficina Nacional De Gobierno Electrónico e Informática: ONGEI)
- 전화: (51-1) 274 4356, 274 4358 (내선) 107
- 홈페이지: http://www.ongei.gob.pe
- 국장: Mr. Enrique Saldívar

□ 페루 전자상거래 연합회

(CAPECE: Camara Peruana de Comercio Electronico)

- 전화: (51-1) 431-0885
- 홈페이지: http://www.capece.org.pe
- 회장: Mr. Helmut Caceda

□ 페루 소프트웨어 생산업자협회

(Asociación Peruana de Productores de Software: APESOFT

- 전화: (51-1) 224-6380
- 홈페이지: http://www.apesoft.org
- 협회장: Mr. Juvenal Luna Gonzales

□ 전국 경제인 연합회 산하 정보 및 연관기기 위원회

(Comité de Equipos de Informática y Conexos de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 전화: (51-1) 616-4444
- 홈페이지: http://www.sni.org.pe

□ 리마 상업회의소 산하 IT 위원회

(Comité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de Cámara de Comercio de Lima)

- 전화: (51-1) 463-3434
- 홈페이지: http://www.camaralima.org.pe

□ 국가 과학기술기술혁신 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Ciencia, Tecnología e innovación Tecnológica: CONCYTEC)

- 전화: (51-1) 225-1150
- 홈페이지: http://portal.concytec.gob.pe
- 국장: Mr. Jorge Del Carpio

□ 전화통신 민간투자 감시청
(Organismo Supervisor de Inversión Privada en Telecomunicaciones: OSIPTEL)
- 전화: (51-1) 225-1313
- 홈페이지: http://www.osiptel.gob.pe
- 청장: Mr. Guillermo Santiago Thornberry Villarán

□ 정보사회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위원회
(Comisión Multisectorial para el Seguimiento y Evaluación del Plan de Desarrollo de la Sociedad de Información: CODESI)
- 전화: (51-1) 274-4356
- 홈페이지: http://www.codesi.gob.pe
- 국장: Mr. Enrique Saldívar

□ 페루 무료 소프트웨어 연합회
(Asociación Peruana de Software Libre: APESOL)
- 전화: (51-1) 223-2553, 99803-0644
- 홈페이지: http://www.apesol.org/
- 회장: Mr. Carlos Horna Vallejos

□ 교통통신부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MTC)
- 전화: (51-1) 615-7800
- 홈페이지: http://www.mtc.gob.pe

- 장관: Mr. Enrique Cornejo Ramirez

다. 수산업 연관기관 및 기업

□ 생산부 (Ministerio de la Producción)
- 전화: (51-1) 616-2208, 616-2200
- 홈페이지: www.produce.gob.pe
- 장관: Mrs. Mercedes Araoz Fernandez
- 차관: Mr. Alfonso Miranda Eyzaguirre

□ 전국수산업협회 (Sociedad Nacional de Pesquería)
- 전화: (51-1) 261-2970, 461-2003
- 홈페이지: http://www.snp.org.pe
- 협회장: Mr. Raul Sánchez Sotomayor

□ 페루해양청 (Instituto del Mar del Perú: IMARPE)
- 전화: (51-1) 625-0800
- 홈페이지: http://www.imarpe.pe
- 청장: 해군소장 Hector Soldi Soldi

□ 수산기술청 (Instituto Tecnológico Pesquero: ITP)
- 전화: (51-1) 577-0118
- 홈페이지: http://www.itp.org.pe/
- 청장: Ing. Miguel Gallo Seminario

2. 관련전시회

□ EXTEMIN – 광업기술 전시회

□ PERUMIN - 광업 컨벤션
- 목적: 광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구, 서비스 전시. 광업 엔지니어와 관심 있는 대중을 위한 국제 컨벤션
- 날짜: 2009년 9월 14-18일
- 장소: TECSUP 강당, Arequipa, Perú
- 방문객: 3,000명 이상.
- 빈도: 격년
- 첫회: 1954
- 다음회: 2011년 9월
- 홈페이지: http://www.convencionminera.com
- 주관: 페루 광업엔지니어 협회 (Instituto de Ingenieros de Minas del Peru) www.iimp.org.pe
- 연락처: Mr. Juan José Herrera Távara(위원장)
- e-mail: mlozano@iimp.org.pe
- 전화: (51-1) 349-4262 (내선 379, 380)

□ 수산 및 양식업 국제전시회
(Feria Internacional de Pesca y Acuicultura-EXPO PESCA PERU: ACUIPERU)
- 목적: 수산 및 양식 상품, 재료, 기구 등
- 날짜: 2009년 11월 12~14일
- 장소: Centro de Convenciones del Jockey Plaza, Lima, Perú
- 방문객: 전문가 15,000명 방문 예상
- 빈도: 2년에 1회
- 첫회: 2003
- 다음회: 2011년 11월
- 홈페이지: http://www.thaiscorp.com/expopesca_new/

- 주관: Thais Corporation S.A.C.
- 담당자: Mr. Guillermo Thais Mayo (General Manager)
- e-mail: thais@amauta.rcp.net.pe
- 전화: (51-1) 344-4386, 344-4387

□ 국제 가스전시회 (Feria Internacional de Gas: FIGAS 2010)
- 목적: 천연가스, 자동차용 천연가스, GLP 관련 기계 및 서비스 전시
- 날짜: 2010년 8월 19~21일
- 장소: 미정 (Lima)
- 방문객: 2008년에 7,000명 이상 관람
- 빈도: 2년에 1회
- 첫회: 2004
- 다음회: 2012년 8월
- 홈페이지: http://www.thaiscorp.com/figas/
- 주관: Thais Corporation S.A.C.
- 담당자: Mr. Guillermo Thais Mayo (General Manager)
- e-mail: thais@amauta.rcp.net.pe
- 전화: (51-1) 344-4386, 344-4387

□ Seguritec Peru 2012
- 목적: 안전 관련 기계, 서비스, 기술 및 산업안전기계 전시
- 날짜: 2012년 11월 8~10일
- 장소: Centro de Convenciones del Jockey Plaza, Lima, Perú
- 방문객: 10,000명 이상 방문 예상
- 빈도: 2년 내지 3년에 한 번
- 홈페이지: http://www.thaiscorp.com/seguritec/site/
- 주관: Thais Corporation S.A.C.
- 담당자: Mr. Guillermo Thais Mayo (General Manager)
- e-mail: thais@amauta.rcp.net.pe
- 전화: (51-1) 344-4386, 344-4387

저자약력 페루의 주요 산업

권기수(權奇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kskwon@kiep.go.kr)

박강욱(朴康煜)
KOTRA 리마 KBC 차장
(現, E-mail: juancarlos@kotra.or.kr)